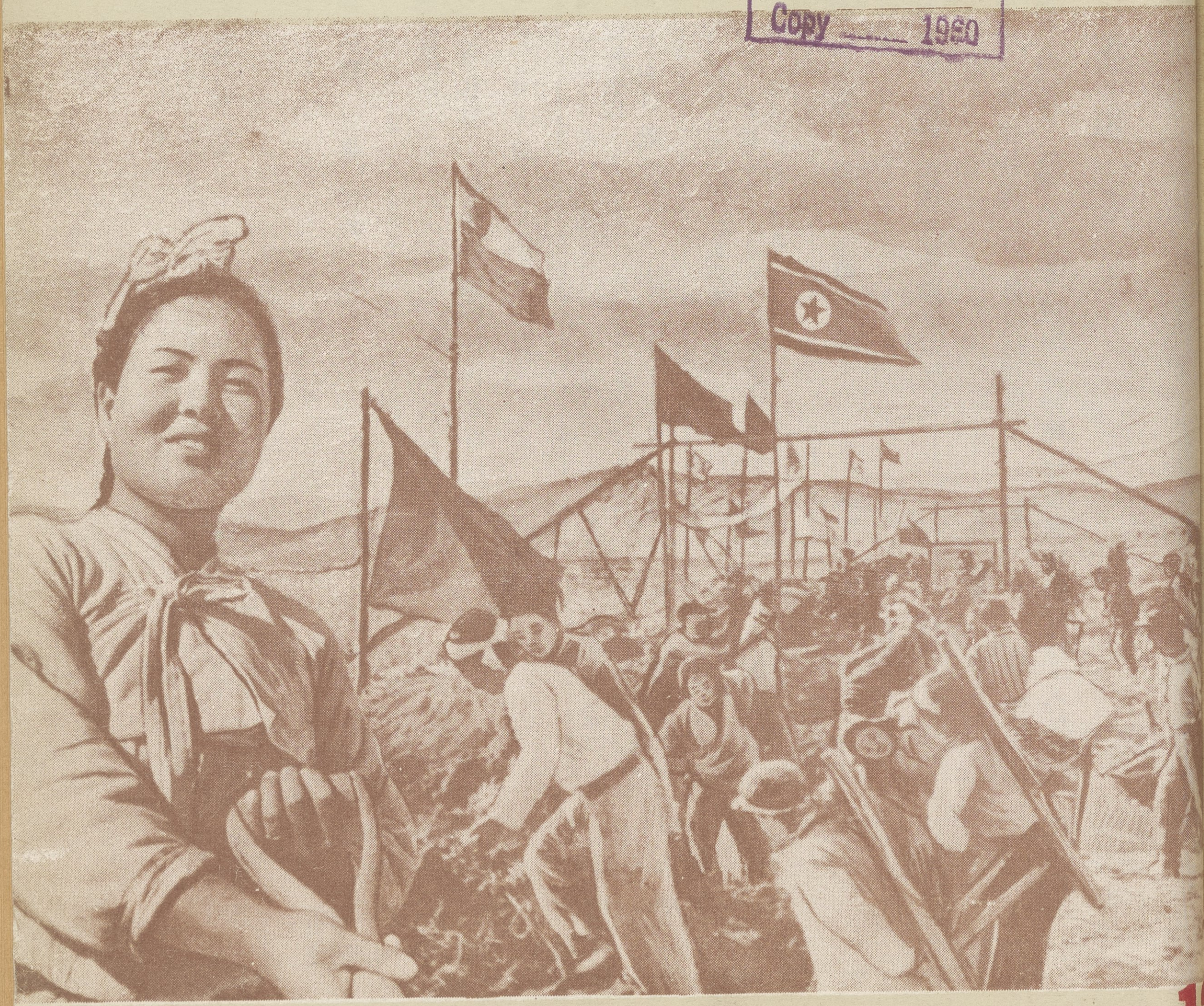
21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청년생활



1
19

청년생활

제12호 (75)

1955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제一二호 내용

사설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 제三차 전당 대회를 높은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一二월 전원 회의는 명년 四월에 제三차 전당 대회를 소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조선 인민의 지도적、향도적 력량인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 제三차 전당 대회의 소집은 우리 인민과 청년들의 생활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사변으로 된다. 때문에 전체 근로 대중과 함께 조선 청년들은 로동당 제三차 전당 대회 소집의 소식을 큰 감격과 흥분된 심정으로 접수하였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에 의하여 창건되였으며 지도되는 로동당에 대한 조선 인민과 청년들의 사랑과 신망은 대해 같이 깊고 태산 보다도 높다.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로동당을 자기들의 자유와 행복의 향도성으로、또한 자기들의 량심과 지혜、영예와 승리의 상징으로 우러러 보며 그에게 자기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로동당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전투적 행로와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에 끼친 그의 거대한 영향력과 광휘 찬란한 불멸의 업적이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조선 로동당은 김 일성 원수의 령도 하에 지난 一〇년간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량 어깨에 걸머지고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 독립과 인민들의 자유 행복을 위한 불요 불굴의 혁명 투쟁을 전개하여 왔으며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로동당 제二차 전당 대회 이후의 조국 력사는 김 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로동당 중앙 위원회의 정확한 령도 하에 자기의 영광스러운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창건하고 그의 위력을 강화하며 외래 제국주의의 침략 세력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조국의 자유 독립과 인민 민주주의 혁명의 전취를 영예롭게 수호한 조선 인민의 위대한 승리로써 빛나고 있다. 전후에 있어서 로동당은 우리 인민과 청년들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의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전투적 강령으로 무장시켰는바 당과 경애하는 수령의 령도 하에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실천에로 확신 있게 전진하고 있다. 그리하여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오직 조선 로동당 만이 인민의 리익의 철저한 옹호자이며 당의 사업이 자기들의 혈연적 사업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를 절대로 지지하며 신뢰하며 그 실천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다.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는 우리 나라 청년들을 육친과 같은 사랑과 배려로써 돌보아 주며 그의 요구와 희망을 알아 주며 청년들의 행복한 생활과 교육과 전면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지어 주고 있다.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는 민청의 창건자이며 지도자이다. 조선 근로 대중의 선봉대이며 맑스—레닌주의적 새형의 당인 로동당은 군중과의 끊을 수 없는 견고한 련결을 자기의 힘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바 당은 자기의 인전대인 민청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광범한 청소년들과 련결되여 있다.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는 부단히 민청을 고무하고 사상적으로 풍부히 하고 조직적으로 결속시키면서 옳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 로동당의 정책과 그의 지시들은 언제나 민청의 전투적 행동 강령이며 당의 지도는 민청 사업의 모든 성과와 공고성의 원천으로 되였으며 또 되고 있다.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의 령도 밑에 살며 일하며 배우는 것은 조선 청년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행복이다. 명년 一월 一七일로써 자기의 탄생 一〇주년을 맞이하는 민청은 一〇〇만 이상의 민청원들을 결속한 당의 믿음직한 전투적 후비대로써 김 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그 어느 때 보다도 튼튼히 단결되여 있다.

로동당 제三차 전당 대회를 앞둔 우리 조국의 형편은 엄숙하다. 사랑하는 조국은 미제 침략 세력과 그 주구들의 책동에 의하여 량단되여 있으며 원쑤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반대하여 계속 발악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로동당과 수령은 전체 인민과 청년들의 일체 력량을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사회주의 기초 건설에 돌리라고 뜨겁게 부르고 있다. 로동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가 제시한 력사적 과업、즉 근로자들의 계급 교양과 전국가적 반관료주의、반탐오、반랑비 투쟁을 더욱 강화하며 당 중앙 위원회 一一월 및 一二월 전원 회의가 명시한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한 투쟁의 성과적 실행은 우리 혁명 승리를 담보하는 민주 기지 강화의 결정적 고리로 된다.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은 당이 제시한 력사적 위업 수행에 있어서 그의 후비대인 민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증대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민청의 조직을 일층 강화하며 민청 사업을 급속히 개선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민청에 대한 로동당의 신임은 무한히 두텁고 그가 위임한 사업은 영예롭고도 무겁다. 민청에게 있어서 당의 말、당의 지시는 무엇 보다도 귀중하며 로동당의 위업에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영예보다 더 고상한 것은 없다.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에 의하여 창건 육성된 민청은 언제나 당의 뒤를 견결히 따랐으며 또한 당의 충직한 방조자로 전투적 후비대로 되여 왔으며 또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이 제기한 혁명 과업 실천에서 끝까지 당에 충직할 것이다. 민청과 그의 맹원들은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결속될 것이며 더욱 꾸준히 과학 기술과 문화를 소유할 것이며 사랑하는 조국의 통일 독립과 부강 발전을 위한 전 인민적 투쟁에 더욱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자기의 힘과 정력과 지혜를 아끼지 않고 바칠 것이다.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이여!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 제三차 전당 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성과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 실행에서의 창조적 로력 성과와 학습에서의 새로운 성과는 제三차 전당 대회에 드리는 우리들의 가장 훌륭하고 값 있는 선물로 된다. 청춘의 거센 정열의 불길을 증산과 절약과 높은 학과 성적을 위해 더욱 치렬히 불타게 하자! 모두 다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주위에 더욱 튼튼히 단결하여 그가 가리키는 혁명의 길로 새 승리를 향하여 더욱 용감하게 전진하자!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 만세!

농촌 청년들의 큰 관심과 힘을 알곡 증산에 집중시키자!

민청 중앙 위원회 농민 청년 부장
김 현 일

최근에 진행된 로동당 중앙 위원회 一二월 전원 회의는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한 로동당의 금후 투쟁 대책에 관한 당 중앙 위원회 一一월 전원 회의 결정 집행 정형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농촌 경리의 앞으로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전 인민적 과업을 명시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 一二월 전원 회의는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업은 알곡 증산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를 위한 제 대책들을 제시하였다. 로동당 중앙 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알곡 증산의 결정적 고리는 경지 면적을 확장하며 비료의 생산과 시비를 증가하며 농촌 로력, 특히 청장년 로력을 확보하여 그를 고착시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알곡 증산을 위한 당 정책 실천에 있어서 민청 단체들과 민청원들의 가장 큰 관심과 정력은 응당 이와 같은 중심적 고리에 집중적으로 동원되여야 할 것이다.

토지를 더 많이 쟁취하며 그것을 잘 보호하자!

토지는 농업에서의 기본 생산 수단이다. 그러므로 알곡 증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고리는 토지의 면적을 넓히며 그것을 잘 보호하는 데 있다.

로동당 중앙 위원회 一一월 전원 회의 결정을 실천하면서 지난 기간 각급 민청 단체들에서는 새 토지의 쟁취, 토지 복구 보호, 관개 하천 공사 등에 광범한 청년들의 애국적 열성을 조직 동원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강원도내 민청 단체들은 금년에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창조적 로력에 의하여 一、二三六정보의 밭을 논으로 전환하였으며 四六七정보의 토지를 새로 쟁취한 것을 비롯하여 함북도 영안군내 민청원들은 금년 八월 말까지 一、五二六정보의 처녀지를 새로 개간하였다. 특히 명년 영농기 전으로 三五、七〇〇정보 이상의 관개 면적을 확장하며 一八、三〇〇정보 이상의 농경지를 홍수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당과 정부가 제시한 방대한 관개 하천 건설 과업을 받들고 광범한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함북도 어랑천, 주북천, 함남도 조양천, 성천강, 평북도 대령강, 청천강, 평남도 열두 삼천리 벌 강남 승호, 황남도 남대천, 황북도 매상천, 신해방 지구의 덕수 저수지 등 공화국 각 지방의 하천 제방 공사와 관개 건설 공사장들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을 솔선 담당하면서 민청 청년 돌격 공구, 민청 청년 돌격대, 청년 작업대 등을 조직하고 각종 창발성과 로력적 열성을 발휘하여 이미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그 성과를 날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한 과업 실천에 농촌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조직 동원하는 민청 단체들의 사업에는 적지 않은 결함들이 발로되고 있다. 그것은 많은 민청 단체들이 큰 규모의 관개 하천 건설 공사들에 광범한 청년들을 동원하는데만 치중하고 각 지방에 산재하는 중소 하천 제방 및 관개 공사들에 거의

관심을 돌리지 못하였으며 또한 일부 민청 단체들과 그 일군들은 큰 규모의 공사장들에 그의 작업 조건을 심중히 고려함이 없이 무원칙하게 많은 청년들을 단꺼번에 동원함으로써 작업 능률을 높이지 못하였다. 어떤 민청 단체들에서는 공사를 청부적으로 도맡아 행정적 방법으로 사업하면서 청년들 속에서의 대중 정치 사업을 진행함에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금년 초에 황남도 일부 군 민청 위원회에서는 관개 하천 공사를 따로 떼여 맡아 가지고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행정적 방법으로 동원하였다. 그리하여 숙소 배치, 공사의 전 행정을 지도 감독하면서 민청 단체가 응당하여야 할 대중 정치 사업에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그것은 일부 농촌 민청 단체들에서 로동당 중앙 위원회 一一월 전원 회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토의를 심히 형식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잘 말하여 준다. 우리는 또한 일부 청년들 속에 토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이 결핍되여 쓸데 없이 논밭 가운데 집터를 잡으며 아무데나 전선주를 세우며 길을 내는 등 토지를 소홀히 하는 현상과 투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지적 해야 할 것이다.

민청 단체들과 그 일군들은 이상의 제 결함을 시급히 시정하고 현재 광범히 진행되고 있는 관개 하천 건설 공사를 더욱 성과 있게 취진시키기 위하여 매개 공사장들에서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역할을 높이여 명년 영농기 전으로 당과 정부가 제시한 과업을 성과 있게 완수 및 초과 완수함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민청 단체들은 각 지방의 중소 하천 제방 및 관개 공사에 계속 광범한 농촌 청년들의 자각적 참가를 보장함에 큰 관심을 돌릴 것이며 간석지와 휴한지를 복구 개간하는 투쟁에서 청년들의 온갖 창의 창발성을 발휘시켜야 할 것이다.

민청 단체들과 민청 일군들의 과업은 토지 복구 보호 사업을 청부식으로 도맡아서 행정적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민청 단체의 기본 임무에 립각하여 청년들 속에서 알곡 증산을 위하여 돌려지고 있는 당과 정부의 정책을 깊이 해석 선전하며 그들 속에서 토지를 아끼며 사랑하는 사상을 더욱 고취함으로써 한평의 땅이라도 소홀히 하는 경향과 투쟁하며 한평의 토지라도 더 많이 쟁취 보호하며 백방으로 경지 면적과 관개 몽리 면적을 확장함으로써 알곡 증산에 이바지 하도록 그들을 교양함에 있다.

보다 많은 비료 생산을 위하여

농작물의 생육에 요구되는 비료를 다량으로 생산하며 시비하는 문제는 알곡 증산에 있어서 결정적 고리의 하나이다. 당과 정부는 화학 비료 및 자급 비료 생산을 급격히 증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결과 미제의 만행에 의하여 혹심히 파괴되였던 흥남 비료 공장 류안 비료 생산 직장이 복구되여 지난 八월 一一일 조업을 개시하였으며 기타 본궁, 순천 화학 공장 등이 급속히 복구되여 파린산 석회 등 다량의 화학 비료를 농촌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 비료의 생산량은 아직 농촌 경리의 장성하는 수요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 로동당 중앙 위원회 一二월 전원 회의는 화학 비료 공장의 시설의 확장과 그의 생산을 증가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민청 단체들은 이 부문 로동 청년들 속에서의 증산 경쟁 운동을 더욱 구체적으로 지도하며 건설의 속도를 높이여 하루 속히 보다 많은 비료를 농촌에 보내여 알곡 증산에게 기여하도록 지도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청 단체들은 토지의 산성화를 방지하며 그의 비옥도를 높이는 자급 비료의 다량 생산에 큰 주목을 돌려야 한다. 금년 二월 민청 중앙 위원회는 년간으로 되는 자급 비료 증산 경쟁을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 광범히 조직 전개할 것을 결정하였는바 이 결정은 광범한 농촌 청년들의 지지를 받았다. 황해북도 봉산군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이 결정을 지지하여 자기들의 경쟁 의무를 내놓고 공화국 각지 농촌 민

청원들과 청년들에게 자급 비료 증산 경쟁 운동을 호소하였다。봉산군내 민청원들의 호소에 호응 궐기한 전체 농촌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자급 비료 생산 투쟁은 군과 군、리와 리、개인 간에 치렬한 경쟁 운동으로 전개되였다。 그리하여 이 운동이 시작된 이후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로력으로 二천 一백 三만 七백 二一톤의 자급 비료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의 반면에 결함도 발로되였다。 그것은 일부 민청 단체가 자급 비료 증산 경쟁 운동을 지도함에 있어서 관료주의적 사업 방법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부 지도 일꾼들에게 공명심이 계속 발로되고 있는 그것이다。 평남도 일부 시、군 민청 단체에서는 하부 실정을 료해 타산함이 없이 「경쟁」을 민청원들에게 압부하거나 일부 지도 일꾼들은 책상에서 꾸며낸 허위 보고와 과장된 통계를 가지고 자기 만족하고 있었다。 다른 방면으로는 일부 시、군 민청 단체들은 일단 전개된 자급 비료 증산 경쟁 운동에 계속 지도를 주지 않았으며 경쟁 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한 경쟁 대상자 간의 호상 검열、총화、혹은 격려하는 등 정치 조직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급 비료 증산 경쟁 운동이 년간을 통한 꾸준한 일상적 사업으로 또한 대중적 운동으로 전개되지 못하였다。 많은 경우에 자급 비료 생산은 파종전의 소토 생산、여름의 풀베기를 제외하고는 중단되다 싶이 하였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만 국한되여 진행되였다。 둘째로 자급 비료 증산 경쟁 운동이 다른 영농 작업、특히는 자급 비료의 량적、질적 증산의 필수적 조건으로 되는 가축 증식을 위한 투쟁과 결부되지 못하였다。 그 실례로 고원군 합탄 농업 협동 조합을 들 수 있는바 이 조합은 금년에 자급 비료 생산에서 군내의 제一위를 찾이한 협동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합내 농가에는 가축이 아주 적은 숫자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질좋은 자급 비료를 증산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금후 농촌 민청 단체들에서는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자급 비료 생산을 일시적인 돌격 운동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완강한 계속적 투쟁으로 진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민청원들의 모범적 활동이 항상 대중들로 하여금 자급 비료 생산에 대한 자극으로 되여 이 운동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변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민청원들은 자급 비료 증산을 "매 농가에 한 마리 이상의 가축을 기르자!"라는 구호 밑에 무축 농가를 퇴치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농촌에는 자급 비료의 원천이 무진장하게 있다。 우리는 이때까지 자급 비료 원천을 탐구함에 있어서 인분、인뇨、가축의 분뇨 등 극히 국한된 범위에서 탐구되였다。 우리의 주위에는 부식 질토、니탄、상하토、해초 등 광물질 식물질의 유기질 비료의 원천이 무진장하게 있다。 문제는 발견된 자급 비료 원천을 극력 채취하며 아직도 탐구되지 않은 자급 비료 원천을 극력 찾아내서 이를 채취하여 알곡 증산에 이바지 하도록 민청원들의 온갖 창발성을 발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민청 단체들은 자급 비료 생산에 대한 당과 정부의 요구를 옳게 인식하고 금년도에 진행한 자급 비료 증산 경쟁 운동을 정확히 총화한 기초 우에 오는해 자급 비료 생산에서 보다 높은 성과를 쟁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 지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에 진출한 제대군인들과 초、고중 졸업생들에게 더 많은 배려를 돌리자

농업을 발전시키며 알곡 증산을 보장함에 있어서 농촌에 로력—특히 청장년 로력을 확보하며 그를 고착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당과 정부는 많은 제대 군인、초、고중 졸업생들을 농촌으로 보내며 인민 군대、내무원 및 각 기관 정무원들을 동원하여 농민들의 영농 작업을

방조케 하는 등 일련의 대책을 취하였으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실지에 있어서 농촌에서 핵심을 이루는 청장년 로력들—제대 군인、초、고중 졸업생들을 안착시키며 실지 로동 과정에서 모범적 역할을 발휘시키며 협동 경리의 강화 발전、새 영농 기술 도입을 위한 투쟁 등에서 그들이 항상 새것의 발기자로 자라고 단련되도록 도와 주는 것은 지금 농촌 민청 단체들의 중심적 과업의 하나로 되고 있다。 왜냐 하면 농촌에 진출한 제대 군인들과 초、고중 졸업생들은 거의가 다 민청원들이며 청년들이기 때문이다。 지난 기간 각급 민청 단체들은 농촌 경리 발전에 대한 당과 정부의 정책을 받들고 농촌에 진출한 제대군인들과 초、고중 졸업생들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림으로써 이들을 농촌 경리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케 하는데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들과의 사업에서 적지 않은 결함들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농촌에 진출한 제대군인들과 초、고중 졸업생들에 대한 민청 단체들의 지도가 일상적이며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적지 않은 민청 단체들이 이들과의 사업을 몇번의 좌담회와 담화로써 그치였으며 그들의 생활에 깊이 침투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요구에 민감하지 못하였다。 이런 결과에 농촌에 진출한 부분적인 초、고중 졸업생들이 안착되지 못하고 자기 맡은바 사업 수행에 성실히 참가하지 않았다。 또 하나의 결함은 농촌에 새로 진출한 제대 군인들과 초、고중 졸업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이 농촌 경리 발전에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함에 필요한 방조를 주지 못한 것이다。 오늘 당과 정부는 농촌에 진출한 청년들에게 농촌의 핵심적 기둥으로 농촌 경리 발전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것을 요구하며 기대하고 있다。

각급 민청 단체들은 농촌에 진출한 제대 군인들과 초、고중 졸업생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고 새 영농 지식을 소유하며 모든 농산 사업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로력에서 적극성과 창의 창발성을 발휘하며 사회 공동 재산에 대한 열렬한 애호、로동 규률의 준수、낡고 보수적인 현상들과의 타협없는 투쟁 등에서 로동당원들의 모범을 따라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더 많은 지도를 주어야 한다。 오늘 그들은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열망하면서 당의 부름에 호응하여 농촌 경리 분야의 핵심으로 활약하려는 굳은 결의에 충만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급 민청 단체들은 그들의 열성과 각종 창발적 발기를 적극 지지하며 새것을 배우려는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특히 민청 단체들은 그들의 일반 지식 수준 제고에 노력하도록 조건을 보장하여 주면서 선진 영농 기술을 솔선 배우며 그의 적극적 실천자로 되게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농촌 민청 단체들은 동기간 영농 기술 강습에 그들을 적극 참가시키며 영농 기술 써클을 확대하여 높은 수준에서 운영하는 등 그들이 농촌에 기술을 도입하는데 중심적 력량으로 되도록 일상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청 단체들은 제대군인들과 초、고중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농촌에서 군중 문화、체육 오락 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광범히 조직 진행하며 그들을 농촌 문화 계몽 사업에 적극 인입하여야 한다。

× ×

지금 공화국의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조선 인민의 지도적、향도적 력량이며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인 조선 로동당 제三차 전당 대회를 들끓는 감격과 드높은 정치적 앙양으로써 맞이 하고 있다。 각급 민청 단체들은 농촌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비등된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을 옳게 조직 동원하여 제三차 전당 대회를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한 당 중앙 위원회 一二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에서의 더 높은 성과로써 맞이 하여야 할 것이다。

전투와 학습

—한 항일 빨찌산 대원의 군사、정치 학습에 대한 이야기—

김 일 신

> 김 일성 장군의 빨찌산 부대의 불패의 력량은 그가 맑스—레닌주의를 투쟁의 지침으로 삼았으며 위대한 쏘련의 승리에서 자기의 확고 부동한 승리의 신심을 얻은 거기에 있다。가렬한 전투 중에서도 장군은 항상 맑스—레닌주의 고전들을 열심히 연구하였으며 부대의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교양에 대하여 어느 한 때도 잊은 때가 없었다。아무리 험한 행군에도 교양 서적을 전문적으로 질머지고 다니는 대원들이 있었고 격렬한 전투와 전투 사이에도 교양을 높이기 위한 학습을 계속하였다。(김 일성 장군 략전에서)

중대 전체 동무들이 자기를 비평하는 것이 군중적인 의사인 것 만큼 자기가 옳지 않다는 것을 생각은 하면서도 그러나 그렇게까지 책임을 추궁하고 사상적으로 옳지 않다고 지적할 것이 어데 있는가? 하는 불만스러운 생각이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총을 잘 쏘구、쌈판에서 일본놈을 하나라도 더 잡아 치우는 것이 남자의 놀음이구、지금 우리 유격대가 할일이지 이건 골치 아프게 글 공부를 하지 않는다구 비판하며 내 사상이 틀려먹었다느니 총 잘 쏜다구 자만하고 학습 안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옳지 않은 사상 근거에서 나오는 행동이니 아주 그런 것은 뿌리채 뽑아 버려야 한다구 나만 몰아세울 것이 어데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동수는 동무들을 피하여 아름드리 분비나무가 울창하게 서 있는 숲 속으로 들어가 햇빛을 피하여 베도즈(배낭)를 베고 들어 누었다。

七월의 태양은 하늘도 보이지 않는 숲 속을 엎누르는 듯이 무더웠다。그는 그늘 진 숲 속에서 햇빛을 받지 못하고 돋아나는 분비나무의 새싹을 뜯어 입에 넣고 짓씹었다。 이때 조 동무가 찾아 왔다。

「야! 지도원이 찾는다。동무들의 비평을 접수하면 그대로 실행해야지 속상하다구 누어 있으면 박사가 될 줄 아니、누어 있지 말구 어서 일어 나라야!」

부대에서도 이름난 정찰병이요、사람 골리기로 유명한 조 동무가 제법 훈시나 하듯이 말을 하고는 사부(사단본부)가 있는 쪽으로 뛰여갔다。

작식대(취사대원)들이 점심을 짓고 있는 바위 밑에서 중대 지도원인 최 동무와 이야기 하고 있던 사부 조직 과장은

반갑게 동수를 맞이 하였다。

「여기 앉으라우、우리 앉아서 이야기나 하자우」

하며 조직 과장은 쑥새풀이 갈대와 같이 돋아난 풀밭에 다리를 펴고 앉으며 동수를 자기 곁에 앉히고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오늘 토론회(학습회)에서 비평한 것을 지금 동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짐작할 수 있어、유격대원이 총을 잘쏴야지、그러나 정치 학습도 총쏘는것과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동무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조직 과장은 멜가방에서 책을 꺼내며 말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나는 동무와 개별적으로 약속하고 싶어서 불렀는데 이것은 공산당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구 이것은 제국주의 자들의 침략전쟁을 배격하는데 있어서 조선 공산주의 자들의 임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기 쉽게 쓴 책이야、하기야 다알고 있는 문제들이지만 읽으면 듣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구、자기 발전이 더욱 빨라질 수 있지……이렇게 하지、금년 동기 작전이 끝날 때까지 토론할 수 있도록 공부할 것을 오늘 나하구 약속하고……」

하며 동수에게 등사 한 적은 팜프리트를 쥐여 주고는 지도원을 향하여

「최동무는 동수 동무의 학습을 적극 협조하여 주고、그리고 그 정형을 나에게 알려 주시오、나는 사장 동무에게 보고 하겠소」

라고 말한 다음 다시 동수를 보며

「그렇게 할 수 있지?」

하고 물었다。그런데 동수는 어떻게 대답하였으면 좋을지 몰랐다。무거운 짐이 어깨를 내려 누르는 듯한 책임감을 처음으로 느꼈다。그는 두툼한 손등으로 얼굴에 흐르는 땀을 씻으며

「글쎄 이런 책을 내가 어떻게 보고 토론을 해야한다구 하니 참」

그의 웃음띤 얼굴에는 난처한 표정이 가득 찼다。

「노력하여 안되는 일이 없는 법이오。동무가 처음 전투에 참가했을 때는 총도 제대루 쏘질 못했구 겁이 나서 어쩔줄을 몰랐지、그러나 지금은 중대의 명포수요。어느전투 총화에서나 사장동무의 칭찬을 받는 용감한 대원이 되였거든。이것두 동무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지、그런데 단 한가지 결함은 정치 학습을 하지 않는것이구 당원이 되기위한 노력이 부족한거야……잠 잘 생각보다 책볼 생각을 더 많이 한다면 동무는 문제없이 학습에도 우수한 사람이 된다니」

사부 조직과장은 오래간만에 보는듯 동수의 이글거리는 눈을 바라보고 이렇게 빙긋이 웃으며 말하였다。

이날 저녁때부터 중대 지도원 최동무는 동수의 소대에서 중대 정치 지도사업을 하였으며 짬만있으면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학습을 방조하여 주었다。

그러나 잠꾸레기로 이름난 동수는 짬만 있으면 잠을 잤다。 종이가 없을 때면 학습장을 뜯어서 담배를 말아피웠다。

그런데다가 가을부터 적들의 소위 토벌이 심해지자 이와 함께 그의 학습도 중지되고 매일과 같이 행군과 전투가 벌어졌다。 행군중의 휴식시에나 하루 밤 로숙을 할때에도 다른 대원들과 같이 수첩을 들고 학습 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 이야기와 잡담 뿐이고 학습에 대하여서는 꿈도 꾸지 않았다。 지도원 최동무가 수첩을 끄내들고 물어보면 이미 알고 있던 글자와 술어도 벌써 잊어버리고 대답을 못하였다。 이리하여 지도원 최동무는 방법을 달리 하였다。

그가 잠만자고 학습을 게을리하는 데 대하여 놀려대고 짜증만 낼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의 학습을 높여주기 위하여 동지적인 우애심으로 자기의 지도 방법을 고치고 전소대가 발동하는 사업을 조직하였다。

그다음날부터 전 소대는 동수의 학습을 방조하였다。 행군하면서도 그의 학

습 제고를 위한 이야기를 하며 걸었고 밀영지(유격대의 병영이 있는 근거지)에 도착한 후에는 학습용지를 절약하여 동수에게 제공하였다.

첫눈이 내린 어느날 아침이였다. 소대장 강 동무는

동수를 보고 희죽이 웃으며

「동수! 고집 부릴 생각은 그만두고 어서가서 동무들과 같이 학습하래두 잠꾸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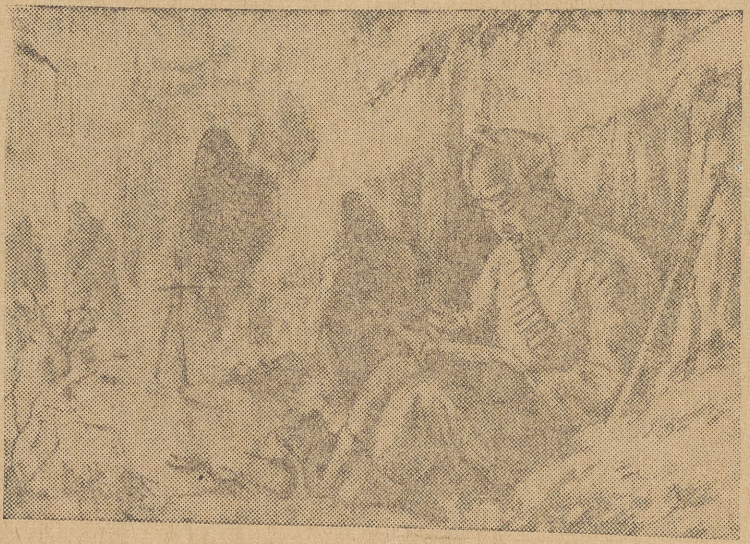
동수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한 소대장은 자기 품속에서 만년필을 끄집어내여 그의 손에 쥐여주고는 고정보초가 있는 샘터쪽 고지를 향해 걸어갔다.

동수는 멍하니 그자리에 서 있었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만년필을 손에 쥐고 남쪽 고지로 향해 걸어가는 소대장의 뒷 모습을 한참동안 바라보다가 만년필을 보았다.

일생 처음으로 손에 쥐여보는 만년필이였다. 이와 함께 눈시울이 뜨거워지드니 가슴이 미여지는듯 하였다. 그는 그자리에 주저 앉아 지난날의 자기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하였다. 지금까지 지도원이나 동무들이 자기의 학습을 위하여 짬만 있으면 도와 주었다는 것을 잘알고 있었다.

그러나 소대장이 가장 귀중히 여기던 만년필을 자기에게 준다는 것은 뜻밖에 일이였다. 물론 피로써 맹세한 전우기 때문에 그보다 더 귀중한 것도 주고 받을 수 있지만은 자기의 학습을 위하여 그처럼 자기에게 대하는 소대장의 마음을 괴롭게한 자기의 어리석은 태도를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였다.



사장동무로 부터 만년필을 표창 받은 그날로부터 소대장은 가장 귀중한 보물과 같이 만년필을 사랑하였고 자기의 생명과 같이 보관하는 무기와 함께 그의 가슴에서 떠나본적이 없던 만년필이였다.

본시 김 동수 동무는 그가 二〇세 나던해인 一九三四년 봄, 왕청에서 유격대에 입대한 동무이다. 글공부라고는 해본적이 없는 그는 유격대에 입대하면서부터 국문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나 총쏘는 것보다 까다롭고 재미도 없었다. 남과 같이 편지도 쓰고 책도 볼수 있도록 글을 배우고 싶은 생각은 있었으나 험한 숲속으로 다니며 밤과 낮을 이어 행군과 전투가 계속되는 유격 생활에서 학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는 선전대원들과 함께 춤도 추기를 좋아 했고 농부가를 한곡조 멋드러지게 부르기도 했으며 왜놈을 처부시던 전투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것을 제일 좋아 했다. 一년이 지나고 二년이 지나던 一九三五년 말부터는 우수한 전투원으로 어느 전투에서던지 남못지않게 싸웠고 四년이 지난 지금은 부대에서도 손곱는 명사격수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정치 학습에만은 락후하였다. 동무들이 주고받는 말과 학습회에 참가하여 왜? 유격 투쟁을 하는지, 공산당이란 무엇이고 제국주의란 무엇인지 잘 알고는 있었으나 리론적으로 따지고 들면 대답을 못했다. 조국 광복회 一〇대 강령의 노래를 위시

한 혁명가들도 잘 부를 줄 알았다.

그러나 그 노래의 가사 내용을 따지고 들면 이것도 확답할 수 없는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공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같은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면서 동무들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혁명의 리익과 조국 광복을 위한 유격 활동에 지장을 주게한 옳지 못한 개인 행동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였다.

잠시후 동수 동무는 소대장 강동무를 찾아가서 만년필을 내놓으며 전투에서 만 아니라 학습에도 충실한 대원이 될것을 맹세하였고 우등불 주위에 모여앉아 학습하고 있는 전우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잘못을 자비하면서 군정 학습에 열성을 다하겠다고 굳게 약속하였다.

소대원들은 그의 결의를 축하하여 동수 동무를 떠받들고 우등불 주위를 돌며 혁명가를 합창하고 춤을 추었다.

백두산 기슭의 깊은 숲속에서 추위도 잊어버린듯 그들의 새로운 결의와 사랑이 우등불과 같이 활활 피여 올랐다.

저녁 식사후 동수는 소대장과 지도원 최 동무와 함께 조직 과장을 찾아가서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보고하였다.

× ×

새로운 결의로 학습하기 시작한 동수 동무의 학습 태도는 참으로 진지하고 꾸준하였다. 잠꾸레기라고 불리우는 불명예스러운 그의 별명은 없어지고 학습에 꾸준한 동수 동무의 모범을 본받자라는 벽보가 각 병영에 나붙었다.

一〇월부터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추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다. 그러나 그는 짬만 있으면 학습에 노력하였다. 동무들이 자기에게 준 학습장과 수첩에는 언제나 참고될 수 있는 리론적인 문제와 술어들을 기입하고 노래도 적었다.

그리고 한개 문제를 완전히 기억하며 글쓰기를 련습하기 위하여 봇나무 껍질로 책을 매여 글을 썼다. 행군하던 도중 소휴식이 있을 때에도 그는 모래판에다 글쓰는 것과 같이 눈 우에다가 글을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지우군 하였다.

이렇게 그는 학습에만 치우쳐 열성을 다한 것은 아니였다. 정치 학습과 함께 무기를 정통하는 데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一九三七년 一一월 초순 소사하 전투에서 로획한 무기중에 조성과 조문이 파괴된 새로운 총이 있었다. 그는 이를 동안이나 행군하면서 조문과 조성을 창안하여 결합시키였으며 그 총의 성능과 구조를 알기 위하여 손 끝이 어는줄도 모르고 일곱번이나 분해하여 보고 완전히 총의 구조 성능을 습득하였다.

이와 같은 꾸준한 그의 노력은 군정 학습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 왔다.

그는 사부 조직 과장에게서 받은 책의 내용을 자기 수첩에 복사하는 것을 一二월 중순에야 완전히 끝냈다.

그동안 그는 우등불 앞에서 또는 행군하는 도중의 휴식에서 한자한자 정성들여 기록하였던 것이다. 실로 우등불 앞에서 글을 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였다. 그리고 량식이 없어 이틀, 사흘 굶을 때면 그는 수첩을 보고 또 보았으며 글쓰는 것으로 굶주림을 참았다.

이렇게 그는 학습하였다. 그렇게도 잠꾸레기로 짬만 있으면 잠을 잤고 우등불에 모자가 타는 줄도 모르고 자던 그에게서 언제 내가 잠을 잤느냐?는듯이 밤을 밝혀 공부하다가 당번에게 주의 받은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다.

적들의 동기 토벌 작전도 섬멸적인 패배로 끝났고 유격 부대는 一九三八년 승리의 새해를 맞이 하였다. 약 一개월간 휴식한후 三월초순 동수 동무가 속한 부대에서는 학습 총화가 있었다.

이 학습 총화에서 동수 동무의 토론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대원들

과의 개별적인 토론은 수차 있었으나 많은 군중들 앞에서 토론을 하여 보기는 처음이였다。물론 그가 학습 때문에 군중들 앞에서 비판을 받은 것은 한 두번이 아니였으나 리론적인 학습토론을 하여 보기는 난생 처음이였다。

그런 관계로 자기가 하려고 하던 말이 잘 생각나지 않았고 자기 토론의 결론을 짓는데 있어서도 틀리지는 않았으나 중복되였으며 리론적으로 미약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잠꾸레기 김 동수가 국문을 해득하고 이렇게까지 발전되였다는데 대하여 사부 조직 과장은 높이 평가하고 그의 학습에 대한 노력을 모범 받아야 한다고 토론하였다。

회의가 끝난 다음 사부 조직 과장은

「훌륭하게 약속을 실행하였소、앞으로 우수한 일군이 될 수 있소。계속 노력하시오、동수 동무、참으로 반갑소」

하며 동수를 부둥켜 안으며 그의 학습 노력을 찬사하였고 격려하여 주었다。

三월 중순부터는 행군이 시작되였고 四월부터는 적들의 성시와 부락을 진공하는 전투가 매일과 같이 계속되였다。

지금까지 전투에서 적을 잡기에만 용감성을 발휘하던 그는 유격 전술을 연구하게 되였고 전투 총화에서는 군사、정치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발전하였다。

四월에 들어서면서 장백현 一二도구를 위시하여 림강현 六도구 쌍산자(双山子)를 계속 공격하였고 五월초에는 가가영 집단 부락을 공격하는 전투가 있었다。

이 전투에서 동수 동무는 전우 리 동무를 잃었다。

쌍산자에서 적의 추격 부대를 섬멸하고 빙허구 맞은편 산에서 四일간 휴식한 유격 부대는 가가영 부락을 진공한 것은 오후 열시가 넘은 밤이였다。유격대원들은 토성우에 있는 철조망을 끊고 일시에 성내로 진공하여 들어갔다。

이에 당황한 적들은 포대와 경찰서의 담벽에서 눈먼 총질을 하며 일시 대항하려고 하였으나 남문 포대를 제외한 세개 포대와 경찰서의 적들은 겁에 질려 투항하였다。그러나 악질 경장 채옥춘이란 놈이 담당한 남문 포대는 계속 사격을 하여 왔다。이 전투에서 동수 동무와 함께 혁명 대오에 참가한 리 동무가 적탄을 맞고 넘어졌다。이에 격분한 대원들은 함화 공작을 중지하고 돌격으로 남문 포대를 점령하고 전부락을 완전히 장악하였다。리 동무의 상처는 하복부의 관통상으로 소생하기 어려운 중상이였다。

적들을 처단하고 군수 물자를 로획한 유격대들은 인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동틀 무렵 부락을 떠났다。가가영 부락의 동문을 나와 수동구(水洞溝) 골안을 지나 고지에 올라섰을 때 담가에 누어오던 리동무가

「내 배낭이 어데 있어 내 배낭이……」

하며 간신히 말하였다。담가대의 앞에서 주력 부대의 행로를 방향 잡아 보며 걸어가던 조 동무는 지고가던 리 동무의 배낭을 벗어 그의 앞에 가져갔다。

그는 자기 배낭의 멜끈을 쥐고 한참동안、가쁜 숨을 쉬드니 간신히 눈을 뜨고

「배낭 속에 있는 책과 수첩을 동수에게……」

하며 동수의 얼굴을 보고는 다시 눈을 감고 숨을 돌리려고 하였으나 그의 숨은 영영 끊어지고 눈은 다시 뜨지 못했다。친애하는 전우를 이름도 알 수 없는 고지에 매장하는 전우들의 마음은 칼로 쑤시는듯 하였다。더구나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운명한 리동무를 생각할 때 동수의 발길은 무덤 앞에서 떨어 지지를 않았다。

전투는 계속되였다。장백과 림강을 위시한 국경 연선에 집결한 적들을 계속 섬멸하며 승리의 행군은 밤과 낮을 이어 계속되였다。

이와 함께 학습은 나의 생명이라고 기록한 사랑하는 전우의 수첩을 가슴에 간직하고 대오의 선두에서 행군하고 있는 동수 동무는 매전투마다에서

(二七페지로 계속)

지상 토론

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을 계속 완강하게 전개하자!

편집부는 금년 七월호부터 시작한 지상 토론 『낡은 사상 잔재란 무엇이며 그것은 우리 혁명에 어떤 해독을 주는가?』를 종결하려 한다。토론 과정은 로동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회의 문헌을 학습하면서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토론 참가자들은 우리들의 생활과 사업의 각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낡은 사상 잔재의 각종 형태와 그것이 우리 혁명에 주는 해독을 정확하게 지적하였다。그 중에서도 많은 독자들은 이 자기 토론의 중심 문제로 로동과 국가 및 사회적 소유에 대한 낡은 태도에 대해서 토론한 것은 옳은 것이였다。왜냐하면 우리들의 생활과 사업 중에서 낡은 사상 잔재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방면이며 따라서 로동과 소유에 대한 낡은 태도가 우리의 혁명에 주는 해독도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일찌기 위대한 쓰딸린은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낡은 사회로부터 물려 받은 낡은 관습과 습성、전통과 편견은 사회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이다。…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 및 관습과의 투쟁、우리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의 이것의 의무적인 극복、그리고 끝으로 프로레타리아적 사회주의의 정신으로의 새 세대들의 교양은 그것을 실시함이 없이는 사회주의의 승리가 불가능한 그러한 우리 당의 당면 과업인 것이다』。우리는 쓰딸린의 이 교시를 깊이 명심하고 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을 우리 혁명 승리를 위한 날카로운 계급 투쟁으로 완강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광범한 토론의 결과 낡은 사상 잔재의 각종 표현 형태들이 신랄하게 적발 폭로되였으며 그의 해독을 인식한 이상 우리의 결론은 응당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돌려져야 하리라고 생각된다。일제、봉건 및 자본주의 사상 잔재와의 투쟁은 그의 온갖 표현을 폭로 비판하는 투쟁과 새로운 사회주의 사상을 교양하는 두 방면이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에서 우리의 수중에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판과 자기 비판이다。일체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들을 예리하게 적발 폭로하며 매일 자기 사업과 생활을 검토하여 결점과 부족점을 찾아내여 교훈으로 삼으며 동지들의 비판을 허심하게 접수하여 자기를 심중하게 살피며

한결음 한결음 자체의 혁명 의식을 높이는 그러한 비판과 자기 비판이 없이는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할 수 없다. 그런데 토론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일부 민청원들 속에서는 비판과 자기 비판이 없거나, 혹은 불성실한 례가 적지 않다. 벽성군 소비 조합 제二 상점의 부기원 황 순영은 상점 책임자의 탐오, 랑비 행위를 융화 묵과하여 결국은 그의 범죄 행위를 방조하여 준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른 실례로, 강선 제강소 부기원 김 용선은 자기의 탐오 행위를 솔직하게 자백하지 않았다가 검열이 있은 후에야 자기 죄행을 시인하는 민청원 답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 일부 토론자들은 말하기를 누구누구는 동무들의 비판을 접수할 대신에 비판에 대하여 반발하였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여기서 비판이 성실치 않고 비속하게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동무의 결점을 고쳐 주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비판과 자기 비판이 항상 원칙적이며 성실한 것이 되여야 하며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동지애가 충만한 그런 교양의 수단이 되게 하여야 한다.

둘째로,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자체 교양에 부단히 노력하여 새로운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의 기본과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책을 참답게 학습하여 선진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특히 새로운 인민적 도덕 품성과 건전한 생활 양식을 확립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서적을 애독하며 군중 문화 예술 활동에 적극 참가하는 등 자체의 문화 수준을 높이며, 특히 로동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문헌들을 계속 심오하게 학습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학습에 있어서 정확한 태도와 방법을 가져야 하는바 그것은 리론과 실천을 옳게 결부하는 방법이다. 실천을 떠난 학습은 공허한 말공부에 불과하며 독경쟁이를 만들 뿐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로력은 교양의 기본이다. 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은 곧 사상 개조 운동인바 사상 개조의 기본 방법은 로력이다. 그러므로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집단적 로력 중에서 난관과의 투쟁을 통하여 낡은 사상을 청산하며 새로운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해야 한다.

토론에 참가한 독자들이 인정한 바와 같이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은 일조 일석에 끝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새로 형성 발전하는 사회주의 사상에 비하여 낡은 일제, 봉건 및 자본주의 사상은 그 력사가 오래여 뿌리 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 아직 남아 있는 소상품 및 자본주의 경리는 부단히 자본주의 사상을 낳고 있으며 공화국 남반부를 강점한 미제 침략 세력과 리 승만 도배들은 반동 사상을 침습하기에 발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은 장기적이며 복잡한 투쟁임을 잘 인식하고 완강하며 계통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전 인민적 사상 개조 운동의 강령적 지침을 제시한 로동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결정 실천이 바로 이와 같은 완강성과 장기성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들 속에서의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의 초소에는 민청 단체들이 나서야 한다. 민청 집단의 여론과 그의 힘은 청년들의 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논다. 그런즉 민청 집단은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그곳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 배우고 돕고 성실한 비판을 전개하며 교양하는 청년들의 혈연적 가정이 되며 참다운 학교가 되여야 한다.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회와 민청 초급 단체

함남도 고원군 남흥리 합탄 농업 협동 조합
민청 분초급 단체 위원장 한 기 홍

우리 합탄 농업 협동 조합은 작년 정월에 조직되였다. 그간 우리 조합은 조직 경제적으로 장성 강화되였으며 조합원들의 생활 수준은 개인 경리 때보다 훨씬 높아졌다. 이는 당과 정부의 농촌 경리 발전에 대한 두터운 배려와 농업 협동 경리의 우월성을 옳게 인식한 조합내 농민들과 청년들의 힘찬 로력의 결과이다.

조합 경리의 발전에 있어서 민청 단체의 역할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농업 협동 조합의 실정만 보더라도 전체 조합원수의 四〇% 이상이 민청원들이다. 우리 민청 분초급 단체 위원회는 지난 기간 조합내 당 단체의 지도하에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회 사업을 적극 방조하며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역할을 제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우리는 협동 경리 체계에 적응하도록 민청 조직을 개편하였다

농업 협동 조합내에서 민청 단체들의 조직적 기능을 원만히 발휘하게 하려면 협동 경리 체계에 적응하게 초급 민청 단체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작년 정월에 우리 마을의 전체 五九호의 농가 중에서 二一호의 농가 만이 자원하여 농업 협동 조합에 망라되였다. 이에 따라서 민청 분초급 단체내 민청원들 속에는 농업 협동 경리에 참가하는 민청원들과 개인 경리 생활을 계속하는 민청원들이 있게 되였다. 민청 분초급 단체 위원회 앞에는 이 두 부분에서 일하는 민청원들의 각이한 생활 처지와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하여야만 되였다. 그러나 민청 분초급 단체 위원회는 지난해 이와 같이 민청원들의 생활에서 변화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하였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였다. 물론 민청 분초급 단체 위원회는 새로 조직된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회 사업을 적극 방조하며 조합내 민청원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주의를 돌리면서 한편 개인 농민 청년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관심하노라고는 하였지만 실제상 어느 한 부분이라도 구체적인 지도와 방조를 줄 수 없었다.

바로 이상과 같은 사실은 우리 민청 분초급 단체 위원회가 자기 사업을 옳게 하지 못한데도 있었지만 농업 협동 조합이 조직된 후 민청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지 못한 때문이였다.

그러나 지난 三월 초순 우리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농촌 지역에서의 초급 민청 단체들의 조직 개편에 대한 민청 중앙 위원회의 지시에 근거하여 민청 분 초급 단체를 농업 협동 조합 단위로 되게 개편하였다。그 후부터 농업 협동 조합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 사업은 민청 조직이 개편되기 전과 같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는 않았다。 그것은 그 후 사업을 진행하는 행정에서 실증되였는바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으며 특히 당과 정부의 정책을 더욱 계통적으로 민속하게 침투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초급 단체 조직만 이렇게 개편하고 민청반은 농업 협동 경리 체계에 적응하도록 개편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결과에 민청반 사업은 복잡하여 지고 반장들은 자기의 반원들을 옳게 통솔할 수 없었다。 그것은 분 초급 단체내 민청원들이 두개의 고정 작업반에서 일하고 있고 민청반은 지역별로 조직되여 있기 때문이였다。이러한 실정은 민청반을 작업반 단위로 조직하여야만 되였다。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지역별로 조직되였던 三개의 민청반을 협동 조합 작업반 단위로 개편하였다。 민청반을 이렇게 작업반 단위로 조직 개편함으로써 작업반 내에서 민청원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 수 있었는바 특히 증산 경쟁 운동이 작업반 단위로 조직된 조건하에서 그들의 경쟁 의욕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우리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민청 반장들을 주로 중간 『련락원』의 임무를 하게 한 지난날의 결함을 퇴치하고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와 총회 결정 실행을 중심으로 자기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들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도와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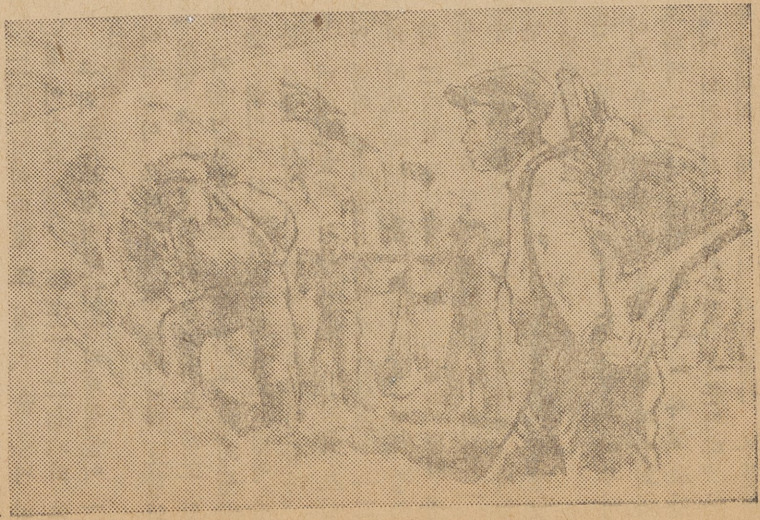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회와의 련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경험이 뵈여 준 바와 같이 만일 조합내 민청 단체가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회와의 긴밀한 련계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방조할 수 없으며 조합내에서 민청원들의 조직적 활동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기간 우리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회와의 련계에서 두가지의 결함들이 있었다。 그의 하나는 조합 관리 위원회와의 일상적 련계가 미약하였던 사실이다。 그것은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가 조합내 민청원들의 생활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 그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애로 조건과 창의 창발성들을 제때에 포착하여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회에 제기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일상적으로 진행할 대신에 주로 조합내 민청원들을 군적으로 전개되는 건설장과 관개 공사장 등에 동원시킨다던가 분 초급 단체 열성자들을 군 민청 회의에 참가시킨다던가 하는 때만 관리 위원회와의 련계를 가졌다。 또 다른 하나의 결함은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가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회 사업을 방조함에 있어서 창조적 역할이 부족하였다。 창조적 역할이 부족하게 된 것은 주로 농업 협동 조합이 생긴 후 민청 사업은 쉽게 되였다고 하면서 자기 사업을 안일하게 진행하며 조합 관리 위원회 앞에 제기된 과업을 기계적으로 민청원들에게 전달한데서 표현되였다。즉 『민청원이자 조합원이고 조합원이자 민청원인데 관리 위원회에서 토의한 문제들을 민청에서 또 다시 취급할 필요가 있겠는가?』 고 하면서 모든 농산 사업에 대한 문제들을 관리 위원회나 조합원 총회에서 토의하였다 하여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아무러한 대책도 세우지 않는 일이 때때로 있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지난 춘기 파종 시기와 이앙 제초 시기에 그러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들은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가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회의 적극적 방조자로 될 대신에 그의 뒤꼬리를 따르게 되며 자기의 창조적 역할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을 그후의 경험은 뵈여 주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에서는 관리 위원회나 조합원 총회에서 토의한 문

제들을 하나도 빼 놓치 않고 다 취급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조합내 당 단체의 지도하에 민청원들에 대한 집단주의 사상 교양에 항상 깊은 주의를 돌리면서 농산 사업에서 민청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놀아야 할 문제를 가지고 민청 총회를 진행하며 그 외 문제들은 수시로 분 초급 단체 위원회에서 토의한다던가 일상적인 지도를 통하여 협동 조합 관리 위원회 사업을 방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가 지난 기간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회 사업을 방조함에 있어서 기계적인 활동을 놓았다는 사실은 또 무엇으로써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회 앞에 제기된 과업을 민청원들의 특성에 맞게 자기 사업을 창발적으로 조직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미 조합 관리 위원회나 총회에서 토의한 내용들을 반복하여 전달하거나 막연하게 『매개 민청원들은……사업에서 출근률을 一○○%로 높이자』、『조합원들의 선두에서 작업 능률을 一五○% 이상으로 제고하자』 등의 결정을 채택한 사실이 적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가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회와의 사업에서 이상과 같은 결함들을 낳게한 원인은 어데 있었는가? 그것은 첫째로、농업 협동 조합 관리 운영에 대한 지식을 잘 알지 못한 데 있었으며、둘째로는 농업 협동 조합내 민청 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데 있었다。 사실에 있어서 우리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기간 조합의 규약을 비롯한 조합의 내부 질서 규정、그리고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회 운영 방법、그리고 매시기 조합 관리 위원회 앞에 제기된 과업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사업하였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였다。 때문에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자기 사업 조직에서 구체성이 부족하고 창발성 있게 사업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체험한 우리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매개 위원들이 협동 조합 관리 운영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매개 위원들에게 분공하였는바 나는 조합 규약과 매시기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회 앞에 제기되는 과업을 연구할 것을 말고 부 위원장 조성구에게는 조합 내부 질서 규정、부위원장 윤복녀와 위원 최 충렬에게는 조합 관리 위원회와 검사 위원회의 임무와 역할、그리고 위원 배 영수에게는 각종 출판물을 통하여 농업 협동 조합에 대한 지식을 일상적으로 연구할 것을 각각 위임하였다。 그리하여 매개 위원들이 충분히 연구한 기초 우에서 위원들 호상간에 토론하였으며 조합내 민청원들의 참가하에 발표하는 사업도 월 二회씩 작업의 휴식 시간을 리용하여 진행하였다。 그 외도 조합 관리 일군들을 초빙하여 조합 관리 운영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모임도 때때로 가지였다。 조합 관리 운영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한 우리 분 초급 단체 위원회의 이와 같은 부단한 노력은 조합 관리 위원



회 사업을 실질적으로 방조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우리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회와의 련계가 미약하였던 지난 날의 결함도 시정하였다。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가 초보적이나마 농업 협동 경리에 대한 지식을 소유함으로써 자기 사업에 대한 자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매월 사업 계획을 수립할적에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회와의 협의를 가지고 있다。 이는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가 자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나 관리 위원회 사업을 방조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지난날에는 이와 같은 련계가 없었기 때문에 호상 간의 회의 날자가 같은 날로 계획되며 관리 위원회 앞에 제기된 과업 실행 조직이 통일성을 띠지 못하고 서로 상이하게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았다。 다음으로 우리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 위원들은 관리 위원회에서 조직하는 조합원 총회와 관리 위원회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조합내 민청원들의 창발적 의견과 애로 조건들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토의된 문제들을 민청의 일상적인 정치 조직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성과 있게 집행되도록 방조하고 있으며 이와 반면에 민청에서 조직하는 위원회와 총회에 협동 조합 관리 일군들을 참가시켜 방조를 받고 있다。

민청원들을 조합의 믿음직한 주인이 되도록

우리 분 초급 단체 민청원들은 조합원들 속에서 신망이 높으며 『청년들이 일을 잘한다』는 로인들의 칭찬을 늘 받고 있다。 민청원들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와 같은 신망과 칭찬은 그들 자신들의 힘찬 로력 투쟁과 창조적 열성에서 얻어진 댓가이다。 협동 경리의 새 생활의 二년간에 조합내 민청원들은 집단적 협동 로동에 주인 답게 참가하였으며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의 선두에서 일함으로써 조합의 조직, 경제적 공고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지난해 우리 분 초급 단체 민청원들은 많은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면서 곡물의 평균 수확고를 훨씬 높이는데 큰 역할을 놀았을 뿐만 아니라 올해에 들어 와서도 그와 같은 로력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였다。 그것은 조합내 민청원들의 로력 일수가 여실히 말하여 주고 있다。 조합내에서 최고의 로력 일수는 모두 민청원들이 쟁취한 것이다。 일반 조합원의 최고 로력 일수가 二四三일이라면 조 성구、 윤 복녀 민청원들은 이 보다 三〇일 이상을 앞서 二七二—二七六의 로력 일수를 수득하였다。 그 외도 조합내 전반적 민청원들이 二〇〇일 이상을 수득하였다。

조합내 민청원들은 이와 같이 로력에서 뿐만 아니라 조합의 조직 경제적 공고화를 위한 창의 창발성의 제창자로 되고 있다。 지난 二월 추운 겨울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청원들은 조합의 부업 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앞 개울로 뱅어 잡이에 나갈 것을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에 제의하여 왔다。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민청원들의 이와 같은 발기를 조합 관리 위원회에 제의하여 뱅어 잡이를 시작하게 하였다。 一二명의 민청원들은 三개의 어로 작업반을 조직하고 뱅어 잡이에 나갔다。 이리하여 약 二개월 동안에 거친 그들의 뱅어 잡이의 결과에 二〇여만원의 수입을 얻게 되였다。 이 외도 一、三〇〇메터의 수로 보수 작업、 우차의 보관 관리에서 책임제도를 실시할 데 대한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민청원들의 창발성에 의하여 진행되였다。

민청원들의 이와 같은 로력 투쟁과 창발성은 저절로 이루어진 성과는 아니다。 이는 우리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가 조합내 당 단체의 지도하에 그들에 대한 집단주의 사상 교양과 그들의 창조적 열성에 의거하여 사업하였기 때문이다。 사실에 있어서 농업 협동 경리의 새 생활이 시작되자 부분적

민청원들은 집단 로동에서 자기의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여 되는대로 일하며 일을 될수 있는대로 쉽게 하고 로력 점수만 많이 만들려는 경향들이 나타났던 것이다。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이와 같은 실정에 비추어 민청원들 속에서 농업 협동 경리의 우월성과 집단 로동에 주인 답게 참가하도록 교양하였다。 우리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그들을 교양함에 있어서 단순히 학습회만으로써 국한시키지 않았다。 전야 작업에서 신문을 통한 정치 선동 사업、 영화 감상、 좌담회、 작업반 단위로 되는 체육 오락회、 작업반 대항 체육 경기회 등 다채로운 사업들을 통하여 집단주의 사상으로 일관되도록 그들을 교양하면서 자기 조합에 대한 사랑은 곧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된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민청원들이 조합 규약을 엄격히 준수하며 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사하도록 그들을 가르쳐 주었다。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민청원들에게 조합 규약을 해설해 줌에 있어서 조합 규약의 위반은 곧 민청 규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와 같이 교양함으로써 부분적 민청원들이 조합 규약을 위반해도 민청 규률과는 상관이 없다거나 저촉되지 않는다는 그릇된 경향을 시정하게 하였다。 특히 조합 규약을 해석해 줌에 있어서 현지 실정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는 것은 더욱 효과적이였다。 이와같이 민청원들에 대한 집단주의 사상 교양과 함께 조합 규약을 부단히 해설해 줌으로써 조합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였으며 조합내에서 민주주의를 더욱 발양케 하였다。 그것은 지난날 까지 일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는 주인답지 못한 민청원들이 다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조합 관리 위원회가 일을 잘 하는가 못하는 가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고 조합 규약과 위반되는 경향들에 대하여 엄격히 비판하고 있다。 얼마전에 있었던 조합원 총회에서도 민청원 한 기철 동무는 제一 작업 반장이 장 봉자 동무에 대한 작업 평가를 옳게 하지 못하고 지나 치게 로력 점수를 많이 주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빈번하기 때문에 작업 반원들의 열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분 초급 단체내 민청원들은 조합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기의 활동을 하고 있다。

민청원들을 증산 경쟁 운동의 선구자가 되도록

농업 협동 조합의 생산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증산 경쟁 운동에서 민청 단체와 민청원들의 역할은 크다。 우리 조합에는 모두 두개의 작업반이 있는데 이 두개의 작업반은 금년도 년초에 호상 경쟁이 체결되였다。 우리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증산 경쟁 운동에 민청원들의 적극적 참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선 그들에게 자기가 속해 있는 작업반의 경쟁 의무 조항—매개 작업반에서 금년도에 생산하여야 할 총 수확고、 이를 위하여 소요되는 총 로력수、 계절별 작업 계획과 작업 정량、 국가 기술 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알도록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경험은 이와 같이 경쟁 의무 조항을 민청원들 속에 침투시키는 것으로만은 민청원들의 역할을 높일 수 없다。 여기는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의 구체적 사업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경쟁 의무 조항에 포함되여 있는 국가 기술 지표를 옳게 실행하도록 영농 기술 써클을 조직하고 민청원들이 제반 영농 기술을 배우며 적용하는데 솔선 모

범이 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증산 경쟁 운동에서 민청원들의 역할을 높이자면 매계절에 따라 작업반내 민청원들의 력량을 집중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다。 그것은 지난 여름 모내기와 자급 비료 증산을 위한 풀베기 경쟁에서 실증되였다。 모내기 경쟁 때 각 작업반에서는 작업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로인들은 주로 모뜨기에 돌리고 민청원들의 력량을 집중적으로 모 심기에 돌리여 그들 호상간에 경쟁을 체결함으로써 작업 능률을 현저히 제고하였다。 이와 함께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이동 게시판 二개를 만들어 경쟁 운동에서 나타난 우 단점들을 제때에 속보하는 사업도 전개하였다。

그러나 증산 경쟁 운동에서 나타난 결함은 경쟁을 체결하는데만 급급하고 그의 진행 정형에 대하여 제때에 총화하고 옳게 평가하는 사업들을 잘 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우리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증산 경쟁 운동에서 얻은 이상과 같은 경험에 기초하여 앞으로 증산 경쟁 운동에서의 민청원들의 역할 제고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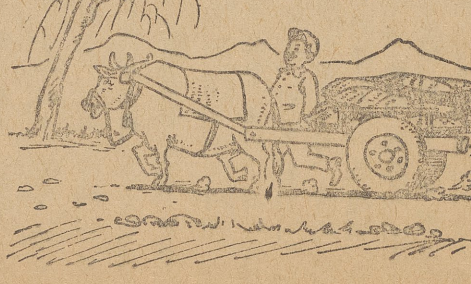
우리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농업 협동조합 관리 위원회 사업을 방조하며 조합내 민청원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초보적인 성과와 경험을 얻었다。 때문에 우리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지난 날의 경험에 기초하여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회 사업을 더욱 적극 방조하며 조합내 민청원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우리들의 사상생활

두 소는 말한다

우리 주인 참 좋아
정성들여 먹여 주고
추울세라 덮어 주지
짐 실을 땐 힘에 맞게
그리고도 마음 못놔
곁을 가며 부축하지。





우리 젊은 조합원은 웬 셈인지
먹을 것은 적게 주고
짐은 못대고 많이 싣고
그리고도 마음 못차
짐꼭대기 올라 타고
몽치질만 일삼으니—
나이는 젊었서도
사상만은 낡았다네。—



랑만성의 수첩

김 영 기

친애하는 독자들이여!

우리가 『청년 생활』 九호에서 『랑만성은 어데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을 독자들은 기억하고 있으리라。 그때 우리는 민청 사업에서의 랑만성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땅에서 솟아 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조국의 위대한 현실 속에 사는 청년들의 심장 속에、그들의 생활 속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 민청 사업의 랑만성이란 다름 아니라 이 청년들의 심장 속에、생활 속에 있는 랑만의 불씨를 찾아내고 젊은 심장들에 불을 부쳐 주는 거기에 있다는 것도 이야기 하였다。

그때로부터 三개월이 지났다。

지난 三개월 동안 기자는 랑만에 끓어 넘치는 청년들의 생활을 찾아 많은 곳을 다녔다。 가는 곳마다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의 토막 토막을 기자는 잊지 않고 수첩에 기록하였다。 기자는 이 수첩 표지에다 『랑만성의 수첩』이라는 제자를 부쳤다。

이 수첩에는 민청 일군의 심장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민청원들의 심장에 불을 부쳐 타번지는 랑만의 불꽃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더러는 심장이 얼음처럼 식어 감격할 줄 모르는 민청 일군의 모습도 보이며 『위신』의 낡은 보재기에 싸여 녹쓸고 있는 민청 일군들의 이야기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수첩의 몇장을 번져 보기로 하자!

× ×

수첩의 첫 페지에는 함남 오로군 성천강 관개 하천 공사장의 이야기가 씌여 있다。

독자들은 관개 하천 공사에서 달성한 로력 성과로 하여 민청 중앙 위원회의 축전을 받은 몇개 시、군 민청 위원회들 가운데 오로군 민청 위원회의 이름이 씌여 있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으리라。

당 중앙 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이번 가을부터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된 각지의 관개 하천 공사장 마다에서 청년들이 발휘한 로력 위훈은 찬란히 빛나고 있다。

강을 막아 돌리고 새로운 물줄기를 파고 동뚝을 쌓아 자연을 개조하는 이 거대한 사업——해마다 가물 때면 논바닥이 터져 어린 볏모를 태워 죽이고 장마철이 들면 동뚝을 미리 곡식을 복사로 덮어치우던 자연의 폭군을 정복하는 투쟁의 보람——그리고 명년 봄이면 재해를 모르는 새땅에 벼포기를 옮겨 가꾸고 가을이면 황금 이삭의 파도가 물결치게 할 즐거운 전망——이것을 위하여 공사장에 나선 청년들의 가슴마다에 뜨거운 정열의 불씨를 안겨 주었던 것이다。

이제 오로군 공사장으로 가보자!

오로군 앞에 얼마나 큰 과업이 제기



되였으며 군 민청은 어떤 사업을 조직했던가? 그들 앞에는 흑림천 제방、성천강 제방 관개 용수로、기상리、중리、상중리 등 五개 공사장에서 제방 연 八、九五〇메터에 석재 기타 총공사에 一〇七、五六五명의 로력이 요구되였다。 이렇게 하면 二二三정보의 옥토가 보호되며 一五、〇〇〇정보의 논에 생명수가 공급될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一〇월 二一일부터 一〇월 三〇일까지 제一계단、一一월 一〇일까지 제二계단 총 공사를 완료하자는 것이였다。 이것은 행정이 결정한 기한을 열흘 앞당기는 것이다。

군 민청이 어떤 사업을 조직했는가、회의를 하고 경쟁을 호소하고 승리의 기를 제정하고……민청 청년 돌격 운동을 조직하고: 현지에서 강연、담화와 학습을 진행하고……농악대들의 경연도、『청년의 밤』도、시 랑송회도、영화 감상도、유선 방송도……말하자면 주밀한 사업을 조직했다。

그러나 군 민청 위원회의 문서를 오래 들추지는 말자、왜냐 하면 랑만은 회의와 결정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청원들의 생활 속에 있는데 민청원들은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다섯개 현장을 다 갈 필요도 없이 성천강 공사장으로 가보자。 프랑카트 각종 깃발、속보판 등이 보기만 해도 기세가 좋은데 유선 방송에서는 흥겨운 노래가 흘러 멎지 않는다。

공사장을 자세히 보면 흙묻은 작업복에 그리 크지도 않은 몸집으로 연신 흙을 파는 젊은이가 이내 눈에 띄운다。 그가 일하는 브리가다가 더 한층 활기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누군지가 불려서 그는 또 다른 곳으로 바삐 뛰여 간다。

『전 동무! 오늘 밤엔 무슨 이야길 해 주겠나!』

『응 수고하네! 요구하는대로 다!』

『부장 동무! 래일랑 배구 시합하자요』

민청원들과의 담화는 그가 청년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때로는 서로 친밀하게 롱담도 할줄 아는 민청 일꾼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그가 바로 성천강 공구를 책임진 오로 군 민청 선전 선동 부장 전 치하이다。

첫 닷새의 작업을 총화하던 날 아침 그는 바삐 군 민청으로 가서 책을 한짐 메고 돌아 왔다。 전체 작업을 총화하는 마지막날 주게 된 상품을 다구아서 매 五일 총화때 마다 주기로 한 것이다。그것은 공사장에 책이 없어 책을 좋아 하는 민청원들이 책을 보고 싶어 하는 심정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책이야기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음날 밤에 그는『모든 것을 당에 바치여!』를 가지고 책 이야기 모임을 가졌다。 우 원뤄의 고귀한 혁명적 열정을 이야기하는 전 치하의 심장과 이야기를 듣는 민청원들의 심장이 우 원뤄의 한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고동쳤다。

그날밤 전 치하는 공사장에 나선 민청원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창조적 로력 투쟁이 영광스러운 조국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전체 인민의 공동적 투쟁의 한 부분으로 인식시키게 하였다。 민청원들은 자기들의 투쟁의 더욱 원대하고 더욱 명료한 목적을 보았다。

어느날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전 치하는 휴식짬에 처녀 민청원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얘、우리 사진이나 한장 찍어뒀으면!』

『그래、그러면 우리가 늙은 뒤라도 잊을 수 없는 감격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거야』

전 치하는 처녀들의 이야기 속에서『찌스』운동(돌격 운동이란 뜻)의 발기자들을 비롯한 혁신자들、승리한 브리가다들에게 공사장 본부 공화국기、민청기 날리는 그 밑에서의 사진 촬영을 착안한 것이다。

이 조그만 사실이 민청원들의 심장을 들끓게 하는데 도움으로 되였다。

이상은 전 치하의 사업 방법의 몇가



지 실례에 불과하다。 전 치하는 공사 전 기간을 통하여 청년들과 같이 일하며 같이 호흡하며、아니 그들보다 더 많이 일하였다! 그는 진실로 청년들의 친한 벗이였다。

오로군내 청년들이 자기들이 결정한 날자를 열흘이나 앞당겨 완수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전 치하는 바로 랑만을 찾을줄 알았고 자기 심장의 불씨를 안고 민청원들의 심장 속으로 뛰여 들어가 불을 부쳐 줄 줄 알았다。

× ×

수첩의 다음장을 펼치자! 수첩은 우리를 중앙 특수 사업소로 데리고 간다。

여기서 우리는 한 민청원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 보자。

이 사업소에는 언제나 바람 가득 안은 범선처럼 앞으로 치닫고 있으며 밝은 햇빛처럼 명랑하고 참대처럼 꿋꿋한 청년이 있다。 그의 이름은 김 석황이다。

그가 이렇게 씩씩한 청년으로 된 것은 그가 볼트 대가리 제작기 창안을 결심한 때부터이다 ― 그는 금년 五월 초급 단체 총회에서 오래 전부터 생각해오던 결심을 동무들 앞에 발표했다。

이때로부터 三개월、 그의 불꽃 튀는 투쟁이 계속되였다。 그러나 그에겐 기본 지식이 부족했다。 민청 위원회는 젊은 기사의 방조를 조직해 주었다。 김 석황은 매일 밤 이슥토록 대수 기하부터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그는 도서관에 다니며 一七권의 기술 서적을 읽었다。 그리고 작업의 짬짬을 리용하여 에야 함마의 구조를 연구하고 이 원리를 리용하여 설계도를 그려 보았다。― 二二번의 실패는 그에게 二三번 째의 성공을 갖다 주는 어머니로 되였다。

그가 창안한 볼트 대가리 제작기는 一五공수의 로력을 절약하고 七〇여만원의 리익을 국가에 주게 되였다。

김 석황의 창의 고안은 국가에 막대한 리익을 준 그것만이 귀중한 성과는 아니였다。그의 생활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는 토론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늘상 안타까웠다。『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회의 때면 이게 걱정이였다。 한번은 신문을 보고 좋은 술어들을 고르고 골라서 미리 토론을 꾸며가지고 가서 토론을 하다가 웃음꺼리가 되고 만 일까지 있었다。

그러던 그가 볼트 제작기 연구를 시작하면서『허튼 생각』이라고 비웃는 동무를 반대하여 열변을 토했다。 볼트 제작기 창안을 성공한 뒤 그는 만만한 자신을 가지고 자기의 투쟁과 창의 고안을 해설하였다。 그는 이상하게도 말하기 힘들던 것이 사라지고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확신 있게 웅변적으로 말하는 자신을 보고 놀랐다。 그는 자기 자신의 말을 찾았으며 진리는 생활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 무렵에 사업소 민청은 전원 총회에서 민청원 김 석황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우리 생활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조직하였다。 그후 사업소 민청은 민청원들의 모든 생활에 녀욱 큰 관심을 가지게 되였다。 민청원들 속에서 김 석황을 따르는 동무들이 늘어갔다。 창조적 로력의 생활에 랑만의 불꽃이 피여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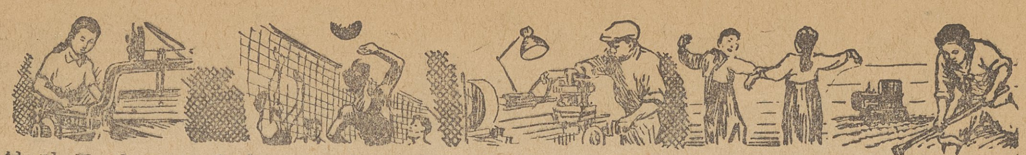
× ×

다음 장을 번지자、 그러면 우리는 구장군 민청 위원장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는 열심히 일을 한다。 그는 상급 동맹의 결정 지시를 집행하려고 노력도 한다。 그는 계획을 세우고 결정서를 꾸미며 각종 대책을 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꾸며진 사업에서 랑만이 꽃피여 본 일은 없다。

그는 민청원들의 생활을 모르는 것이다。 그의 무미 건조한 머리는 민청 사업에 관한 여러가지 경험이 ― 九년 이상 해 왔다는 ― 수학의 공식처럼 들어 차 있다。



—민청 사업이야 다 그저…

그는 이렇게 하면서 민청 사업을 몇개의 공식으로 얽어 버리려는 것이다。 그는 랑만성 까지도 공식화하려는 것이다…

무미 건조한 공식으로 조직한 랑만을 한번 생각해 보라、종이에 물감을 들여 만든 꽃도 꽃이라고 부른다。 얼핏 보면 아름다워도 보이리라… 그러나 종이 꽃에서 은은한 향기나 말할 수 없이 보드라운 꽃잎들이나 아름다운 색갈、싱싱한 생기를 찾을 수 있겠는가?

랑만은 종이 꽃에가 아니라 민청원들의 심장에서 자라 피여난 생생한 꽃에 있다。

구장군 민청 위원장 유 봉일의 머리에 들어 있는 공식에 의하면 로동 청년들의 기능 급수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같은 데서는 랑만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노래와 춤과는 인연이 없는 기술 문제에 무슨 랑만이 있겠는가? 라고

열마 전의 일이다。

도 민청이 도내 산업 부문 열성자 회의를 갖고 도내 로동 청년들의 기능 급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군중적 운동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회의에서 돌아온 그는 『기능 급수 향상 운동』을 조직하였다。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였는가를 알기 전에 어떻게 조직하였는가를 아는 것도 무익하지는 않을 것이다。

산업 부문 민청 일꾼들의 협의회가 진행된다。

협의회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이 회의의 참가자들은 아무도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모든 것이 『공식』에 의하여 이야기가 진행되는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기능 향상 운동』이 결정된다: 회의 결정은 사실에 있어 회의의 옷을 입힌 지시에 불과한 것이였다。

그후의 이야기。 군 민청 위원장은 하부 지도 사업에서 돌아온다。

롱등、롱문 탄광 민청 위원장들이 군 민청에 불려 왔다。

『기능 향상』은 어떻게 되였소? 동무네 탄광엔 신입 로동 청년이 많은데』

대답이 없다。

『동무들에게 집행력이 없기 때문이오、결함의 근본 고리는 이것이오、내려가서 강하게 집행하시오』

탄광 민청 위원장들은 내려가고 또 열마가 지난다。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려도 기술이 향상되였다는 『성과』를 알리는 소식이 없다。

그런데 탄광 실정은 적지 않은 신입 로동 청년들이 아직도 정치적 각오가 약하고 로동에 익숙치 못한데 무단 결근을 자주하며 규률을 자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기술 수준을 높여 주기 위해선 우선 그들의 사상 교양과 생활에 대한 배려가 동반해야 하며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 어떤 지도를 주어야만 할 것이 아니겠는가? 배워 주지 않고 알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홍감나무 아래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곰과 비교하는데 독자들은 동의하는가?

사업을 차디찬 공식으로 바꿔 놓는 민청 일꾼—머리에 공식화된 무미 건조한 공식으로 들어차고 심장의 불이 식은 민청 일꾼의 그 어데 랑만이 깃들겠는가? 랑만은 그에게서 다라나 버릴 것이다。

그런데 독자들의 주의를 희망하는 것은 구장군 민청 위원장의 심장이 식은 것—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열음장 같은 심장이 그 수많은 초급 민청 일꾼들과 민청원들의 심장의 불꽃을 끄고 식혀 버리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다。

× ×

또 한장을 펼쳐 보라、

경공업성 제三 트레스트 민청 위원장 김 창환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그를 만나자면 인내성 있게 찾아야 한다。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기는 더욱 힘들다。 그는 언제나 현장에



있으며 현장은 넓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선 민청원들을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 보기로 하자、

『민청 위원장 동문 정말 우리의 친근한 벗이지요、창환 동문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알아 주거든』

열사람이면 열사람이 한입으로 이렇게 말한다。

새벽 네시면 그는 벌써 현장으로 간다。 작업 조건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한 바퀴 돌아 보고 오기 전엔 밥을 먹지 못한다。

그는 민청원들 앞에서 생산 프로를 따지지 않는다。

『동무네 오늘 실적이 어떻소?』

『경쟁 속도를 높여야 되겠소!』

전 민청 위원장은 밤 낮 책상에 마주 앉아서나、현장에서 만나서나 이렇게 따졌었다。 그는 민청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며 무엇을 즐겨하며 또 어데가 아파하는가를 알려고는 하지 않았다。 민청원들은 코웃음 치고 돌아 서면서 딴 생각들을 했다。 그러기에 이곳 일부 청년들은 로동에 성실하지 못했고 생활이 건전하지 못하였다。

김 창환이 처음 와서 일을 시작했을 때 공장 민청원들의 형편은 이러했다。

김 창환은 비교적 락후한 민청원들을 중심으로 평양 방직 꼼비나트 로력 영웅 김 봉례를 방문하였다。

김 봉례는 자기 로동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건설 로동자들에 뜨거운 감사를 드렸다。 그들은 신 직포 공장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민청 위원장은 그들이 건설하는 새 공장이 건설되면 래년부터 년산 八〇만 메터 이상의 천이 생산된다는 것을 이야기 하여 주었다。

현장에 있는 민청 위원장은 작업하는 민청원들의 틈에 끼워 일하면서 로동의 영예에 대하여 이야기 하여 주었다。 오랜 로동에서 단련된 그는 일도 잘했고 로동 청년들의 심정도 잘 알아 주었다。 일이 끝나면 민청 위원장은 합숙으로 간다。

합숙에서는 민청 청년 브리가다 반장 최 명조가 성실하게 그를 도와 주었다。

어느날 최 명조는 자기 짐을 들고 리 호결이 있는 호실로 갔다。 그는 리 호결의 내의를 빨아 주기도 했고 밤늦게 이야기 하기도 했다。

『최 두종이 이야길 들었지、그치가 망탕 살땐 국가 재산을 술해 빼다가 팔아 술을 먹었드랬어、그런데 그걸 자백하구 생활 태도를 고쳐 진실하게 일하면서 사람이 달라졌거든、 그치가 계속 그렇게 망탕 살았으면 무엇이 될뻔 했어!』

『김책 제철소에 한 기창이라구 로력 영웅이 있지! 그 동무가 해방되였을 땐 열아홉살 난 로동 청년이였는데 기본 지식도 아무 것도 없었대、그런데 一〇년동안 혼자 꾸준히 공부해서 이젠 로어、중국어、영어를 소유하고 선진 기술을 배워 그것을 자기의 로동 행정에 적용하기에 꾸준히 로력하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마침내 로력 혁신을 일으켰거든…』

이렇게 하여 두달만에 리 호결의 생활 태도는 달라졌다。 책을 사다 공부를 시작했고 一二〇%의 생산 능률을 올리고 있다。

젊은 심장들이 민청 위원장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하였다。 생산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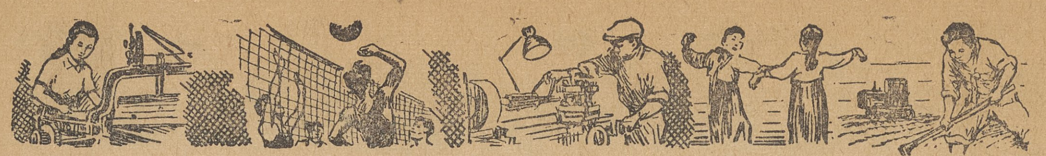
문화 생활—김 창환은 우선 민청원들한테 권고 하기 전에 스스로가 먼저 하였다。

휴식 시간엔 민청원들이 모인 곳에서 먼저 노래를 불렀고 체육을 했으며 책을 읽었다。

책을 읽기 시작한 그는 직장 신문에 『벽돌공의 노래』、『五월의 광장으로』 등 두편의 시를 발표했다。

오늘 민청원들은 그를 따라 책을 읽고 있다。

오랜 침체가 깨지고 사업소 어데가나 웃음과 노래와 생기가 넘쳐 흐르기 시



작했다。 현장에서 창조적 로력의 불꽃이 거세게 타 올랐다。 젊은 심장에 불이 붙은 것이다。

× ×

수첩을 번지며 발길을 재촉하여 정주군 민청 사무실에 들어가 보자、

부 위원장 강 원근은 지금 간부 리력서를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통계 지도원실로 들어선다。 통계 지도원은 도 민청에 보고할 통계를 작성하기에 분주하다。 그는 한번 거들떠 보고 『기다리라요』 고개를 들어 한마디 던지고선 역시 통계 작성에 바쁘다。 방 안엔 의자도 없고 앉으란 말도 없기 때문에 서서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민청원 한 사람이 들어온다。

『수고 하십니다 저—』

힐끗 고개를 쳐들고 쳐다 보는 바람에 말을 꿀꺽 삼키고 만다。

『저—추천서 때문에……』

『기다리라요』

민청원도 우리와 함께 서서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무슨 영문인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자주 통계 지도원을 보며 밖을 내다 보며 고개를 기웃거리는 것이 바쁜듯 하다。 그러나 감히 말을 건네서 묻지는 못한다。

얼마 있으니 또 한사람의 민청원이 들어온다。

통계 지도원은 힐끗 쳐다보며 례에 따라 한마디 『기다리라요』하고서는 여전히 통계 작성에 바쁘다。 새로 들어온 민청원은 주루니 서 있는 사람들로 보아 자기도 역시 기다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짐작하고 두말 없이 기다리는 사람의 대렬에 들어선다。

이렇게 두시간이 지났다。 통계 작성은 여전히 바쁘고 부 위원장은 여전히 간부 리력서 심사를 한다。 또 반시간! 그제서야 부 위원장 동무의 사업이 끝났다。 부 위원장 실에 우루루 렬을 지어 들어간 민청원들은 부 위원장 책상 앞에 줄 지어 선다。

『동무 무슨 일이오?』

위엄 있게 묻는 말에 추천서를 요구한 민청원은 황송하게 대답한다……

한참 심문을 받듯 질문을 당하고 간신히 싸인을 받은 민청원들은 세시간 나마 서 있던 군 민청 사무실에서 나간다。 그들은 밖에 나가서 후유 한숨을 내리 쉬며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며 공기를 들여 마신다。

정주군 민청 일꾼들과 량만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는 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얻으려는 것 같아 기자는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독자들은 기자의 행동을 나무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 ×

수첩의 마지막장을 번지며 군무자들의 생활을 보기로 하자。

우리의 인민군 부대들은 어느 부대나 빛나는 전통을 갖고 있으며 그 영예로운 전통이 매개 대원들의 가슴을 흥분과 자랑으로 고동치게 하여 준다。

비형근 소속 구분대 젊은 군인들은 조선의 마뜨로쏘브 황순복 영웅의 자리를 자기 전우의 대렬에 갖고 있으며 매일 아침 점호 마다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보고하는 영광을 간직하고 있다。

이는 그들에게 항상 참다웁게 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항상 희생적으로 복무할 수정 같이 맑은 애국심으로 교양해 주는 것이다。 이로 하여 그들은 매 걸음 마다 영웅적 위훈에로 고무되였으며 찬란한 승리에로 전진하였다。

매년 영웅이 적 화구를 막고 청춘의 생명을 조국에 바친 잊을 수 없는날 九월 一三일이면 그들은 황 순복 영웅을 추모하는 밤을 갖는다。 금년 九월 一三일에도 그들은 『청년의 밤』을 가졌다。

그들은 항상 마음 속으로 외우고 있는 말이전만 새로운 감격을 가지고 황 순복 영웅이 남긴 말을 외운다。

『동무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당



과 수령을 위하여 앞으로』 그러면 그들은 청춘이 꽃처럼 피여 오르는 一九세의 젊은 심장을 이 고상한 일념으로 태우며 적의 화구로 달려간 전우 황 순복의 입김을 뜨겁게 느낀다。

칼 릉선—영웅의 뜨거운 피가 스민 고지에서 『황 순복 복쑤 습격조』원 八명은 고립 무원한 전투 환경에서도 용감히 싸워 적의 一二차의 반돌격을 물리쳤으며 六二八명의 유생 력량을 살상하였다。 그들은 『八용사』로 불리워 부대의 영예로운 전통을 쌓았다。

이렇게 하여 전쟁의 전 기간을 통하여 그들은 빛나는 승리의 기록을 남겼다。

적 살상、포로 四、一一四명、포、각종 저격 무기 파괴、로획 수백문、비행기 격추 七대—

중대에서는 황 순복 영웅의 뒤를 따른 조선의 마뜨로쏘브들—림 학봉、박 운택을 내였으며 二七〇명의 국가 수훈자를 내였다。

평화의 방선을 지키는 군무 생활에서도 그들은 중대의 영예를 훌륭하게 지키고 있다。

『모범 중대』의 칭호를 받은 그들은 군정 훈련에서도 련합 부대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내여 중대장은 련합 부대장의 표창을 받았으며 중대는 집체 감사를 받았다。 二五명의 젊은 용사들이 이 기간에 모범 군인의 영예를 지니였다。

『청년의 밤』에 모인 그들은 황 순복 영웅과 그리고 중대가 걸어온 영광스러운 전투의 길을 회상하였다。

그들이 받은 이 영예는 조국과 인민 앞에 바친 헌신적 복무의 표현이며 조국과 인민이 그들에게 주는 감사의 표식이다。

그들의 매 한가지의 훈련、부대 생활의 가장 적은 동작에 이르기 까지 그들이 중대의 영예에 대한 자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영예와 공훈에 찬 오늘의 부대 생활이 그들을 아름다운 인간으로 교양하여 주고 있다。 부대 생활은 청년들의 심장에 온 생애를 두고 잊을 수 없는 감격의 토막 토막을 아로새겨 줄 것이다。 기자는 여기서 랑만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랑만을 찾았다。

× ×

오늘 민청 단체들 앞에 나서고 있는 거대하고도 영예로운 사업은 민청 일꾼들의 더욱 거대한 정열과 로력을 요구하고 있다。

날로 장성하고 발전하는 민청원들은 민청 일꾼들의 더욱 세심하고 주의 깊은 지도와 배려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조국 건설의 위업 실행에서 뜨거운 심장을 서로 맞비비며 위대한 김 일성 시대에 사는 영예를 빛내기 위하여 값있게 살며 청춘의 열정을 불태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위대한 목적을 위한 영웅적 투쟁의 생활이 우리 시대 청년들의 랑만이며 민청 일꾼과 민청원들의 불 같은 심장의 고동을 합치며 심장의 말을 주고 받으면서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그 행로가 곧 우리 민청 사업의 랑만이다。

(一二페지에서 계속)

천배 만배의 복쑤의 불을 퍼부어 적을 섬멸하였으며 한시라도 학습과 함께 리동무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전우에 대한 사랑이 적을 더욱 증오하게 하였고 전투에서 용감성을 발휘케 하였으며 맑스—레닌주의 학습을 보다 높은 수준에로 이끌어 갔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八월중순 동수동무는 최고 영광인 공산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고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울 것을 그는 새로운 결의로 당 앞에 굳게 맹세하였다。

이날 동수 동무는 소대장 강동무로부터 사장 동무에게서 표창 받은 그 만년필을 입당 기념으로 선물을 받았다。

강철의 규률과 절약을 위한 철도내 민청 단체들의 몇가지 사업 경험

교통성 정치국 조직부 민청 지도과
과장 김 명 식

철도 운수는 그 자체의 특성으로부터 출발해서 엄격한 지도와 질서와 강철 같은 군대적 규률의 확립을 요구한다. 왜냐 하면 철도는 수천 수백의 역, 구들과 전체 철도 일군들이 제정된 유일 다이야에 의하여 협동 작업을 진행하는바 오직 강한 규률만이 사업의 성과를 보장하여 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결정에는 『각급 철도 운수 기관들은 엄격한 제도와 질서와 강철 같은 군대적 규률의 확립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인정하고 이를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규률 규정의 철저한 준수는 철도 운수 사업의 성과를 보장하며 각종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지난 기간 철도내 일부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규률 준수의 정신이 미약한 데로부터 운전 사고, 영업 사고 등을 비롯하여 정시 운전 비률의 락후, 화차 회기 일수의 연장, 역 수입금 사고 등이 적지 않게 발로되였다. 이러한 부정적 현상들을 시정 퇴치하기 위한 투쟁에서 민청 단체들은 지난 기간 적지 않은 성과들과 고귀한 경험들을 얻게 되였다.

우리는 신안주 역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투쟁 경험을 들 수 있다. 이곳 민청원들은 민청 위원장 문창빈 동무와 조차공 리원호 동무들의 창발적 발기에 의하여 화차 회기 일수 단축과 렬차 정시 운전 보장을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들은 박 대우 조차공의 경험에 기초해서 새 작업 방법 〃순회식 환차 해체 작업법〃을 리용하여 정시 운전을 보장하고 있다. 이 작업은 평양 방면, 신의주 방면으로 두 그루빠선을 설정하고 방향별 환차 작업을 하는 한편 조차공들은 환차 고지서에 근거하여 선별 전철기를 동시에 전환함으로써 량면에서 환차 작업을 진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내 상하 방면에서 동시에 환차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조성 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중계 화차 회기 일수 단축에 크게 기여 하였다. 무질서한 환차 작업으로 말미암아 이곳 역에서는 년초만 하여도 一일 평균 체류 화차가 二〇〇차에 달하였다면 오늘에 와서는 매일 七〇차로 감소되였을 뿐만 아니라 렬차의 개선 대기 시간도 오늘에 와서는 二시간으로 단축되였으며 환차 작업 시간은 三시간 一〇분을 단축시키게 되였다.

기관구 부문내 청년들도 규률과 질서를 확립하여 렬차 정시 운전과 무사고 주파 운동에서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평양 기관구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상반년 까지만 해도 계획 과제 실행의 질적 보장을 저해하는 운전 사고, 오작품 생산과 반복 수리, 석탄의 랑비 현상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곳 민청 단체는 이러한 부정적 현상들을 퇴치하기 위하여 우선 일부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규률의 해이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제 결함들과 원인들을 심각히 분석한 토대 우에서 동맹 조직 정치 사업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당 단체의 지도 밑에

청년들 속에서 규률 강화를 위한 제목으로 쎄미나르를 조직하고 매 승무조 마다 선동원을 배치하여 해설 담화회, 독보회 등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강연 사업은 〃강철 같은 규률의 확립은 교통 운수 발전의 관건이다〃 〃청년들은 규률 준수에서 모범이 되자〃 등의 제목으로 월 一회씩 진행하였고 특히 민청 위원회는 행정 측에 제기하여 민청호 담당 승무원들의 구조 담당을 철저히 실행하였다. 또한 이곳 민청 단체는 전체 청년들 속에서 〃기술적 운영 규정 및 부칙〃 〃기술적 운영 규정〃 〃렬차 운영 규정〃 〃철도 복무 규정〃을 비롯한 부문별 작업 규정을 기술 학습망과 승무 행선지에 열성 맹원들을 파견하여 해설 침투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점차 규률 준수에 대한 자각성이 제고되였는 바 九월 二〇일 현재 三〇만 키로메터 무사고 운동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계속 생산 과제의 초과 달성에로 나아가고 있다.

신북청 기관구내 민청원들과 청년들도 강철 같은 규률 강화를 자기의 중요한 투쟁 임무로 인정하고 이를 위한 투쟁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있는바 이들은 승무 조내에서 운전 도중 기관사와 조사간의 호상 응답제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승무 행선지에 도착하면 〃철도 복무 규정〃을 매일 一시간씩 학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승무 도중과 승무 행선지에서 규률과 사업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지난 二개월 간에 一四건의 운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九월 중순만 하여도 二三톤의 석탄을 절약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곳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五·一절 까지 五만 키로메터 안전 주과 운동을 달성 하였으며 六월 二四일까지에는 一〇만 키로메터를 성과적으로 주파하고 一〇월 五일 一四시까지에는 二〇만 키로메터를 무사고로 주파하였다. 이 경험을 토대로 하여 민청 청년 브리가다 책임자 유 병을 기관사의 三〇만 키로메터 무사고 운동의 발기에 호응하여 모두가 그 실천을 위하여 불꽃 튀는 증송 경쟁에 궐기하고 있다.

교통 운수 부문내 각급 민청 단체들과 전체 청년들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三월 전원 회의와 四월 전원 회의 문헌들을 연구하는 행정을 통하여 자기 결함들을 더욱 심오하게 분석 비판하고 석탄 절약 운동을 전 동맹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렇게 절약 운동은 광범한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발기에 의하여 〃석탄 절약 운동〃 〃무사고 주파 운동〃 〃화차 회기 일수 단축 운동〃 등 각종 창의 창발적 운동을 조직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각종 창발적 운동을 통하여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실로 귀중한 여러가지 우수한 경험들을 쌓아 놓고 있다. 그것은 양덕 기관구내 민청호 기관차 승무원들의 애국적 발기인바 그들은 자기들의 담당 선로 구간에 대한 투탄 회수를 조사한 기초 우에서 석탄 절약 운동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한때 이곳 민청호 승무원들은 말로써만 석탄 절약 운동을 웨치는데 그치고 그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책을 세우지 않았다. 그들은 흔히 석탄 절약이 안되는 원인이 석탄의 질이 나쁘다든가 소비 기준이 낮다든가 자기들과 같이 구배선이 많은데서는 어렵다든가 하는 여러가지 구실을 부쳐가면서 석탄 절약 운동에 사상적으로 동원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결정을 연구하면서 부터 석탄 랑비의 중요 결함들이 석탄의 질이나 기관차의 성능이 나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석탄 절약에 대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모르는 데서, 석탄 랑비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 대책들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이곳 민청 위원회는 민청호 승무원들의 회의를 소집하고 구체적 대책을 토의한 다음, 열성 맹원들을 동원하여 매 기관차에 첨승하고 석탄 랑비의 원인을 구명하였다. 이와 함께 구간별 투탄 회수를 조사하고 그에 기초하여 투탄 계산기를 창안하여 승무원들에게 주었다. 이것을 가지고 민

청 청년 브리가다 반장인 리 형욱 기관사 승무원들이 먼저 시험하게 되였다. 이 시험은 한삽에 五키로그람씩 규정하고 구간별로써 이미 산출된 투탄 회수에 따라 표쪽을 만들어 두고 투탄이 끝날 때마다 한장씩 제끼게 하였다. 종전 양덕—고원간 一왕복에 九·五—一○톤씩 석탄이 사용되였다면 계산 투탄법을 적용하면서 부터 一왕복에 一—一·五톤씩의 석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였다. 이리하여 지난 一○월 二五일 현재로 一, 三○○여톤의 석탄을 절약한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듯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새로운 창발적 방법으로 석탄 절약 운동에 궐기하고 있는 한편 교통 운수 부문내 로력 혁신자들의 고귀한 경험을 더욱 창발적으로 적용하면서 치렬한 경쟁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함흥 기관구 민청 청년 브리가다 반장인 김 정표 동무와 황 홍순 두 민청호 승무조 간에는 금년도에 一五톤 七○○키로 석탄 절약을 목표로 호상 경쟁을 체결하여 년초부터 투쟁하여 왔다. 김 정표 민청호 승무조는 금년초부터 一○월 二○일까지에 一一四톤의 석탄을 절약하였다. 김 정표 민청 청년 브리가다원들이 담당한 미가하 五五○호 민청호 기관차는 성능이 그리 좋지 못하였으며 지난해만 하여도 많은 석탄을 소비하였으며 수차례의 퇴행, 기타 운전 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그들은 년초에 내세운 석탄 절약 목표들을 기필코 달성하기 위한 일치한 결의 밑에 승무 규률을 일층 강화하면서 로력 영웅 최 덕수 기관사의 선진 작업 방법을 도입 적용하기에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들은 우선 자검 자수로써 기관차의 성능을 높이는데 노력하였다. 승무 전후에는 반드시 기관차의 대 청소를 진행하며 급유 작업을 세밀히 진행하였다. 세관 수리시에는 공장 일군들과 협력하여 세밀한 부문까지 보수하였으며 기관차 수리 기술을 배웠다. 자체로 정비한 三二종의 자검 수리 도구를 사용하여 급수역이나 중간역에 一○분 이상 정차할 때에는 자그만한 고장도 내지 않

민청생활문답

민청 생활에서 유리되고 있는 민청원들의 민청 생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一九五五년 一一월 二五일 민청 중앙 상무 위원회는 一九五六년 一월 三일부터 一월 三○일 까지의 기간에 민청 생활에서 유리되고 있는 민청원들을 맹원 명부에 등록하고 민청 생활에 계속 참가시킬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와 관련한 독자들의 질문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회답한다.

첫째, 어떠한 민청원들을 등록하는가?

一九五六년 一월 一일 현재 시, 군(구역) 민청 위원회 맹원 명부에 등록되지 않고 민청 생활에서 유리되고 있는 민청원들을 그들의 자원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한다.

ㄱ, 이동 수속 없이 왔으나 맹원증을 소지하고 있는 민청원들은 그의 맹원증에 근거하여 등록하며,

ㄴ, 종전의 맹원증(조선 민주 청년 동맹원증, 북 조선 민주 청년 동맹원증, 림시 맹원 증명서)과 등록 상항 변동 보고서, 소속 통지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민청원들은 그가 소지하고 있는 맹적 근거 문건에 의하여 등록한다.

ㄷ, 본인이 민청 생활을 하였다고는 하나 민청 생활에서 유리되여 아무런 맹적 근거 문건도 없는 민청원들에 대하여서는 그가 민청 생활을 하였다는 민청원 二명의 보증, 또는 그가 본래 소속하였던 초급 민청 단체 및 시, 군(구역) 민청 위원회의 확인에 의하여 등록한다.

이와 함께 시, 군(구역) 민청 위원회 맹원 명부에 등록되였으나 본인이 이동 수속 없이 이동한 민청원들은 그를 맹원 명부에서 제외한다.

둘째, 초급 단체에서 이 결정의 정확한 실행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

초급 단체에서는 우선 민청원들 속에 이 결정의 목적과 내용을 해설 침투시킬 것이며, 특히

기 위하여 사전에 보수하였다. 특히 문화 기술을 높이기 위하여 이들은 출근 즉시 기관 조사들과 함께 모형 투탄 련습을 진행하는 한편 기술 학습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또한 그들은 매 구간별 투탄량을 정하고 세삽 투탄법을 창발적으로 적용하여 점차로 투탄량을 감소시키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년초에는 신북청—함흥 간 운전에서 一二톤의 석탄을 소비하였다면 오늘에 와서는 一○톤 이내로 감소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창발적 열성을 발휘한 결과에 많은 석탄을 절약하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一○월 二八일에 년간 주행 계획을 一○一·二%로 완수하고 四, 四六○톤의 화물을 초과 견인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희천 기관구내 민청원들과 청년들도 석탄 절약을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희천 기관구 민청 위원회는 기관차의 질적 수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능한 청년 기관사들을 세관 수리 협조 그루빠를 조직하여 공장 일군들을 방조하여 주며 철저한 검수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청광제 대용으로 참나무 껍질을 四키로그람 정도로 넣어서 물때를 철저히 제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성능이 좋지 못한 기관차의 불량 개소를 철저히 조사하여 집중적으로 그루빠 성원들이 동원되여 보수한 결과에 전반적으로 기관차 성능이 제고되고 있다. 이렇게 희천 기관구 민청 위원회는 열성 맹원들을 조직 동원하여 석탄 절약을 위한 창발적인 사업들을 조직 진행함으로써 一·四분기 간에 초과 소비한 량의 석탄을 전부 보충하고도 一○월 二○일 현재로 一, 二○○여톤의 석탄을 절약하게 되였다.

이와 같이 민청 단체들은 석탄 절약을 위한 투쟁을 말로써가 아니라 광범한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실천적인 동맹 조직 정치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능히 석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자신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청 생활에서 유리되고 있는 민청원들에게 결정 내용을 알려 주어 그들로 하여금 등록 사업에 자원적으로 참가하도록 조건을 지어 주어야 할 것이다. 민청 생활에서 유리된 민청원들의 등록은 어데까지나 그들의 자원에 엄밀히 기초하여야 하는바 그렇다고 하여 앉아서 기다리거나 또는 그와 반대로 기계적으로 등록하여서는 안된다. 다음으로 초급 단체 위원장은 초급 단체 맹원 명부와 시, 군(구역) 민청 위원회 맹원 명부와의 정확한 대조 사업을 진행한 토대 우에서 초급 단체내 실제 민청원들과의 개별적인 대조 확인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와 함께 초급 단체내 민청 생활에서 유리된 민청원들을 조사 장악할 것이며 그들이 등록을 청원하였을 때에는 그가 소지하고 있는 맹적 근거 문건에 의하여 확인한 다음 시, 군(구역) 민청 위원회의 지도 밑에 등록 사업을 실시할 것이며 초급 단체 맹원 명부에는 등록되여 있으나 이동 수속 없이 간 민청원들은 그가 실제로 없는 경우에 제외시킬 것이다. 민청원들을 등록, 또는 제외시키는 사업이 끝나면 시, 군(구역) 민청 위원회가 배포한 맹원 명부(맹적 양식 제二一호)에 의하여 초급 단체의 맹원 명부를 새로 작성하고 기존 맹원 명부와 등록, 또는 제외한 민청원들에 대한 근거 문건 및 명단과 새로 작성한 맹원 명부를 시, 군(구역) 민청 위원회에 제출하여 시, 군(구역) 민청 위원회의 맹원 명부를 정리하게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등록된 민청원들 중 이동 수속 없이 왔으나 맹원증을 소지하고 있는 민청원들에 대하여서는 그의 맹원증, 맹원 이동 관계란을 정리하게 하며 그 외의 민청원들은 새 맹원증을 수여 받도록 지도 방조할 것이다.

초급 단체에서는 이 사업과 함께 전체 민청원들에게 민청의 규약, 특히 민청원의 의무와 권리를 해설하며 "조선 민주 청년 동맹 단체들의 맹원 등록 통계와 개별적 조직 문제 취급에 대한 지도서" 내용을 철저히 해설하여 주는 사업을 조직하여 민청원들로 하여금 민청의 주인으로서 민청 생활에 자각적이며 열성적으로 참가하게 할 것이다.

청년들 속에서의 군중 문화 활동의 개선 발전을 위한 몇가지 의견

김 하 진

군중 문화 활동이 청년 교양의 중요한 수단임을 정확히 인식하자

청년들 속에서의 군중문화 활동은 청년들을 선진적 사회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며 그들의 전면적 발전을 방조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을 양성함에 있어서 선진적 교육학은 다섯개의 측면、즉 육체교양、지적교양、기술교양、도덕교양、미적교양이 유기적으로 통일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군중문화 체육활동은 바로 청년들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교양의 각 측면을 결합시키는 좋은 수단의 하나로 된다。 따라서 높은 사상적 내용과 다양한 방법을 가진 군중문화 체육 활동이 광범한 청년 군중 속에서 생활화된다면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튼튼한 육체와 락천적이며 생기발랄한 생활기풍、높은 지식과 문화 기술、새로운 인민적 도덕 품성으로 청년들을 교양함에 이바지 할 것이며 그는 또한 민청 생활에 광범한 청년들을 인입하며 활기를 띠우며 청년들의 기세를 고취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될 것이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청년들의 교육 교양과 발전에 깊은 배려를 돌려주고 있으며 청년들 속에서 군중문화 활동을 광범히 전개할 수 있는 각방면의 조건을 지어 주고 있다。국가의 상설 교육망들과 사회 기술 통신 교육망들이 청년들의 일반지식 수준제고에 복무하고 있으며 구락부와 민주선전실、박물관、도서관、영화관、경기장들과 체육 문화 오락시설이 청년들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다량의 서적과 신문 잡지들이 출판 배포되고 있다。따라서 이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적극 리용하면서 민청 단체들이 높은 관심과 책임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능난하게 조직 지도한다면 많은 성과를 거두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이 방면에서 이미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여러가지 좋은 경험들을 쌓았다。

그러나 아직 이 사업은 청년교양의 여러 수단중에서 불원만하게 진행되는 부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청년들 속에서의 군중 문화 사업의 기본결함은 첫째로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며、둘째로 내용이 풍부하지 못하며、세째로 형태와 방법이 다양하지 못하며、네째로 목적 지향성 있는 우로부터의 구체적 지도와 밑으로부터의 창발성이 결합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부지방 민청단체들에서는 군중문화 활동의 의의를 과소 평가하면서 이 사업지도에 높은 책임성과

관심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방면으로 일부 단체들에서는 군중문화 체육활동을 청년들에 대한 계급교양의 중요한 수단으로 목적 지향성 있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만 청년들의 문화적 휴식과 기세를 고취하는 면에만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즉 청년들 속에서의 군중문화 활동을 앞으로 개선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우선 민청단체들이 이 사업이 청년 교양에서 가지는 의의를 옳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사업을 경시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도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청년들의 일반적 지식 수준을 제고함에 배려하자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의 과업은 현대적 과학 기술에 기초한 공업의 급속한 발전、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사업에 복무할 수 있게 준비된 보다 높은 지식과 과학 기술을 소유한 인재를 절박하게 요구 하고있다。이로부터 당과 정부는 청년들의 일반 지식 수준의 제고를 큰 국가적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청년들의 일반 지식 수준은 현저히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해방후 一〇년간 우리의 인민 교육 기관은 수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하였는바 현재 공장、기업소와 농촌에는 수많은 지식 청년 (특히 초、고중 졸업생)들이 사업하고 있다。그리하여 민청원의 구성은 수년전에 비하여 지식청년의 비률이 현저히 증가되였다。 이러한 정형은 민청 단체들 앞에 일반적 지식 수준을 더욱 제고하는 국가적 사업에 책임적으로 참가할 과업을 당연하게 제기한다。

그런데 실정은 어떠한가? 다수 민청 단체들에서 이 사업을 자기의 사업 분야에서 제외하고 있거나、혹은 심히 무관심하게 대하고 있다。 함남 함주군 대성리에는 一三〇여명의 인민학교 및 초、고중 졸업생들이 있는데 그들 중의 대부분은 이렇다할 학습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해방후에 문맹을 퇴치한 六〇여명의 국문해득 청년들이 역시 자기지식을 더욱 높일 데 대한 하등의 노력이 없는 형편이다。그러나 이곳 민청단체는 이들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돌리지 않고 있다。이러한 실례를 함주군에만 있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보편적인 사실로 되고 있다。 그런즉 민청단체들은 청년들의 일반지식수준을 높이는 사업에 무관심한 태도를 결정적으로、그리고 시급히 시정해야 할 것이다。과업은 무엇인가?

첫째로 국가 상설 교육망들에서의 교육、교양 사업을 적극적으로 방조함과 함께 특히 초급 및 기술보습반들과 성인학교、로동자학교、직공학교、야간중학교、야간전문학교、통신중학、통신전문、통신대학 등 각종 사회 기술 통신망들에 광범한 청년들이 망라되도록 지도하며 그들의 일상적 학습에 백방의 방조를 주는 데 있다。 둘째로、성인 교육사업에 책임적으로 참가하여 우선 국문 해득 청년들의 수준을 철저히 조사 장악하고 그들에게 국문을 배워주며 성인학교 한글반 초급반에 빠짐없이 참가시키며 학습상의 실제적 방조를 주어야 한다。 특히 인민학교 졸업생들이 다수를 차지함에 비추어 성인학교 초급반 사업에 큰 주목이 요구된다。

세째로、공장、기업소 로동청년들을 기술교양망에 광범히 참가시키며 기술 전습사업의 질을 제고하며 농촌에서의 영농기술 써클들을 확대하며 그의 정상적이며 높은 질적 운영을 지도 방조해야 한다。 민청 단체들은 청년들 속에서 기술 강연회、좌담회、토론회 등을 정상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의 생활에서 일체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 유습을 청산하며 새롭고 건전한 생활 기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께서는 일찌기 『지난날 일본 제국주의가 남겨 놓고 간 일체 타락적, 말세기적, 퇴폐적 유습과 생활 태도를 청산하고 생기발랄하게 약진하는 새로운 민주조선의 민족적 기풍을 창조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교시 하시였다. 조선 로동당은 우리 청년들을 선진적 사상으로 새로운 인민적 도덕품성으로 교양하였으며 또 교양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청년들 속에는 로동에 대한 자각성, 국가 및 사회의 공동재산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이 형성 발전되였으며 새롭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수립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청년들이 완전히 사회주의 사상과 건전한 생활 풍습을 소유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로동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의 생활에는 아직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 사상잔재와 유습들이 음으로, 양으로 발로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민청 일군들은 청년들 속에서 발로되는 이와 같은 현상을 『개인의 일』 『사소한 일』로 보면서 이에 큰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다. 이것은 잘못이다. 왜냐 하면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일상 생활은 우리의 위대한 사업과 관련되여 있으며 그들의 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민청 단체들은 청년들 속에서 발로되는 일체 낡은 유습과 생활에서의 비문화성을 반대하여 집회에서 토의하며 벽신문과 기타 선전수단을 리용하여 사회적 여론을 일으키며 군중적인 비판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도덕교양에 노력해야 한다.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근면하며 검박하고 겸손하며 언행과 몸차림을 단정히 하며 군중 질서를 모범적으로 지키며 자기의 몸과 주변 일터와 생활처소를 항상 깨끗이 하는 새로운 도덕품성과 문화적인 생활 관습을 배양해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민주수도 청년의 영예와 긍지를 더욱 높일데 대한 문제를 토의한 평양 시 민청 열성자 회의와 평양시를 비롯한 청진, 신의주시 민청단체들에서 진행한 도덕 교양문제를 쩨마로한 강연회는 좋은 방법으로 될 것이다. 청년들의 건전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민청일군들은 우선 청년들 속으로 들어가 청년들의 합숙과 기숙사, 가정등 생활처소들과 사회적 생활의 모든 령역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의 정형과 요구를 잘알며 그에 기초하여 생활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청년들의 자립적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의 금후 발전을 위하여

청년들의 자립적 문예 체육 활동은 그들의 특성에 적응하며 그들의 다양한 요구와 감정에 만족을 주는 민청단체들의 중요한 활동분야로 된다. 그러나 지금 이 사업지도에서 민청단체들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일부 민청단체들에서는 이 활동이 거의 정체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그 내용이 고상하지 못하다. 청년들의 자립적 문화 예술 활동에서 독서 및 독보사업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책을 사랑하며 독서에 대한 높은 의욕과 열성을 가지고 있다. 청진 제강소에서는 금년 一〇월에만 매개 민청원들이 평균 三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 그런데 이것은 다수 경우에 『책을 읽으라!』는 민청 단체의 일반적 호소에 청년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호응한데 불과하며 구체적 지도가 따르지 않고 있다. 일부 민청단체들은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며 그것을 실생활과 생산활동에 어떻게 리용해야 하는가 하는 지도는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청년들은 책을 란독하며 읽은 책의 내용을 심오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 부분적 청년들이 소설 『보내지 않은 편지』를 읽고 그의 교양적 내용을 정당하게 리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민청단체들은 우선 모든 청년들이

항상 책과 함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도서관과 서점에 청년들을 안내하며 도서 목록을 청년들 속에 선전하며 그들의 서적 선택을 도와 주어야 한다.

최근 청진시 민청 위원회는 민주 청년사와의 련계 밑에 독서 열성자 회의를 진행하였는바 이것은 청년들 속에 책을 선전하며 내용을 정확히 파악시키며 독서 방법을 알려 주는 좋은 방법으로 된다.

민청단체들은 자립적으로 독서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독서 감상회, 독자회, 문학의 밤, 개별적 책에 대한 강연을 조직하여 그들을 방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립적으로 독서할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하여 집체적 랑독을 조직하며 독서 열성자들의 경험과 읽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케 함으로써 그들의 독서 의욕을 계발시키며 수준에 맞는 짧고 쉬운 책부터 읽는 습관을 부쳐 주는데 노력할 것이다.

영화는 청년들이 가장 사랑하는 예술 부분이다. 그런데 일부 민청 단체들에서는 영화를 청년 교양에 리용할데 대하여 무관심하다. 민청 단체들은 보다 많은 청년들이 영화를 관람할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배려하는 동시에 그의 감상력을 높이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청단체들은 영화관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어느때 무슨 영화가 상영된다는 것을 잘알아야 하며 그에 의하여 집체적 관람사업을 조직해야할 것이다. 사전에 영화내용을 료해하고 그의 간단한 줄거리와 그 영화의 사상 예술성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 것은 청년들의 정확한 리해에 방조로 될 것이다. 특히 민청 단체들은 이동 영사대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코스의 설정, 필림 운반 장소의 선정 등을 도와 주어야 한다.

청년들 속에서의 각종 예술 써클 활동에 관하여 말한다면 민청단체들은 더 광범한 청년들을 이 사업에 참가시키며 그의 내용과 형식의 사상 예술성을 높이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민청 단체들은 이 활동이 생산과 리탈되지 말며 청년들의 수준, 직업, 지방적인 특수성에 의거하여 자기들의 창조적 로동과 일상 생활의 가장 가까운 쩨마들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만포 제재 공장 로동 청년들이 자기들의 로동과 생활에 적합한 노래를 선택할 대신에 금속 로동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래와 대본들은 항상 그 시기의 당과 정부 정책의 지향에 립각하며 우리의 영광스러운 조국에 대하여, 창조적 로동의 영예와 긍지감, 조국통일에 대한 념원, 국제주의적 친선 향토의 자랑, 특히 그 지방에 고유한 민족 예술 오락 등의 쩨마들이 선택되여야 한다.

현재 각 지방에 보급되고 있는 「청년의 밤」, 「문화의 밤」 써클 발표회 등을 고식적인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더 다채롭고 내용 있게 하자.

청년들의 체육활동은 그들을 로력과 조국 보위에 준비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 부문에 있어서도 중요한 결함은 민청 단체들과 그 일군들의 무관심성이다. 함북도 어랑군 민청 단체들에서는 다른 문화 예술 활동은 잘되고 있으나 一九五四년도 인민 체력 검정에 농촌은 완전히 제외되였고 학교에서만 진행되였는데 그것도 합격자는 수검자의 一%에 불과하였다. 민청 단체들은 청년들 속에서 각종 기회를 다 리용하여 인민 체력 검정 종목들을 련습케 하며 그에 합격하는 것을 민청원의 의무로 또 영예로, 수검하지 못하는 것을 수치로 알게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조기회와 인민 보건체조를 광범히 조직하며 당면한 동기체육을 다양하게 조직함에 노력할 것이다. 지방의 구체적 실정에 따라 빙상경기, 행군과 수렵, 기타 각종 체육 스포츠 사업을 조직할 수 있다.

민청단체들은 청년들의 자립적 체육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기자재와 시설, 각종 오락기구들을 만들며 시설하는데 민청원들의 창의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밑으로부터의 창발성과 우로부터의 구체적 지도를 결합시키는 데 있다

군중문화 체육활동에서 지난 기간의 경험은 청년군중의 창발성과 그 요구에 비하여 민청단체들의 지도사업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우선 부분적 민청단체들은 이 사업의 의의를 옳게 인식하지 못한데로부터 지도 사업을 방임하거나 소극적으로 대하였으며 일부 민청 단체들에서는 총회、위원회、상무 위원회들의 토의 안건에 전혀 제기되지 않은데서 표현되며 일반적으로 관계 기관들과의 긴밀한 련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광범한 열성자들을 이 사업에 효과적으로 인입하지 못하였으며 지도자들을 계통적으로 육성하지 못한데서 잘 표현되고 있다. 그런즉 과업은 우선 이 사업에 대한 민청일꾼들의 관심과 책임성을 높이며 민청일군 자신들이 이 사업에 솔선 참가하는데 첫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이다.

만일 민청일군들이 공연한 점잖을 빼면서 이 사업에 참가하지 않거나 청년들 속에 들어가기를 두려워 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가、필경 자기도 읽지않은 책을 읽으라고、제목밖에 모르는 노래를 부르라고、보지도 못한 영화를 보라는 관료주의적 「지도」 밖에 하지 못할 것이다.

군중 문화사업 지도에서 민청 단체들과 그 일꾼들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당의 통일적 지도밑에 관계되는 각 문화 계몽기관들—인민 위원회 문화 선전부、교육부、직업 동맹、조쏘문화 협회、체육 지도 위원회、조국보위 후원회、도서관、박물관、영화관、이동영사대、부근 학교들과 예술단체들、지방 주재 작가 예술인들—과의 련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민청 단체들은 관계기관들과의 긴밀한 련계하에 그 기관들과의 공동사업을 조직하며 이를 통하여 청년들의 자립적 문화예술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열성자들을 광범히 인입하며 그들을 계통적으로 육성하여 이 사업 지도에 능숙하게 인입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의견에 의하면 청년들 속에서의 군중 문화 활동은 다음의 제 요구에 의거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첫째로、군중문화 활동이 청년들에 대한 계급교양의 강력한 수단으로 되여야 할 것이며、둘째로、이 사업은 어데까지나 로동시간외에 진행되여야 하며 생산과 리탈되지 말아야 하며、이것이 일부 「선발된 사람」들의 전문적 활동이 아니라 광범한 군중적 사업이 되여야 한다.

세째로、군중문화 체육활동에서 청년군중의 자원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특히 지방적 및 직업적 특성이 고려되여야 한다.

네째로、이 사업은 그 내용과 형식 방법에 있어서 다양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청년들의 다방면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그들의 전면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창발성과 우로부터의 지도를 옳게 결합시키는 데 있다.

민청단체들과 그 지도일군들은 이상의 제 요구에 의거하여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곳들에서는 현재까지의 좋은 경험을 정확히 총화하여 적극 조장하면서 그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며 이 사업이 아직 부진 상태에 있는 곳에서는 모든 것을 단꺼번에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조건을 정확히 타산하여 가장 초보적인 사업부터 하나씩 착수하여 확고한 기초를 구축하면서 점차적으로 발전시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방 수림 울창한 심산 속으로 몇 시간을 가도 점점 더 심한 구배선을 올라야 했다. 가소린 차가 거의 백리 길이나 산 굽이를 감돌아 올랐을 때에야 밀림으로 둘러싸인 림산 마을에 다달을 수 있었다.

여기가 바로 아득히 구름을 인 백두산도 우러러 보인다는 이계수 민청 청년 기계화 작업소이다. 제일 힘든 일로 간주되던 벌목、운재、조재、집재 등의 거의 전 공정이 기계화된 산판에는 전기 톱이며 윈찌、이동 발전기 등 여러 기계 소리가 뒤섞여 골짜구니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천고의 밀림이 햇빛도 새어들 틈 없이 빽빽히 들어선 가파로운 산비탈을 얼마동안 올라서야 전기톱 브리가다 동무들이 일하는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내가 벌구를 찾았을 때는 마침 쉬는 참이여서 모두들 모닥불에 빙 둘러 앉아 있었다. 독보회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런데 한 청년은 목청까지 돋구어 가지고 무엇인가 열심히 읽고 있다.

「……우리는 「민주 청년」 지상을 통하여 유평 림산 사업소가 영예의 "민청 중앙 위원회 승리의 깃발"을 쟁취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우리 민청 청년 브리가다원 일동은 성심으로부터의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민주 수도 평양은 옛 모습을 찾아보기 힘드리 만큼 웅장하게 일어서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동무들의 고귀한 로력의 열매인 목재가 귀중한 자재로 되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한 처녀 동무가 또 한장의 편지를 꺼내 들었다.

「…우리는 아직도 송진내 풍기는 책상 우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벌목부 아저씨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앉고 있는 책상이 아저씨들의 정성어린 선물이거니 생각할 때 더욱 그러했고 더우기 나 목재—이것이 바로 공장과 주택、학교와 병원 등의 건설 공사장들에서 첫째번으로 요구되는 자재 이길래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아저씨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는 삼종 나무로는 종이와 인조 견사를 생산하며 그외 나무로도 고무、사탕 원료 등의 공업 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아저씨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건설성 중앙 제一三 건설 트레스트 제三 사업소 백 태현 민청 청년 브리가다원들과 평양 제一九 중학교 인민반 제四학년 三반 소년단원들이 정성 들여 적어보낸 격려의 글월이였다. 편지를 듣고난 그들의 얼굴마다엔 밀림을 정복하는 가슴 벅찬 영예와 긍지가 넘치고 있었다.

「자! 또 시작해 봅세!」

「기통 동무 오늘도 五〇립방은 문제없겠는데!」 저마다 뒤질세라 한마디씩 던지는 젊은 벌목공들의 쨍쨍한 음성은 뫼아리쳐 울리여 다시 골짜구니에 퍼진

다。 하늘 높이 치솟은 이깔나무와 가문비나무가 빽빽히 들어선 산판에로 이들은 흩어져 갔다。 전기톱을 대기가 바쁘게 아름드리 나무들은 육중한 체구를 굼틀거리며 넘어가자 지축을 흔드는 듯 산울림 한다。 한켠에서는 정리공들이 나무아지를 따가며 일손을 재우친다。 이는 추위를 모르고 희망에 찬 로력으로 매일을 즐기는 백무 고원 젊은 벌목공들의 자랑찬 모습이다。

× ×

여기 심산 속에도 청춘의 정열은 끓는다。

요란한 기계 소리에 뒤섞여 들려오는 벌목공들의 흥겨운 노래 소리를 들으며 원찌 브리가다를 찾아 산비탈을 내릴 때 사업소 민청 위원장 김 룡칠 동무는 『요번에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수여 받게 된 것도 대다수가 청년들인 이곳 민청원들의 눈부신 투쟁 성과가 큰 데 있습니다。 지난 二·四분기엔 사업소적으로 청년들이 자기 계획을 불과 九八% 밖에 하지 못했지만 요번 三·四분기에는 一一二%로 자기들의 계획 과제를 넘쳐 다하게 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들의 보람찬 증산 투쟁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주었다。

이곳 민청원들이 오늘과 같이 승리자의 영예를 지니게 된 그 과정에는 그들의 줄기찬 로력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금년초에 집재용 원찌、이동 발전기、전기톱 및 기타 기계들을 리용하는 등 기술적 장비는 장성되였으나 작업 능률은 좀체로 오르지 않았다。 이런 형편인데 다 설치된 기계를 시동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자로서는 쏘련에서 다년간 기술을 습득한 김 기만 동무를 비롯하여 二―三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부분적인 민청원들이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경험"과 "힘"만을 믿고 새 기술과 설비들을 습득 리용하려 들지 않았다。 이들은 거의다 새로 들어온 원찌를 두고 『저런 무쇠덩이를 어떻게 이 험한 산판으로 끌고 돌아다니겠는가?』하면서 이 기계의 성능을 믿지 않았다。 민청 단체는 당 및 행정과 충분한 협의 밑에 기능자 양성을 위한 사업을 조직했다。 부문별로 기술 학습반이 편성되고 김 기만 동무가 강사로 결정되였다。 민청원들은 여태껏 기계라고는 다루어 보지 못한 동무들이 대부분이였다。 김 기만 동무는 세밀한 계획 밑에 벌목 원찌、발전기 등 여러 부문에 거쳐 기술 학습과 전습을 실정에 알맞게 친절히 지도했다。

새것에 민감한 청년들은 새 기계의 조종법을 배우기에 몰두했다。 심 금옥 동무들을 비롯한 청년들이 선두에 나섰다。

룡칠 동무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동안 산비탈을 내려 왔을 때 원찌공들이 민첩하게 집재와 적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원찌 운전수들의 련락 신호가 순식간에 오고가면 아름드리 나무가 공중에 떠올랐다는 영낙없이 영차 우에 실리우는가 하면 육중한 체구를 굼틀거리며 끌려오군 했다。 그중에서도 원찌 앞에서 날샌 솜씨를 보여 주고 있는 처녀 동무가 유난히 눈에 띄였다。

그가 바로 신 금옥 동무였다。 두툼한 솜옷을 풀어 헤친채 줄거리공들의 신호가 오르길 눈여겨 노려 보고 섰는 단발 머리 처녀—금옥은 광채나는 눈동자며 햇빛에 꺼슬린 씩씩한 용모며 마치 눈보라 휘몰아치는 엄동설한에도 추위를 모르고 싸우는 빨찌산 처녀를 련상케 했다。

그가 처음 원찌를 다루겠다고 나섰을 때 『녀자가 못하는 것 없이 다 꺼덕댄다』고 부분적인 사람들의 비웃음까지 받아 가면서도 끝내 이를 악물고 새 기술을 열성껏 배웠다。 미심한 점이 있기만 하면 묻고 또 물었다。

이렇게 금옥은 불과 며칠만에 훌륭한 원찌공이 되였다。 이와 같은 그의 근기 있는 투쟁은 작업소 전체 민청원들을 분발케 하였다。 금옥을 뒤따라 리범히、한 연동 동무들을 선두로 많은 청년들이 새 기계의 운전법 습득에 앞을

다루어 나섰다。

날을 따라 기능이 높아지고 이 작업에 익숙해지자 기계 가동률은 높아졌고 작업 능률도 올랐다。 얼마 안가서 소발구 운재 보다 곱절 이상의 능률을 올리게 되였다。

시초엔 『너희들이 암만 그래두 내 소발구를 따르기는 힘들걸!』하면서 기계화를 비웃고 나서던 김 희철 로인까지도 『기계란게 무섭긴 한게야』라고 하면서 끝내 항복하고 말았다。

리 상순 동무를 비롯한 四二명의 민청원들이 원찌를 운전할 수 있는 기능자로 되였다。 이리하여 원찌 운재 부문에 민청 청년 브리가다가 조직되였고 지난 一〇월에는 一一三%로 계획 과제를 달성했다。

봉화는 여기에만 오르지 않았다。 합봉수를 비롯한 많은 동무들이 발전기를 조종할 수 있는 전공으로 자랐을 뿐만 아니라 원찌 저항기를 창의 고안해 냄으로써 원목 운재에서 종전에 비하여 一五〇% 이상의 높은 능률을 올리게 하였다。

기계화된 벌구들에서의 이와 같은 눈부신 투쟁에 발맞추어 소발구 민청 청년 브리가다에서도 궐기했다。 그들은 더 많은 원목을 건설장으로 보내기 위해 분투하였다。 김 인석 동무를 비롯한 브리가다원들은 나무의 껍질을 베끼고 옹이를 잘 다듬고 험한 발구 길에는 발비목을 깔고 운재함으로써 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二·四분기 실적이 八三%에 지나지 않았다면 三·四분기에는 一〇七%로 계획 과제를 달성하게 되였다。



이와 같은 그들의 열성은 전국 림업부문 열성자 회의 호소 실천을 위한 동기 작업 준비에서도 발휘되였다。

이들은 애국 로동으로 역우의 동기간 사료로써 청초 三톤、발구채 七〇컬레를 장만해둔 외에 二키로 四〇〇메터의 인도를 보수하는 등 동기 작업 준비를 끝내고 지금은 년간 계획을 一五일간 앞당겨 실행하기 위해 한 사람 같이 궐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곳 민청원들은 새 설비와 기술을 습득 리용하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기에 오늘 그들은 얼마전 까지만 해도 락후했던 생산 실적을 회복하고 년간 계획 완수에로 돌진하게 되였다。

해가 질 무렵、룡칠 동무의 그칠 줄 모르는 혁신자들의 자랑찬 이야기며 작업소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산비탈을 내렸다。

그는 이 작업소 전망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이계수 작업소는 지금 네개 벌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직 전체 벌구가 기계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머지 않아 전체 벌구가 전기톱으로 벌목을 하고 제보드까로 집재하여 운재는 대형 뜨락또르로 하게 되는 날이면 지금의 림지에서 三〇년 동안을 채벌해야 되는데 아마도 그 전에 밀림은 정복되고 말 것입니다』

× ×

밀림의 밤、젊은이들은 일터에서 홍

이 겨울 때면 즐겨 부른다는 "벌목부의 노래"를 불러가며 민주 선전실로 모였다.

「오늘 밤엔 시연회가 있는데 구경을 하시지요」일도 잘하고 노래도 명창이라는 리 범히 동무의 말이다. 이들은 당 지도 기관 결산—선거를 경축하여 진행되는 써클 경연 대회에 출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四중창 "유쾌한 로동자" 막간극 "보따리"는 여간한 수준이 아니였다。오락실에는 꼬니、퉁소、북、장기 등의 오락 기구들이 마련되여 있었다。한켠에서는 며칠 전에 보았다는 쏘련 예술 영화 "후보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이였다。이젠 이동 영사대가 왔다 간 다음 날엔 으레히 한자리에 모여 앉아 자기가 본 감상들을 발표하군 하게 되였다。

「요즘엔 좀 추워져서 뜸해지기는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단했습니다。지금 이야기들 한 영화 "후보 선수"에 나오는 선수들의 그런 수준은 못되지만… 하하……、…전번 군 체육대회에선 우리 롱구 팀이 一등을 했습니다」작업소 민청 위원장 한 명남 동무의 자랑 섞인 말을 들으며 밖으로 나왔다。

하루의 일을 끝마치고 돌아온 이곳 산판 마을 젊은이들의 휴식을 즐기는 노래 소리、웃음 소리 뒤섞여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트린다。

밀림 속의 밤은 점점 깊어가는데 여기 一、五〇〇고지 우엔 또 무슨 기적소린가!

「빵 빵…」

경쾌한 기적 소리 산울림 하여 다시 골짜구니로 퍼져 나간다。

가소린 차는 또 구배선을 올라왔다。

「어서 빨리 더 많은 목재를 건설장으로!」이는 그들의 한결 같은 마음이다。

그러기에 창조와 행복을 노래하는 백무 고원에서 유평 기관구 젊은이들은 가슴 벅찬 영예와 긍지를 느끼면서 오늘 밤도 목재를 싣고 령을 내린다。밤도 모르는 사람들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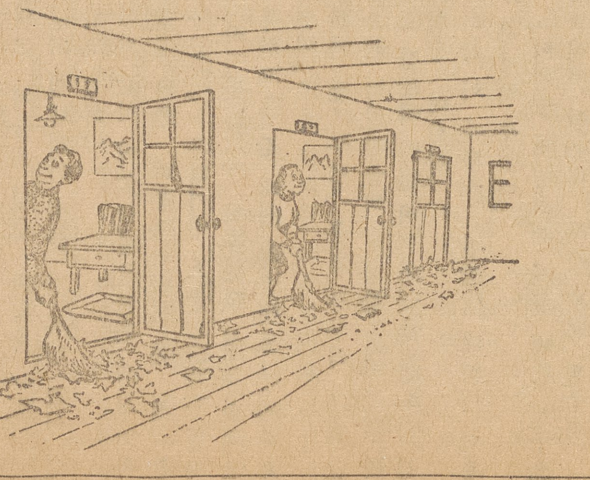
저렇게 쉼없이 운반되여 나가는 목재가 바로 공장들이 되고、학교가 되고、탁아소도、극장도、식당도、그리고 훌륭한 우리들의 주택들이 건설된다는 것을 눈앞에 그려 볼 때 밀림을 정복하는 이들의 로력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더 새롭게 느껴졌다。

뭇별이 하늘을 총총히 수놓은 밤은 점점 깊어갔다。

본사 기자 윤 세 용

우리들의 사상생활

동무—자기 방을 깨끗이 하는 것은 좋으나 여러 사람이 다니는 복도는 어지러워도 좋단 말인가!



그는 왜 탐오하게 되였는가?

박 병화는 농촌에서 나고 자랐다。초급 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一년간 어머니를 도와 농사를 지었다。정전이 되자 그는 자기의 희망이였던 직장 생활을 하고저 평양에 올라 왔다。그는 평양에 있는 고향 선배들의 권고로 어느 국영 백화점 판매원으로 일하게 되였다。

난생 처음인 직장 생활인지라 보는 것、듣는 것、지어 행동하는 것마저 생소하였다。더우기 많은 물품과 숱한 손님을 대하는 판매원 생활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이 적지 않았으나 그는 정직하고 책임성 있게 자기 맡은 일을 성실히 하였다。첫 실사 결과 그가 일한 문방구 매대는 물품의 재고량도 정확하였고 매상고도 높았다。그의 소박한 마음 그대로의 성실한 로동은 오늘이 지나면 래일 일에 자신이 생기는 보람찬 나날이였다。

마음의 변화

병화가 이곳 백화점에 온지도 벌써 두달이 넘었다。

짧은 이 두달 동안에 도시 생활이란 단조로운 농촌 생활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손님을 대하기가 어쩐지 서먹서먹 하고 어색하던 시기는 지나갔으나 반면 그에게는 도시 생활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머리 속에서 움트기 시작했다。하루에도 수 백명을 상대하는 손님 가운데에서도 화려한 옷차림을 하였거나 많은 물건을 사들고 가는 손님을 볼 때면 유달리 눈에 띄우고 부러웠다。그럴 때면 그는 자기도 모르게 「나도 언제나 되면 저렇게 될가?」하는 공상에 사로 잡히는 것이였다。

훈풍이 산들거리는 초 여름이 닥쳐오자 도시는 더한층 화려해졌다。푸른 색으로 짙어가는 초록이며、초 여름의 특색인 가지가지의 물색 옷으로 하여。이렇게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현실에 매혹된 그의 머리 속에는 언젠가 평양에 와 있는 고향 동무가 「평양에서 살자면 옷차림도 잘 해야 하겠드라!」고 하던 말이 대구 회상되는 것이였다。

그때 병화는 이 말에 대하여 완강히 부인했었다。그는 옷차림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은 이미 지났으며 지금 조국의 형편에서 사치를 피우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력설했던 것이다。

사실 병화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주장 대로 옷에 대한 관심을 덜했다。그것은 병화가 농촌에서 사라온 소박성도 있었겠지만、근무시에는 항시 제복을 입고 일하는 까닭에、옷에 대한 자극을 적게 받는 리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화려하고 복잡한 도시 생활을 보아온 이 두달 동안 그는『화려한 옷차림』을 자주 꿈꾸게 되였다。

들뜬 공상의 자그만한 싹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뿌리가 생기고 잎이 돋혔다。병화는 때때로 화려한 옷에 맵씨 있는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자기를 환상해 보군 하였다。문방구 매대에서 환히 건너다 보이는 포목부의 물색 비단 천이며 고급 완피스에 정신이 팔려 손님들이 묻는 말에 대답 못하는 적이 일수였다。

허영에 뜬 공상의 실마리를 더듬은 끝에는『저 매대 물건이 모다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으랴—』하는 부질 없는 욕망이 마음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이였다。그는 어느듯 지나친 몸차림을 부정하는 자기의 주장을 잊었다。연한 화장으로부터 짙은 화장에 더 골머리를 쓰게 된 그는 고향 어머니에게 보내려고 모은 돈을 화장품 구입에 고스란히 쓰고 말았다。

『격차』의 비밀

어느 날 오후였다。 한가한 틈을 타서 병화는 매대의 물전 정리를 하고 있었다。 이때 한 중년 부인이 매대로 왔다。 그 부인은 병화에게 상양한 웃음을 지으며 나즈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처녀 동무、오늘 들어온 전지약을 백곽만 줄 수 없겠소?』

『백곽이라니요? 그렇게는 안됩니다。 전지약은 한 사람에게 두개 이상 못 팔게 되였어요』

『아니 그런 줄야 누가 모르나요?』

『……』

병화는 어처구니가 없어 잠자코 있었다。부인은 좋은 때를 놓칠세라 감아 들었다。

『글쎄 그러지 말고 백곽만 줘요。 내가 다 좋도록 할테니…』

『이런 딱하기라구야… 글쎄 할 수 없는걸 어떻게 한단 말이예요! 그건 안됩니다!』 병화는 딱 잡아뗐다。 그럴수록 그 부인은 더 치근치근히 굴었다。

『그러지 말고 백곽만 줘요。 동무는 전표만 떼면 그만이 아니요? 그러면 내가 어련히 격차를 부쳐 주지 않으리』

『격차라니요? 전 무슨 말이예요?』

라고 그 말의 뜻을 진정 알지 못한 병화는 반문하였다。 부인은 병화가 성난 것으로 알았는지 잠간 서성대다가 아무 말없이 돌아섰다。

병화는 낮모를 부인과의 대화에서 이상하게 들리는 말을 다시 되풀이 하여 보았다。

『좋도록 할테니…』、『격차』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알 수 없는 말이였다。 매대 책임자 김 호령이 들어오자 그는 몇번이나 이 말의 뜻을 알아 보려고 머뭇 머뭇 거렸다。 그러다가 이상한 말을 물어 보는 것 같아서 종시 물어 보지 못하였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는 오늘 있은 일을 다시 상기하여 봤다。 알지 못할 그 말 속에서 희미하나마 그 무엇인가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기로에서

이튿날도 여전히 바빴다。 전날과 같이 손님이 좀 뜸해졌을 무렵、어제 왔던 그 부인이 다시 매대에 나타났다。 그 부인은 이번엔 매대 책임자를 불러 매대 한 모퉁에서 소근소근 무슨 말인지 나누고 있었다。 이윽고 그 부인이 사라지고 한참 만에 매대 책임자 김 호령은 병화에게 지시하였다。

『조금 있다가 어떤 녀자 손님이 오면 전지약 백곽의 전표를 떼시요』

『백곽? 그렇게 많은 수량의 전표를 어떻게 떼나요?』

『응、열곽씩 따루 열번 떼면 되오』

『한사람에게 그렇게 많이 팔아도 일없을가요?』

『아、그건 념려말라니까 아무래도 다 팔아야 할 물건인데 관계 있소?』

『……』 병화는 강경히 나오는 김 호령의 대답에 말문이 막혔다。

…전표를 떼야 옳은가?… 병화는 마음 속으로 망서렸다。 한 사람에게 두개 이상을 팔지 말라는 지시를 어기는 것이 꺼릿겼다。 …전표를 떼지 말자! 아니 매대 책임자가 시킨 일을 어떻게 거역하나?……이것도 마음에 걸리는 일이였다。 …전표를 뗀 다음 혹시 누가 책임을 추궁하면 어떻게 하나。 그때는 매대 책임자가 시켜서 전표를 뗐다구 하지! 왜 나쁜 일인 줄 번연히 알면서 그런 행동을 했는가고 추궁하면 그때는?……

생각이 뒤죽 박죽이 되여 그는 갈피를 못잡았다。 이때 그 부인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찡긋이 웃으며 병화에게 말했다。

『아까 매대 책임자가 무슨 말을 일르지 않아요?』 병화는 언겁결에

『네! 들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병화의 귀에는 누가 『좋도록 할테니 전표를 떼라!』고 웨치는 것 같았다。 때마침 그 부인은 『그럼 저 ― 전표를 …』 말이 채 떨어지기 전에 병화는 재촉이나 받은듯이 전지약 一〇곽의 전표를 열장 떼였다。 부인이 출납구에 돈 물러 간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지지나 않

는가고 병화의 마음은 안절 부절하였다。 부인은 먼저 한장의 전표를 내 놓았다。 거기에는 뚜렷한 『현금 수납』이란 도장이 찍히여 있었다。 열번에 거쳐 백곽의 전지약을 내 줄 때까지 병화는 일분이 한시간 맞자비로 지루함을 금할 수 없었다。 어떻던 일은 무사히 지나갔던 것이다。

폐점 후 매대를 정리하고 뒷문에 나섰을 때 매대 책임자 김 호령이 뒤쫓아 왔다。 김 호령은 병화에게

『많지는 못하지만 용돈에나 보태여 쓰시오』 하군 병화의 쇼루 주머니에 돈뭉테기를 넣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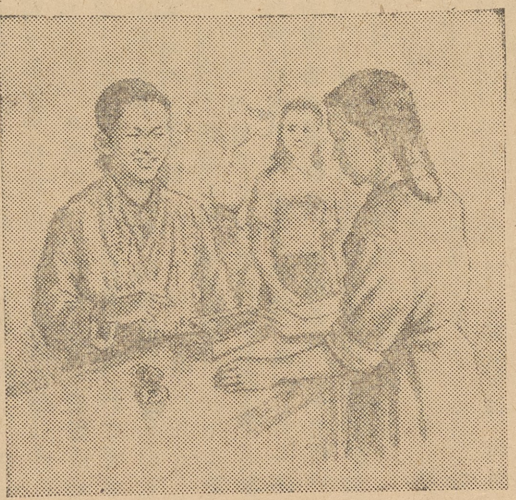
『받을 것인가?』『안 받을 것인가?』

망서리는 사이에 김 호령은 벌써 행길로 걸어 가고 있었다。 제 정신이 들자 병화는 주위를 한번 살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다。 안도의 숨을 내쉰 그는 백화점 뒤뜰악에 나섰다。 어둠 속에서 주머니에 든 돈을 꺼내여 떨리는 손으로 헤여 보았다。 백원짜리 지전 三〇매! 그는 예상 외의 많은 돈임에 놀랐다。 비로소 『격차』의 비밀을 안 병화는 어쩐지 마음이 내키지 않아 그 돈을 쓰지 않고 속 주머니에 간직하여 두기로 하였다。 만일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돈을 내놓을 심사로……

처녀의 정직한 량심의 불길이 아직은 꺼지지 않았던 것이다。

누구의 잘못인가?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은 사람마냥 불안하던 며칠이 지나갔다。 그러나 별일은 없었다。 전지약이 다 팔려도 백화점의 누구 하나 전지약의 "비밀"을 채근하는 사람은 없었다。



혹시 손님들이 전지약을 찾을 때 가슴 뜨끈한 것을 금할 수 없었으나 그것도 하루 이틀의 일이였다。

쉽게 얻어진 돈 三천원(그는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이다)의 사용 방도를 궁리하여 보았다。…세루 스카트、양단 저고리……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고 나니 돈에 대한 욕망이 더 강렬히 솟는 것이였다

며칠뒤 그의 판매대에는 『대동 구레온』이 다량 입하하였다。 질 좋고 값 눅은 『대동 구레온』은 수요자가 많았다。 간상배들은 언제나 약한 고리를 노려 자기들의 간교한 마수를 뻗친다。 병화는 서슴 없이 『대동 구레온』으로 손수 "격차" 놀음을 놀았다。 그는 여기에서 六천원의 돈을 탐오했다。

그의 몸 차림도 거동도 이때부터 눈에 띄우게 달라졌다。 병화는 다만 『촌사람』을 면한 것이 기뻤고、범죄의 구렁에 빠지는 자기를 몰랐다。 그는 자기의 몸 단장을 새로 갖출 때는 『고향 집에서 돈이 왔다』고 연막을 치는 법까지 배웠다。

실사 때에 현품에 차의가 난 일이 몇번 있었으나 그는 자기의 급료로 충당하고는 때 앓은 일로 여기지 않았다。 다음번 "격차"를 믿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그의 생활과 사업 태도에서 틈이 나는 것을 감득하였으나 매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그쳤다。 민청 단체는 병화를 『촌에서 왔다』는 것으로 그의 일상 생활에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그는 지난 一년 기간에 이런 틈을 타서 二만 여원을 탐오했다。

독자들이여! 농촌의 한 소박한 처녀였던 박 병화가 어찌하여 탐오의 길을 걷게 되였는가를 생각해 보자!

과연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물을 것도 없이 그것은 탐오한 박 병화 자신의 잘못이다。 그는 분에 넘치게 화려한 옷차림을 꿈꿨으며 지나친 사치를 바랐다。 낡은 부르죠아 사상 잔재인 허영심에서부터 출발한 그는 개인 리기주의적인 강한 물욕에 사로 잡혀 간상배의 패인과 매대 책임자의 부정 행위에 휩쓸려 들어갔던 것이다。 다른 방면으로는 백화점 행정측이 이와 같은 탐오 행위의 틈을 주지 않도록 이미 수립된 제도와 질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판매원의 대부분이 민청원인 것을 고려할 때 백화점 내 민청 단체가 그들의 생활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이 문화적으로 일하며 휴식하고 검박하고 정직하게 생활하도록 지도하지 못한데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량심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전 인민적 자백 운동이 전개되였다。

이런 때 민청 위원인 림 명숙이 병화의 매대를 찾아 왔다。

「병화 동무! 일이 끝난 다음 민청 학습회가 있어! 오늘은 꼭 참가해야 돼!」 병화는 가슴이 뜨끔하였다。 자백 사업에 대한 학습이 시작되자 참가하기가 매우 마음이 저렸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병화는 요지음 마음이 순탄치 않으며 우울해졌다。 지난 기간 탐오하여 갖춘 몇가지 옷도 그는 입지 않기로 결심하고 걸어 넣은지 달포가 넘었다。 그렇게 해 보았어도 어둡 컴컴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다。 …자백할가? 내건 누구도 모를께야、같이 있던 매대 책임자도 다른데로 가고 그 장사치 아주머니 얼굴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숨겨 두자…… 이런 심사로 요번 학습회에도 꼴 아픈 핑계를 대고 참가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꼭 참가해야 돼!」라고 한 민청 위원의 말은 그에게는 「오늘 저녁엔 꼭 자백하라!」는 말과 같이 들렸다。

병화는 학습회에 참가하였다。 탐오를 자백한 사람들을 지명하며 학습회 지도자가 해설하는 것을 듣는 그의 마음은 바늘 방석에 앉은 감이였다。 「자백하면 관대히 용서한다」는 말에 그는 몇번이나 토론하려다가 주저 앉았다。

그날 저녁도 종시 자백할 용기를 못 가졌다。 그의 괴로움은 더욱 심해 갔다。 이미 자백한 방 명옥을 볼 때 자기의 죄과가 더욱 커 감을 자인했다。 가슴 속에서의 전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치렬하였다。

더는 량심을 속이고 살수가 없었다!

그는 자발적으로 민청 위원장을 찾아 자기의 자백서를 내놓았다。 그리고 글로써는 표현하기 어려운 자기의 심정을 민청 위원장에게 고백하였다。

「위원장 동무! 나는 내 량심을 속이고는 괴로워서 못 산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깊이 깨달았습니다。 상점에 찾아 오는 손님들 중에 수수한 옷 차림을 한 분을 볼 때마다 내가 저분보다 무엇이 나은 것이 있는가? 이럴 때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부끄러움을 느끼군 했습니다。 나는 나 혼자만이 잘 쓰고 잘 입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며 이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내가 국가와 인민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비로소 뼈 아프게 알았습니다」。

「병화 동무! 참 잘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동무가 반드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과거의 그릇된 점을 용감히 자백하고 앞으로 일에서 열성을 다 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민청 위원장의 이 말에 그는 어깨의 무거운 짐이나 부리운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하늘에라도 날아 올라 갈듯이 가벼웠다。 그는 어둡 컴컴하던 마음 속에 온 거리의 휘황한 불빛이 온통 쏟아져 들어 옴을 느끼는 것이였다。

본사 기자 김 성진

정정

본 잡지 一一호 목차의 一七행과 二八폐지 二二행의 박 준모를 남 윤순으로 정정함。

선전원들에게 주는 참고자료

현 계단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 임무는 무엇이며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은 무엇인가?

허 갑

현 계단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 임무는 무엇이며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한다는 것은 옳은 혁명적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옳게 파악하려면 먼저 다른 기본 문제들、즉 八·一五 해방 직후부터 현 계단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에서 혁명 투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발전되여 왔는가 하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위대한 쏘련 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직후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 민주주의 혁명 운동이 개시되였다。

해방된 조선 근로 인민은 자기의 운명을 지주나 자본가들에게 위탁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우리 조국이 또다시 봉건 사회나 자본주의 사회로 되돌아 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으며 또 용허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지도되는 조선 로동당은 조선에 민주주의적인 인민 공화국을 창건하며 그러기 위하여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 개혁을 실시하며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 발전시킬 임무들을 전 인민적 로선으로 제기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혁명 투쟁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으며 인민 공화국 창건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은 용이하지 않았다。왜냐 하면 미 제국주의 자들이 우리 조국 남반부에 상륙하여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이였다。 이 사실은 우리 민족에게 또다시 식민지 노예화의 위협을 가져왔다。 만일에 우리 인민이 식민지 망국노의 쓰라린 비운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결정적인 투쟁 대책이 필요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조선 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어떤 외래 제국주의 침략도 용허하지 않는 부강한 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면 무엇보다도 북조선을 우리 조국 민주화의 튼튼한 기지로 전변시켜야 되리라고 인정하고 민주 기지 창설 로선을 제시하였다。

민주기지 창설은 어떻게 가능하며 민주기지란 어떤것인가? 그것은 우리 인민의 강력한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인 로동당과 그가 령도하는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혁명 력량이 존재하고 쏘련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모든 유리한

조건들이 북조선에 보장되였기 때문이다。 민주 기지—그것은 북조선을 행복한 민주주의적 락원으로 만들며 우리 혁명 투쟁 력량의 튼튼한 근거지임을 의미한다。민주 기지—그것은 전국 인민을 완전히 해방하며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인민 공화국 창건의 튼튼한 토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 기지 창설을 위한 로동당의 로선은 전체 조선 인민의 민족적 리익과 완전히 부합되였다。 이때로부터 조선 인민은 로동당과 김 일성 동지의 령도하에 북조선에 민주 기지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에 들어섰다。

그러면 공화국 북반부에 민주 기지는 어떻게 창설되였으며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은 어떻게 수행되였는가? 민주 기지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제반 민주 개혁이 필요하였다。 왜냐 하면 민주 개혁을 실시하지 않고서는 일제 잔재와 봉건 잔재를 청산할 수 없으며 파괴된 산업과 농촌 경리를 부흥 발전시킬 수 없으며 근로 인민을 빈궁과 기아로부터 구원할 수 없었다。 민주 개혁을 실시하지 않고는 부강한 민주주의 독립 국가를 건설할 기초를 닦을 수 없었다。 지주 계급이 농민 대중을 착취 억압하며 독점 자본가가 로동자들을 략탈 착취하며 녀성들이 온갖 굴욕과 천대를 받으며 부패한 자본주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는 도저히 없다。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로 되자면 무엇보다 지주 계급을 청산하고 토지를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주어야 하며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예속 자본가들이 소유하였던 모든 공장、광산、철도、운수、은행 등 생산 수단을 인민의 손에 넘겨 가져야 하며 남녀 평등을 실시하고 교육과 문화 및 기타 사회생활、모든 부문에 거쳐 철저한 변혁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혁명적 변혁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는가? 그것은 곧 근로 인민의 수중에 장악된 국가 권력、즉 인민 정권이였다。 북반부 근로 인민은 로동당의 령도하에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를 수립한 후 토지 개혁、중요 산업 국유화 등 제반 민주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민주 개혁의 성과를 보장하고 인민의 생명 재산과 국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민 무장력 준비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리하여 북조선에서 농촌은 지주가 없는 농민들의 농촌으로 되였으며 공장、기업소、운수、은행들은 인민의 리익과 조국의 륭성을 위해서 복무하게 되였다。 로동 계급은 독점 자본의 착취에서 해방되며 자유로운 창조적 로동을 하게 되였다。이전에 조선 인민을 착취 억압 탄압하던 제국주의적 압박과 착취와 봉건 제도의 잔재는 북반부에서 영원히 청산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이 완수되고 북조선이 조국의 통일 독립을 보장할 거대한 물질적 력량으로 전변되였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반제、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을 수행한 북반부는 어떤 사회로 변했는가? 북조선은 식민지 반봉건 사회로부터 인민 민주주의 사회로、즉 이전에는 일제와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 자본가들이 날뛰였던 사회로부터 이제는 로동자、농민 근로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된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변하였다。 이와 같이 로동당과 김일성 원수의 령도하에서 북반부 인민들은 민주 기지를 창설하였다。 이때로부터 북반부는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들어섰다。

그러나 민주주의 제도하의 북조선과는 정반대로 남반부의 인민들은 오늘까지도 기아와 빈궁에서 헤매이고 있다。그것은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리 승만 역도 때문이며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 때문이다。미국은 소수 역

만 장자들이 주권을 장악하고 자국의 로동자、농민 등 근로 인민을 억압 착취하는 국가이며 타국의 령토와 인민을 략탈하며 노예화하는 국가이다。 미제는 침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언제나 략탈 전쟁을 도발하며 세계 로동 운동과 민주 운동을 말살하고 자유와 독립에 대한 인민들의 지망을 유린하는 세계적 헌병이다。 미제는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 바로 그와 같은 략탈과 착취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온갖 야수적 반동적 정책을 감행하고 있다。 미제는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리 승만「정권」을 조작하였다。

그러면 리 승만「정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미제 침략 세력의 조선 침략의 도구이며 조선 민족 분렬의 도구이다。 리 승만「정권」은 반동적이며 반 인민적이다。왜냐 하면 그「정권」이 인민의 것이 아니라 인민의 극악한 원쑤인 지주、예속 자본가、친일파、친미파、민족 반역자 도당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정권」이 로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농민에 대한 지주 계급의 착취를 옹호하며 인민들에게서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의 일체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미제와 리 승만「정권」통치하의 남반부는 인간 도살의 생지옥으로 되여 있다。

남반부 사회、경제 제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의 남반부는 미제의 식민지이다。 남반부 경제 제도는 일제 시대와 꼭 마찬가지로 식민지적 반봉건적 경제 제도이다。거기서는 토지가 지주의 수중에 집중되여 있으며 공장、광산、은행 등 중요 산업 부문이 미국 독점 재벌과 민족을 반역한 예속 자본가들의 수중에 집중되여 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농민이 어찌 자유로울 수 있으며 이런 제도하에서 어찌 로동 계급에게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로동자와 농민들 뿐만 아니라 수공업자、소상인、사무원、학생、과학자、예술가、등 광범한 계층과 일부 민족 자본가들 까지도 날로 파산 몰락하여 빈궁과 기아 선상에 헤매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참한 남반부 인민들의 처지는 해방 후 一〇년간이나 계속되였다。미제 침략자들이 둥이를 틀고 있으며 리 승만 괴뢰「정권」이 존재해 있는 한 남반부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은 더욱 커지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전체 조선 인민의 크나큰 불행이다。오랜 력사를 가진 단일한 우리 민족은 이와 같은 비참한 민족적 분렬의 불행을 당해본 때는 없으며 우리는 이 불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조선 인민은 당과 수령의 령도하에 이 불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방 후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조국 통일을 위한 꾸준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 까지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숙망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전체 조선 인민의 한결 같은 숙망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최후 발악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로부터 현 계단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 임무가 무엇인지 명백히 규정되는 것이다。 우리의 기본 임무는 조국의 통일과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우리는 지금까지 투쟁해온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여야 되며 보다 강화해야 되는 것이다。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은 우리의 최대의 민족적 과업이며 우리 혁명의 당면 중요 임무이다。 모든 것은 조국 통일을 위한 임무에 복종되여야 하며 모든 우리의 활동은 오직 조국 통일을 위한 위업에 바쳐져야 한다。

그러면 조국 통일을 실현하자면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우리 혁명의 원쑤는 누구인가? 우리의 원쑤

는 미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그와 야합한 지주, 예속 자본가, 친일파, 친미파, 민족 반역자들이다. 우리의 원쑤인 미제 침략 세력과 국내 반동은 서로 긴밀히 결합되여 있다. 두개의 적과 싸우자면, 즉 우리 조국 강토에서 미제 침략 세력을 타도 구축하자면 국내 반동을 타도해야 되며 국내 반동을 처 없애자면 미 제국주의 자들의 침략 세력을 격멸 구축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두개의 적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주되는 원쑤는 누구인가? 그것은 미제국주의 침략 세력이다. 왜냐 하면 미제 침략자들이야말로 한줌도 못되는 국내 반동의 부축자이며 一〇년간 조선 통일을 극력 반대, 방해한 극악한 원쑤이기 때문이다. 보잘 것 없는 반동 세력의 존재는 오직 미제의 총검의 비호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만일에 미제의 간섭이 없고 조선 사람끼리 조선의 통일 문제를 해결하게 되였더라면 강대한 민주—혁명 력량 앞에서 지주, 예속 자본가, 친일, 친미파, 민족 반역자 도당들이란 대해의 물거품과도 같이 사라진지 오랬을 것이다.

그런즉 미제와 국내 반동을 타도하는 우리 혁명의 임무는 무엇이며 혁명 성격은 어떤 것인가? 우리 혁명은 이 두개의 적들을 타격하여 미제를 구축하여 남반부를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하는 반 제국주의적 민족 해방 혁명이며 지주, 예속 자본가들의 도당인 리 승만 도당의 반동적, 반인민적 통치로부터 남반부 인민들과 농민을 해방하는 반봉건적 민주 혁명인 것이다.

이 혁명의 임무는 미제 침략으로부터 조선 인민의 완전한 민족적 해방을 달성하며 대내적으로는 봉건적 착취와 압박으로부터 남반부의 농민 대중을 완전히 해방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이 두개의 임무가 서로 결합된 것이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이다. 이 두개의 임무는 서로 분리할 수도 없으며 또 분리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혁명에 있어서 추동력은 누구인가? 우리 혁명의 령도자는 누구이며 우리 혁명의 동맹자들은 누구인가?

우리 혁명의 령도적 력량은 다름아닌 로동 계급이다. 왜냐 하면 오직 로동 계급만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선진적인 사회, 정치적 세력이기 때문이다. 그는 선진적 경제 형태와 련결되였으므로 혁명적이며 조직적이다. 그는 자기의 종국적 목적인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장애물인 제국주의 식민지적 압박의 청산과 봉건적 잔재를 반대하는 민주주의 혁명 운동에 누구보다도 커다란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운동은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서라야만 완전한 승리에 도달할 수 있다. 로동 계급이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을 령도한다는 것은 그 혁명의 승패를 좌우 하는데만 문제가 달린 것이 아니다. 민주 혁명이 승리한 후 계속 사회주의 혁명에로 전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혁명에서 기타의 동력들은 누구인가? 우리 혁명의 기타 동력은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소자산 계급이며 일부 적지 않은 반제, 반봉건적 민족 자본가들과도 같이 투쟁을 진행할 수 있다.

어찌하여 농민은 우리 혁명의 동력인가? 왜냐 하면 농민이 자유와 토지를 얻기 위해서는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을 승리해야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농민을 억압 착취하는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자들, 지주들을 그냥 남겨두고 지주의 토지소유 제도와 봉건적인 소작 제도를 남겨 두고서는 농민이 도저히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므로 농민은 이 혁명에서 커다란 직접적 리해관계를 가진 계급이며 따라서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 혁명에 적극 참가한다.

기타 도시 소자산 계급도 우리 혁명의 동력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제국주의자들과 봉건적 지주와, 예속 자본가들의 착취와 억압을 받아온 이 광범한 소자산 계층은 반제 반봉건적 민주혁명 과업을 완수하여야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북반부에서 이미 확증 되였다. 오늘 남반부의 광범한 소 자산 계급이 자기의 불행을 제거하려면 미제의 침략, 그리고 리 승만 도당의 략탈과 착취 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에 궐기하여야 한다. 그런즉 그들은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우리 혁명에 참가한다.

우리 혁명에서 적지 않은 민족 부르죠아지들이 우리와 같이 싸울 수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써 설명되는가? 민족 자본가는 예속 자본가가 아니다. 예속 자본가는 미제의 주구이며 인민의 원쑤이며 매국노들이다. 그러나 민족 자본가는 미제를 배격하며 미제를 증오한다. 왜냐 하면 미제 독점 자본가들 때문에 그들은 자유로운 경제적 활동을 전개할 수 없으며 심지어 외래 자본에 의하여 날로 파산, 몰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족 자본가들의 운명은 두 길중의 하나이다. 그들이 자유를 얻자면 외래 침략 세력과 싸우던가 그렇지 않으면 파산, 몰락, 멸망하던가 하는 것이다. 민족 자본가들은 이 두 길중에서 항상 동요한다. 그러나 인민의 혁명적 력량이 강대하고 혁명 운동이 장성할 때는 그들이 멸망할 것을 원치 않고 미제와 싸우기를 결심하는 것이다. 그들은 일정한 정도, 일정한 시기, 인민 대중의 편에 서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운동에 참가한다.

이것이 우리 혁명의 추동력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가 추동력을 강화하자면 로동 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을 튼튼히 강화하고 그 기초 우에서 각계 각층 애국적 민주 력량을 단합시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을 백방으로 강화하라는 경애하는 수령의 교시는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것이다. 때문에 조국 전선을 강화한다는 것은 다름아닌 우리 혁명의 추동력 강화에 대한 문제이며 우리 혁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는 현 계단 우리 혁명의 기본 임무와 혁명의 성격 및 이와 관련된 혁명의 대상과 동력 문제의 기본을 인식하였다.

여기로부터 우리는 우리 혁명의 기본 임무인 조국 통일 위업, 즉 반제, 반봉건적 혁명 과업의 종국적 완수를 위하여 목전에 하여야 할 투쟁 과업을 말할 수 있다. 우리의 혁명 임무를 완수하며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어떻게 투쟁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혁명 력량을 일층 강화하여야 된다. 우리의 혁명 력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북반부에 설정된 인민 민주주의적 혁명 근거지인 민주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체의 살림을 튼튼히 가꾸지 않고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민주 기지를 정치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인민 민주 제도의 정치적 우월성을 백방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민주 기지를 경제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사회 발전 법칙에 따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기초 건설 사업을 진행함을 의미한다. 강력한 공업과 농업의 발전이 없이 우리의 경제력을 강화할

수 없다。

그와 같은 강력한 공업과 농업을 가지자면, 사회주의 기초 건설 이외에 딴 방법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북조선 사회、경제 발전 법칙은 벌써 이것을 요구하였으며 우리는 지금 이에 기초하여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며 농업을 협동화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력량의 장성은 우리 혁명 수행과 조국 통일의 결정적 담보로 될 것이다。 민주 기지를 정치 경제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민주 기지를 군사적으로 강화한다는 것과 떼여 놓을 수 없다。 우리는 위력 있는 국방력을 가져야 하며 우리 인민 군대를 정예한 간부 군대로 육성 단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북반부가 불패의 력량으로、또한 고도로 발전한 민주주의 락원으로 변할 때만이 우리 혁명 력량은 강대해질 것이며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할 것이며 적들을 능히 타승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왜냐 하면 쇠퇴와 몰락의 길을 밟고 있는 미제의 최후 발악적 간악성은 심하며 그에게는 방대한 략탈적 경제력과 침략적 군사 력량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기적인 간고한 전 인민적 투쟁을 통해서라야 혁명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각오와 결심、그리고 자기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확신하고 종국적 승리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당과 정부와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모든 사업에서 충실성과 헌신성을 유감 없이 발휘하자。



혹심한 전력 기근의 남조선


전력이 풍부한 북조선

오늘 남반부 인민들과 산업계는 전기기근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8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전기상은 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남조선에 전력을 즉시 공급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주구 리 승만은 이를 반대하여 가정에서 하루에 2시간 이상 전기를 켤 수 없게 하는 소위 전기 「비상 대책」을 강요하고 있다.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신 균

××××

본 잡지 편집부는 독자들로부터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에 관한 질문들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몇가지 문제의 해답을 다음에 게재한다。

××××

문 로동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인간 생활에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 것입니까?

답 인간이 생활하는 데는 필요한、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인간이 주위 자연을 리용하여 자기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획득하며 창조해 내며 자기 생활에 편리하고 유익하게 주위 자연을 변경시키는 활동、이것이 곧 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즉 로동은 인간에게만 있고 동물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동은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차이의 하나로 되며 인간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조건이며 첫째가는 행복의 원천입니다。

문 그러면 과거에는 로동이 왜 천한 것으로 간주되였습니까?

답 로동은 이와 같이 인간 생활에서 귀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류 력사의 어떤 시기、어떤 사회에서나 다 같이 사람들이 그 의의를 정당하게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인류 력사의 첫 단계、즉 아직 계급도 착취도 없었던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로동을 그의 원래의 의의대로、즉 가장 귀중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거기에서는 많은 로동、어려운 로동을 하는 사람、로동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영예와 존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계급들로 분렬되고 사유 재산 제도와 국가가 발생한 다음으로부터는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들은 육체 로동에는 종사하지 않고 생산을 지휘하며 국가、사회를 통치하는 사업、즉 정신 로동에만 종사하면서 남의 로동을 착취하게 되였으며 생산 수단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 로동에만 종사하면서 가혹한 착취를 당하게 되였습니다。

계급 사회에서 착취 계급은 지배 계급으로서 부유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자니 지식도 소유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피착취 계급은 피지배 계급으로서 빈궁하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다 보니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자연히 무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습니다。

이러한 데로부터 지배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신분상、직업상 고귀한 사람들로 간주되고 피지배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신분상、직업상 미천(微賤)한 사람들로 간주되게 되였습니다。 따라서 지배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종사하는、힘들지 않은 정신 로동은 고상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지배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종사하는 고된 육체 로동은 천한 것으로 간주되게 되였던 것입니다。 사람을 착취하며、억압하기 위해서는 착취자들은 정신 로동과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고귀한 것、신성한 것으로 선포하고 착취의 대상인 육체 로동과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미천한 것으로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계급 사회에서는 육체 로동이라면 곧 천한 일로 인식하게 되였으며 정신 로동은 「고상」한 것 같이 인식되게끔 되였습니다。 더우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로동이라면 보통 산업에서의 고용 로동을 의미하게끔 되여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로동은 인간에게 행복의 원천으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착취자들은 오히려 로동과 로동자들을 천시합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이러한 모순은 착취자들과 착취 제도를 청산하는 사회 제도、즉 사회주의 또는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만 해소되는 것입니다。 로동이 착취와 예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사회 제도하에서만 로동과 로동자들은 계급 사회에서 잃어 버렸던 자기의 진정한 의의와 정당한 위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거기에서 로동은 진정으로 생존의 원천으로 될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령감과 행복의 원천으로도 되는 것입니다。

문 그러면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과의 차이는 어데 있습니까。

답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웨·쓰딸린이 명백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미 우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육체 로동자들은 피착취 계급에 속하며 정신 로동의 대표자들은 착취 계급에 속하는 만큼 계급 사회에서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대립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신 로동의 대표자들이 육체 로동자들을 착취하기 때문이며 또 착취 계급에 속하지 않는 정신 로동자들도 많은 경우에 착취 계급에 복무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립은 쓰딸린이 가르친 바와 같이 도시、농촌 간의 대립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혁명、또는 인민 민주주의 혁명이 착취자들、착취 체제를 청산함과 동시에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는 사회주의、또는 인민 민주주의 하에서도 갑자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의 기본적인 것은 문화—기술적인 차이 입니다。 보십시요、례하면 자본주의 하에서 기업소의 지배인、기술자、고급 사무원 등 지도층과 생산 로동자들 사이、착취 계급에 복무하는 국가 관리들、학자、기타 문화 예술인들과 육체 로동자들 사이에는 문화 정도、기술 수준、생활 형편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쏘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승리、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의 촉진—사회주의적 생산과 기술의 부단하고 급속한 장성、근로자들의 물질적、문화적 생활의 부단한 향상에 따라、특히 육체 로동자들의 문화—기술 수준이 기술인들、문화인들의 문화—기술 수준에 까지 제고됨에 따라、생활 조건의 균등화에 따라 이 차이도 점차 소멸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로동 조건의 차이에서 오는 부

차적인 차이가 남을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도 물론、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남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로동 계급은 해방 이후 공화국 북반부에서 산업이 국유화된 조건하에서 국영 기업소들에서 로동하면서 조선 로동당과 인민 정권의 인민적 시책하에 급격히 자기들의 문화—기술 수준과 생활 수준을 제고하였으며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로동 계급이 청소하고 일제 통치 하에서 기술이라고는 거의 전혀 배우지 못하고 문화—기술적으로 너무나 낮은 형편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아직도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에는 문화—기술 수준의 차이가 상당하게 남아 있습니다。

문 그러면 이러한 조건하에서 우리 청년들은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까?

답 오늘 우리 인민의 물질적、문화적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며 북반부 민주 기지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가일층 공고화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부강하고 꽃피는 조국 건설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나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간의 본질적 차이가 소멸하는 그러한 사회의 실현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우선 요구되는 것은 첫째로도 생산과 건설이며 둘째、세째로도 생산과 건설입니다。

생산과 건설——이것은 바로 인민의 자각적이며 헌신적인 로동、특히 육체 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니만큼、또 이렇지 않아도 착취를 반대하며 인민의 복리를 보장하는 것을 최고 목적으로 하는 인민 민주 제도의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오늘 공화국에서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로동、특히 육체 로동에 대하여 최대의 영예를 드리고 있으며 또 광범한 근로 대중、특히 근로 청년들은 조국의 번영과 자기들의 행복을 위한 영예로운 로동에 애국적 헌신성과 갖은 창발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국가 계획 과제를 기한 전으로 완수 및 초과 완수하며 창의 창발성을 발휘하여 국가에 막대한 리익을 주는 수많은 개별적 로동 청년들과 민청 청년 브리가다원들의 빛나는 로력 위훈들에 대해서는 신문 지상에서 매일과 같이 보는 바입니다。

생산과 건설의 로동、육체 로동에 대한 자각적 태도、이것은 오늘 청년들에 대한 조국과 인민의 첫째가는 요구입니다。 그것은 또한 청년들의 최대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직 우리 청년들、특히 일부 지식 청년들 사이에는 간혹 육체 로동을 천한 것、귀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기피하려 하며 정신 로동、혹은 사무 로동과 같은 간접 로동만을 고상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실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낡은 착취자적 사상과 습성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수치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사무 직장 일부 청년들이 복구 건설、또는 생산 작업 협조를 위한 로력 동원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지 않으며 학교들에서 실험과 실습에 흥미를 가지지 않고 이를 태만하는 사실들은 벌써 로동——육체 로동에 대한 낡은 태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동이 그 본래의 의의를 가지게 되였고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된 오늘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계급 사회에서와 같은 천한 로동과 고상한 로동、하급 로동과 상급 로동의 구별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 생활을 위하여 더욱 필수적인 생활 자료를 직접으로 생산하는 생산 로동이 더욱 귀중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공화국의 로동 정책과 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실

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부강하고 번영하는 새 조국 건설、인민의 꽃피는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주의 기초 건설은 바로 전체 인민의 자각적이며 헌신적인 로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오늘 새 조국 건설、사회주의 기초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이며 미래의 주인들인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도 로동을 애호하며 존중하는 의식과 품성으로 습관되여야 합니다。

문 그러면 로동을 애호、존중하는 의식과 습성을 배양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입니까?

답 로동을 애호하며 존중하는 의식과 습성은 무엇보다도 실지로 로동을 체험하는 행정에서 배양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로동의 국가적、사회적 의의를 인식하고 그것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거기에서 행복과 긍지와 영예를 느끼는 새로운 의식과 자각적인 태도는 전 인민적、또는 집단적 소유에 기초하는 국영 경리、또는 협동 경리들에서의 집단적、사회적 로동 행정에서 더욱 잘 배양되고 훈련되는 것입니다。

로동에 대한 자각적 태도와 창발성과 영웅성은 애국주의의 훌륭한 표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생산 직장、건설장들은 인민 대중의 애국주의가 일상적으로 표현되는 첫째가는 장소이며 호상 협조와 공동의 앙양을 지향하는 집단주의가 실천되는 첫째가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애국주의와 집단주의의 학교인 생산 직장、건설장들은 청년들을 로동에 대한 새로운 의식과 습성으로 훈련하는 가장 좋은 학교로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동에 대한 자각적 태도와 긍지감을 배양하는 데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모든 종류의 로동에서 부단히 기술、기능 수준을 제고하며 창발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자극을 주며 조건을 지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의식적으로 새 조국、새 사회를 건설하는 우리의 로동에서는 과거 일제 통치하에서의 『막벌이』 로동과 같이 로동력만 혹사하는 로동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오늘 산업과 운수에서는 물론 농업에서도 수산과 림산에서도 기술、기능 수준 제고와 선진 기술 도입、보급에 부단히 노력하며 힘드는 로동을 기계화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백방으로 제고하며 로동력과 국가、사회 재산을 애호 절약하여 생산 원가를 저하시켜 국가와 인민에게 보다 많은 리익을 주는 것이 로동에서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되여 있습니다。 엔·까·끄룹쓰까야가 지적한 바와 같이 청년들은 손으로만 일할 것이 아니라 『머리와 손으로써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와、그리고 이 요구가 실현되도록 조건을 지어 주는 것은 로동에서의 주인다운 태도와 긍지감과 따라서 헌신성과 창발성을 배양 훈련하는 조건으로 될 것입니다。

로동에 대한 애호、존중의 의식과 습성을 배양하는 데는 생산 직장과 건설장들에서의 실천과 동시에 부단한 사상 교양 사업이 동반되여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

오늘 새로운 환경하에서의 로동의 의의와 가치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침투시키는 동시에 계급적、혁명적 의식과 애국주의、집단주의의 사상、국가、사회 재산에 대한 애호 절약의 정신、앞날에 대한 혁명적 락관주의 의식 등 청년들의 정치 사상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로동에 대한 새로운 의식과 태도는 정치 의식 맑스—레닌주의 의식과 불가분적으로 결부되여 있으며 정치 의식、맑스—레닌주의 의식이 확고하여지면 질수록 로동에 대한 새로운 의식과 태도는 더욱 확고하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생지식

근시와 원시

눈의 정지 상태에 있는 굴절에는 정시、근시、원시、란시의 네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 근시와 원시에 대해서만 간단히 이야기 하기로 하자!

정시라는 것은 평행 광선 (무한히 먼 거리에 있는 광점으로부터 오는 광선)이 망막우에 정확히 초점을 맺는 것이며 (그림 二참조) 이것이 망막면 보다 앞에서 초점을 맺는 것을 근시라고 한다。(그림三 참조) 반대로 망막의 후방에서 초점을 맺을 때 이것을 원시라고 한다。(그림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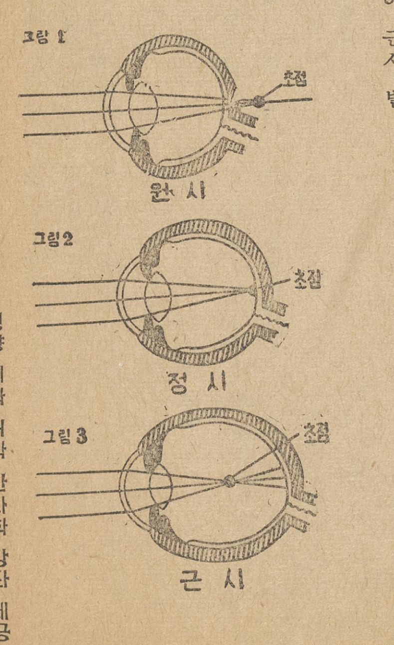
보통 사람들은 출생 당시에는 원시 상태인데 이것이 점차 정시、또는 근시로 된다。 이 이행은 성장기에서 완성된다。 즉 안구의 성장은 전후 안축을 증대시키며 이때 망막우에 초점이 형성됨에 필요한 크기를 넘어서 전후 안축이 증대된다면 근시가 일어나게 되며 눈의 발육이 불완전 할 때에는 원시 상태로 정지된다。

눈의 성장은 보통 二〇—二五세에서 끝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눈의 광학 체계의 전굴절력에 비하여 안축이 길던가 (근시) 짧던가 (원시) 또는 안축은 정상이나 굴절력이 과도하던가、혹은 약하던가 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여기서 전자를 축성 근시 또는 축성 원시라고 하며 후자를 굴절성 근시 또는 굴절성 원시라고 말한다。 보통 가장 많이 보는 근시는 축성 근시이다。 근시안을 가진 사람은 먼 곳에 있는 물체를 잘 보지 못하며 두통이 있고 눈이 앞으로 뛰여 나오고 고도 근시인 경우에는 눈 속에 여러가지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원시인 경우에는 책을 읽을 때 자주 두통이 생기며 원시도가 심하면 먼 곳까지 잘 보이지 않으며 눈알도 적다。 다음 근시가 발생되는 원인을 본다면 출생할 때부터 근시안인 사람은 드물다。 많은 경우에 근시안인 량친에게서 출생한 아이들이 쉽게 근시로 된다。

근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은 대개 학년기인바 그것은 근거리 작업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특히 발육 시기에는 불합리적인 조명 독서 거리 및 자세 등에 관계된다。 또한 몸시 흔들리는 뻐스라던가 전차 안에서 책을 읽는 것도 나쁘다。 이러한 것들이 근시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근시 및 원시의 료법은 일단 발생한 안구의 변화된 형태는 고칠 수 없고、근시안에는 凹렌즈、원시안에는 凸렌즈의 안경 교정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시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근시의 예방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면 근시가 가장 발생하기 쉬운 인민 학교、초중、고중、시대의 학생들에게 철저한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선 근시를 근절시킴에 있어서 큰 역할을 노는 학교 위생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것은 첫째로 근거리 작업에 유해롭지 않도록 책상、의자 등의 구조를 규격대로 보장할 것이며、둘째로 실내에 충분한 조명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조명이 실내에 균형적으로 배당되도록 할 것이며、세째로 작은 활자로 인쇄한 책들을 될수록 사용하지 말 것이며 끝으로 지나친 지속적인 공부를 삼가하는 것이 좋다。

우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세밀하고도 지속적인 근거리 작업은 해롭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에는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고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거리는 三〇센치메터 내외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평양 의학 대학 안과학 강좌 제공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사랑、결혼、가족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은 낡은 사회에서 녀성을 얽매여 놓고 있던 쇠사슬로부터 그들을 완전히 해방시켰다。 녀성들은 사회 생활의 정치적、경제적、법률적 방면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얻었다。 그들은 재 사회 건설의 모든 부문에 참가하고 있다。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쏘련의 법령들은 녀자의 남자에 대한 모욕적인 법률적 예속에서 녀자를 해방시키고 결혼 관계에 원칙상 새로운 성격을 부여하였다。 동시에 쏘베트 정권은 모성 및 유아 보호에 관한 대책을 실현시키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러하여 새로운 참으로 인간다운 남녀 관계를 위한 조건들이 조성되였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결혼과 가족 조직을 위한 새로운 토대가 창설되였다。 견고한 가족 창설의 담보로 되는 쏘베트적 결혼의 원칙적 토대는 물질적 타산도 아니고 량친의 강제도 아니고 종교적 편견도 아니다。 그것은 애정에만 립각한 것이 아니라 생산적、문화적 리해 관계의 공통성、사상—정치적 견해의 통일에 립각한 호상 간의 진정한 사랑이다。 이러한 가족은 쏘베트 국가가 창설된 초기에 벌써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수백년 수천년에 거쳐 배양된 제 관계는 일조 일석에 근본적으로 분쇄될 수는 없다。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후 최초 수년간 쏘베트 정부의 법령에 의하여 녀자의 지위에 위대한 개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닌은 이 개혁들을 단지 미래의 건설을 위한 개척으로 보았을 따름이오、아직 그 건설 자체로서는 보지 않았다。

두말할 것도 없이 녀자는 항상 남자에게 대한 사랑의 자연적 결과를 자체에 지니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애기를 낳고 기르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린애를 돌보는 일은 대부분 녀자에게 부과되며 아이가 어린 때에 특히 그러하다。 이런 리유 때문에 녀자는 로력과 지식의 여러 분야에서 당연히 남자보다 뒤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인 새 생활을 건설하는 투쟁과 로력에 있어서 자기의 전투적 전우로 되는 녀자에 대한 남자의 태도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급속한 전환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사회주의적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의 녀자의 창조적 활동 능력을 평가하는 방면에서는 이러한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였으나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전환이 대번에 수행될 수 없었다。 녀성 해방은 많은 남자들과 일부 녀성들에 의하여 다소 그릇되게 해석되였으며 쏘베트 국가가 수립된 초기에 특히 그러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유를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아무런 조성도 당하지 않는 련애의 자유라고 생각하였다。 련애에 대한 이러한 견해、가련한 『자유 련애』론자들이 설교하던 본질상 소 부르죠아적인 견해는 도덕에 관한 맑스주의적 리해와 아무런 공통점도 없는 것이다。

레닌은 련애를 마치 물잔에서 물을 마시는 것 같은 간단한 일、늘상 개인적인 일이

라고 단정하며、련애는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듯이 간단하게 만족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소위 『물 한잔론』에 대해서 맹렬하게 반대하였다。 레닌은 남녀 관계、가정 문제、가족 관계의 견고성에 관한 문제가 결코 사회와 떨어지거나 또는 사회적 감독을 면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사회와 극히 긴밀한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자기 부모의 경솔한 행위로 인하여 고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편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도록 행동할 것을 사회 성원들에게 사회는 응당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레닌이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큰 의의를 부여한 또 한가지 리유는 그가 상술한 『리론』들이 청년들로 하여금 혁명적 투쟁에 필요한 정력을 랑비케 하는 유해한 리론이라고 본 데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성적 애착은 보통 로골적인 생물학적 형식을 띠지 않고 극히 복잡한 심리 상태와 관심에 가리워 음폐된 형식으로 나타나며 고상한 사상적 동기에서 나오는 일도 종종 있다。 그러므로 남녀 간의 참다운 사랑은 그들이 육체적으로 서로 마음에 맞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은 가장 본질적인 역할을 노는 동기 이기는 하나—주로 그들의 성격、리지、문화적 관심、기타 사회적 요구가 그들의 육체적 애착과 합치되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남녀 관계에 있어서만 비로소 맹목적이고 생물학적인 성적 애착이 고상하고 참으로 인간다운 애정으로 변하게 된다。 이것은 자각적이고 리성적인 련애이다。

그러나 유감이지만 련애의 체험은 언제나 이런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부르죠아적 전통에 의하여 타락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련애는 육체적 접근에 대한 욕망으로서만 표현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련애상의 체험과 욕망、그의 기본 의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육체적 점유에 두고 있다。 물론 남자의 녀자에 대한、또는 녀자의 남자에 대한 이러한 동물적 태도는 인간다운 진정한 련애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어떤 부르죠아 『학자』들은 인간이 일부다처적(一夫多妻的)존재이라는 것과 성적 감정이 본질상 안정된 단조로운 것이 될 수 없다는 허위적 『리론』을 꾸며냈다。 많은 사람들이 련애의 상대자를 자주 바꾸려는 경향과 찰나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은 이것으로써 설명되는 듯이 그들은 말한다。 도덕적으로 확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부패한 『리론』으로써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을 너그럽게 하는 진실한 애정을 전혀 느낌 없이 경출하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 다니며 나중에는 방탕에 까지 이르게 된다。

시인 쓰쩨빤。시빠츄브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묘사하였다。

너 푸른 담배 연기 속에서
이 녀자에 키스하고
저 녀자에 키스한다。—
아마도
비난도 들은체 만체
시인에게는 도덕도 일 없는듯
누구에게 주는지 저도 모르게
잔돈푼을 베프듯
사랑을 나누는 자
내 오로지 너 때문에 무접게 늙었노라

우리들은 인간의 본질이 일부 다처적이며 『완전한 련애』를 위해서는 『찰나적 결합』이 생리적으로 요구된다는 온갖 우화를 결정적으로 분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련애와 호상간의 점유가 자연히 어린애를 낳게 된다는 점이다。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련애에는 두 사람이 참여하여 거기에서 제三자、즉 재 생명이 나타난다。 련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여기에 그 원인이 있으며 여기에서 사랑하는 남녀의 집단에 대한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청년 남녀들은 사회적 의무를 잊지 말고 애정에 대하여 심중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며 리성의 힘으로 성욕의 맹목적인 힘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 리성은 사람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애정이 동물적 성욕의 미련한 충족으로 전환하지 못하게 하여 준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성욕에만 지배되여 그들이 일생을 같이 하여야 한다는 것、그들의 결합의 결과로 새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치 않고 결혼하였다가 얼마 안가서 그들이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리상적 조화가 일조 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리해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그 육체적 조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교양도 다르고 문화 수준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다。 그러므로 그들이 공동 생활을 위해서 결합하려고 할 때에는 후에 결혼 생활에 들어가서 일정한 의미에서의 호상 교양을 계속하며 유익한 문화적 생활을 위한 공통적인 노력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서로 연구하며 상대방의 기질이나 사상을 리해하여야 한다。 결혼이 극히 중대한 책임 있는 일보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경솔하게 결혼하여 일주일도 못가서 결혼이 고통거리로 되고 후에 가서는 불가피적으로 파탄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정 생활을 건설할 때에 사람들이 극복해야 할 곤난들을 지적하면서 시인 쓰쩨빤• 지빠쵸브는 이렇게 썼다。

사랑을 고이 지니사오
날이 가면 갈수록 곱 중히 여기지오
사랑은 뻰취 우의 한숨도 아니요
달빛 아래 산보도 아니외다
그간엔 비도 오고 눈도 나리리다
그러나 일평생을 함께 보내얍지요
사랑은 아름다운 노래와도 같은 것
허나 노래 짓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남녀간의 완전한 동등권을 설정한 사회주의적 사회 제도는 특히 『사랑에 의한 자유 결혼』의 견고성과 공고하고 의좋은 쏘베트적 가족 조직을 보장하는 인간다운 진정한 남녀 관계를 위해서 모든 물질적、도덕적 제 조건을 지어 놓았다。 어떤 『극히 현명하신』『리론가』들은 가족이 자본주의 하에서 사유 재산의 기본 세포로 되고 있다는 명제에서 출발하여 사회주의 하에서는 가족이 불필요하게 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현명한 사람』들의 관념에 의하면 가족은 사회주의 하에서 『조락』하게 된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가족 조락에 관한 이러한 『리론』은 인민의 원쑤들이 특별히 전파에 노력한 리론인바 그것은 본질에 있어 극히 반 사회적인 리론이다。

사유 재산에 근거하여 발생한 일부 일부제 가족이 사유 재산의 청산과 함께 소멸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엥겔쓰는 다음과 같이 철저한 대답을 주었다。『그것은 소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라야만 완전히 실현되리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생산 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전환됨에 따라 고용 로동 프로레타리아트도 역시 소멸될 것이며 따라서 돈 때문에 몸을 맡기는 일정한 수의 녀자—그것은 통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의 필요성도 소멸될 것이다。 매음은 소멸될 것이며 일부 일부제는 자기 존재를 폐지할 대신에 드디여 남자들에게도 진정한 것으로 될 것이다』

우리들은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있어 맑스—레닌주의적 리론에 의거하면서 사회주의적 가족을 강화할 데 대하여 백방으로 노력해야 한다。 사회주의가 건설된 오늘 가족 관계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딴 것으로 되였다。 물론 방탕을 한다던가 녀자들과 아이들에게 란포하게 대한다던가 개인적 리익을 가족의 리익에 대립시킨다던가 하는 많은 경우들이 아직 완전히는 청산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쏘베트 사회에 특징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것、주요한 것은 사회주의적 가족이 강화되는 끊임 없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사회주의 사회의 일반적 장성 및 강화와 련결되고 있다。 쏘베트적 가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부르죠아 가족과 같이

사회와 대립되지 않고 사회와 단일한 전일체를 이루고 있다。 쏘베트적 가족은 쏘베트 국가 전체와 공통된 리익、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쏘베트적 가족들에서는 사회주의 문화 건설에 고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열렬한 쏘베트 애국자들의 세대가 자라나고 있으며 교양 받고 있다。 우리들은 쏘베트 조국의 영웅적 방위자들을 길러낸 공고한 쏘베트적 가족을 보전할 수 있은 것은 히틀러 강점자들과 일본 제국주의 자들에 대하여 전 세계사적 승리를 거둔 때문이다。

적극적인 공산주의 건설자들의 활동과 행위를 규정하는 고상한 공산주의적 의식은 구역나는 과거의 잔재라던가 특히 련애 문제에서 있을 수 있는 과오들을 반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담보로 된다。 만일에 남자와 녀자가 그들이 **사람**이라는 것、련애를 체험할 때에 자기의 **인간**적 가치에 대해서 기억한다는 것、**육체**적인 기쁨을 맛보려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기쁨을 느끼려고 한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않는다면 그들 사이에는 쌍방에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아름답고 고상한 사랑이 발생되고 발전되며 공고히 될 것이다。

인류의 력사는 아름다운 사랑—청년때 부터 로년기 까지 계속되며 모든 불행과 곤궁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곤난한 생활을 큰 행복으로 전환시키는 아름다운 사랑—의 실례를 적지 않게 알고 있다。 우리는 맑스와 그의 부인 젠니 사이의 학생 시절부터 시작된 꽃같은 사랑을 지적하면 충분할 것이다。 인류의 위대한 천재와 그의 훌륭한 동반자는 고통이 많은 전 생애를 통해서 꺼질 줄 모르는 사랑의 불꽃과 호상 간의 깊은 존경과 신뢰를 지속시키였다。 맑스의 가정에서는 부모들 사이나 부모들과 자녀들 사이에 불화의 그림자조차 볼 수가 없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계급적인 사회적 관계의 제 조건하에서는 례외로 되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것으로 된 이러한 실례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

과거의 잔재는 남녀 간의 호상 관계와 가정 생활과 일상 생활에서、특히 생명력이 강하다。 사람들의 개인 생활은 그들의 생산적、사회적 활동처럼 그렇게 공개적으로 『눈에 띄게』 진행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어렷이 보는 곳에서는』 공산주의적 도덕의 제 원칙을 준수하던가 또는 준수할 것을 타인에게 호소하면서도 집으로 돌아가 자기 가정에서는 이것을 잊은 듯이 자본주의 잔재의 노예로 되며 교양이 없는 속물로 되고 만다。 브•마야꼽쓰끼는 자기의 시 『사랑』에서 이러한 량면적인 속물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썼다。

집회에선 불르길
『앞으로 동무들!』
그러나 집에 가면
제 부른 아리야를 잊어 버리고
안해에게 욕설 잔말
배추국이 덜 끓고
오이간이 싱겁다고

어떤 사람들은 자체에 대해서는 생산、기타 온갖 부문에서 광범한 활동을 하며 동무들과 널리 교제할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생활에 있어 자기의 가장 가까운 벗인 처에게 대해서는 가사만을 떼여 맡기고 있다。 이런 경우에 녀자가 집안 일만을 돌본다고 할 것 같으면 어쩌는 수 없이 남편보다 뒤떨어지게 된다。 녀자와 함께 집안 일을 돌보고 녀자와 함께 아이들을 양육할 의무를 지고 있는 남자가 자기의 가장 가까운 벗과 같이 녀자에게 대할 때 남자가 처의 문화적 발전에 주의를 돌리고 처의 생산적、사회적 적극성을 촉진시킬 때에 가족은 사회주의 사회의 의좋고 견고하고 행복한 세포로 된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부모의 도덕적 행위가 자녀의 도덕적 품성에 좋은 교양적 작용을 미친다。

어떤 일꾼들은 직무상 자기에게 의존되고 있는 자기 마음에 드는 녀자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자기 직위를 리용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녀자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가장 더러운 자본주의의 잔재이다。

유감이지만 아직도 이러한 더러운 사람들에게 『양보』적 태도를 취하던가 또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타산적으로 『큰』인물들의『저그마한』약점을 노리는 녀자들이 있다。

쏘베트 국가의 법률들은 부하를 개인적 목적에 리용하기 위해서 직위를 리용하는 사람을 처벌한다。 그러나 이외에도 이 추악한 과거의 잔재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여론의 통제와 큰 교양 사업이 또한 필요한 것이다。

사회에서 두렷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물질적으로 튼튼히 보장된 어떤 일군이 한때에는 매력 있는 처녀였으나 자기와 여러 해 동안 생활을 같이 하는 동안에 매력을 잃어 버린 자기 처가 다른 젊고 맵시 있고 아름다운 처녀—그와 함께 『두번째 청춘』을 맞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처녀—보다 많은 점에 있어서 퍽 못해 보이는 것을 『돌연히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에도 류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의 법률적 토대는 물론 다르다。 어떤 젊은 처녀들도 역시 젊기는 하나 물질적으로 덜 보장된 남편과 자립적인 로력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나이는 많아도 물질적으로 든든히 보장되였고 『다른 가족의 주머니에 의지하고 있는』(아·쏘·마까렌꼬) 남편과 한가한 생활을 하려고 한다。 이때에 남자나 녀자는 모두 리기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파괴된 가족의 운명, 버림을 당한 처나 남편의 운명, 부모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고아 상태에 있는 아들 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공산주의적 도덕의 제 원칙과 어떤 공통점을 가지는가? 물론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 이것은 부르조아 사회의 풍습의 완전한 재생이다。

녀자에 대한 멸시적이고 실없는 태도는 가장 뿌리 깊은 과거 잔재의 하나이다。

현재 우리는 우리 나라의 제 조건 하에서 서로 자유롭고 서로 동등한 존재인 남자와 녀자에 대하여 동일한 요구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남자와 녀자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그들의 과거에 있어서의 큰 력사적 차이—몇십년 동안에는 소멸될 수 없는 차이—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지금에 있어서는 아직도 녀자는 자기 생활의 일정한 시기에 있어서 남자의 도덕적 지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리해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녀자에 대한 란포하고 야비한 태도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녀자에 대한 과거의 착취자적 태도의 잔재이다。 우리들은 쏘베트 녀성에 대하여 세심하고 주의 깊은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쏘베트 녀성이 가장 선진적인 사회 제도를 건설하고 강화하는 공동적인 투쟁에 있어서 쏘련 남자들의 충실한 벗이며 전우이기 때문이다。

남녀 간의 옳은 관계는 쌍방의 개인적 자유에 대한 존중과 그들의 호상 신뢰에 의거하여 설정되여야 한다。 인간다운 련애는 리기주의적 충동으로부터의 련애의 해방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남녀 간에는 어떠한 리상적인 우정도 불가능하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순간적으로 만났을 때에 시작된 호상 간의 동정심은 강력한 성욕으로 변하여 반드시 육체적 점유로써 끝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문예 부흥기에서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는 모든 문학은 이러한 련애 발전의 묘사에 가득차 있다。『남녀 간의 우정은 밤이 오면 약해진다』는 류행어는 발자크에게서 나온 말이다。 부르조아적 작가인 발자크는 이와는 다른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리해도 못하였다。

련애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녀자에게 대한 동물적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현대의 가장 탁월한 인도주의자의 한사람인 로만·로랑은 『육체—이것은 녀자가 내줄 수 있는 가장 적은 것이다』라고 정당하게 말하였다。 녀자의 정신적인 미, 녀자의 풍부한 지성에서 오는 위안은 남자와 녀자에 대한 우정에 무한한 가치를 준다。 우리는 이러한 것이

녀자의 일시적인 육체적 매력보다 얼마나 고귀한가를 리해하기 위해서 로만·로랑의 이 사상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오직 이러한 사랑만이 무한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남녀 간의 이러한 우정은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부부간 쌍방의 완전한 호상 신뢰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 ×

자기의 생산적,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는 선진적이면서도 가정에서는 극도로 보수주의적인 인간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적 교양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남자들의 녀자에게 대한 이전의 치욕적인 태도를 뿌리채 뽑아 버리고 공고한 사회주의적 가족을 창설하는데 필요한 참으로 인간다운 애정과 우정의 토대, 즉 동지적 련대성을 남녀 사이에 설정하는 데 있다。

그러나 감정의 깊이, 강도, 지속성이 사람에 따라 다른 관계로 가정적 행복의 견고성이 파괴되는 일이 때때로 있다。 이러한 경우에 리혼 문제가 발생된다。 리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한한다。 그것은 생물학적 심리적 원인, 또한 기타 원인 때문에 공동 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다。

리혼에 대한 권리는 리혼을 장려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쏘련의 법규는 이 권리에 어떤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 제한 조건들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에 이 중대한 생활상 행동에 큰 책임감을 가지고 대하도록 책임 지우고 있다。

그러나 일상적인 가족 관계에 있어서 인간 의식내에 남아 있는 과거의 잔재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상술한 제한들과 아울러 큰 교양 사업이 있어야 한다。 쏘련 사람들의 사상—정치적 수준 및 문화 수준의 제고는 과거의 더럽고 추악한 것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는바 오로지 이것만이 개별적인 쏘련 가정에서 아직도 볼 수 있는 비도덕성을 청산할 가능성을 준다。

현대의 훌륭하고 가장 재능 있는 시인 브·마야꼽쓰끼는 『사랑』이라는 시에서 과거 잔재에 대하여 결정적 비판을 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호소로써 자기의 시를 끝마치였다。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사랑의
순결을 위하여
　소리를
　　높일지니
거짓말 말아—
　나는 총각이라고
우리들을 중매함은
　수다스런 중이 아니로다
우리를 묶고 있는
　『동지』란 말로써
남녀의 생활도
　맺을 지어다。

사회주의적 가족의 정상적 생활 상태는 매개 가족—남자와 녀자—의 높은 작업 능률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보장의 하나이다。 생활 상태와 가족에 관한 문제를 우리들의 모든 정치, 경제, 문제와 분리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긴밀하게 련결되고 있다。 특히 부부 간의 호상 관계에 관한 문제는 자녀를 교양하는 과업들과 긴밀한 련계를 가진다。 부모들 사이의 정상적 호상 관계는 자녀의 옳은 교양의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라는 명제는 특별히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쏘베트적 가족은 쏘베트 사회의 기본 세포이다。 아이들—사회주의 국가의 미래의 공민들—의 감정과 사상과 의식과 필요한 관습들은 가정에서 형성되고 발전된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위대한 우리 조국의 열렬한 애국자들이 자라나고 교양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쏘베트 사회와 단일한 전일체를 이루고 있는 쏘베트적 가정에서 부모들 사이,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까지 진정한 공산주의적 관계의 류형과 기풍이 형성되여야 한다。

쏘베트적 가족의 견고성—여기에 쏘련 사람들의 개인적 행복과 안락의 토대의 하나가 있으며 자라나고 있고 또 참 교양 받은 젊은 세대들을 생활에로 이끌어 들이는 환희의 상시적 원천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나라가 더욱 번영하며 공산주의에로 승리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담보의 하나가 있는 것이다。

(브·느·꼴바노브쓰끼 저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사랑, 결혼, 가족』중에서)

술어해설

원 가

원가란 쉽게 말하면 어떤 생산품을 만드는데 들어는 비용의 전부를 말한다。그러므로 원가에는 기업소에서 어떠한 생산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재、원료를 사들일 때부터 생산품을 만들어 낼 때까지의 일체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것은 (1) 그 제품을 만드는데 소비되는 원료、자재、(2)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닳아지는 기계、공구、건물 등을 보상하는 감가 상각비、(3) 그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료、전력、(4) 그 제품 생산에 지출된 로동에 대한 임금 (로임)、(5) 행정 관리비 및 기타 비용 등이다。 이상의 다섯가지를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즉 원가의 구성 요소라고 한다。 이상에서 말한 것이 생산 원가、즉 공장 원가이다。

원가에는 또 한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상업 원가 (완전 원가라고도 한다) 이다。 상업 원가는 공장 원가에다 생산 기업소의 리윤、상업 기관 (판매소와 도매소)의 유지비、수송비 등등을 포함한 것이다。

설비 리용률

설비 리용률이란 생산 행정에서 생산 시설들、즉 기계、로동 도구、건물、기타 등등을 그 자체가 가지는 성능에 비하여 실지 생산에서 얼마나 리용하는가 하는 비례를 말한다。설비 리용률은 두가지 측면에서 타산할 수 있다。하나는 기계의 성능에 비하여 이것을 일정한 시간에 얼마나 생산에 리용하는가 하는 것이며、다른 하나는 기계의 수명에 비하여 생산에 얼마 동안이나 리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설비 리용률은 일정한 기간에 기계를 그 성능에 비하여 생산에 얼마나 리용하는가 하는 것을 말한다。 례를 들면 선반기 한대의 성능이 八시간 동안에 어떤 제품 一〇개를 생산할 수 있는데 실지 작업에서는 八개밖에 만들지 못하였다면 설비 리용률은 八〇%인 것이다。 이와 같은 설비 리용률은 기계의 가동률과는 전연 다른 것이다。 기계의 가동률은 생산이야 얼마를 하였던지 관계 없이 기계가 八시간 작업에서 八시간 고장 없이 돌았다면 一〇〇%인 것이다。 그러나 기계의 가동률은 一〇〇%라 할지라도 생산품은 그 시간에 七〇% 밖에 못내였다면 설비 리용률은 七〇%인 것이다。

생산의 합리화

생산의 합리화란 생산을 더욱 발전시키며 기계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생산 도구를 연구하고 새로운 작업 방법을 창안하여서 생산 공정을 가장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생산을 합리화하기 위하여서는 두가지 측면이 있는바 하나는 생산 시설、즉 기계 도구를 더욱 선진적이며 자동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생산 공정을 기계화、전기화、자동화 및 화학화하는 것이요、다른 하나는 작업 방법을、즉 생산에 종사하는 로동을 더욱 합리적이며 힘이 덜들고도 더욱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가는 것이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새로운 생산 도구와 기계를 발명하여 내며 선진적인 작업 방법을 도입하여 새로운 작업 방법을 창안하여 내는 것은 다 생산의 합리화를 위한 것이다。

유일 관리제

유일 관리제란 생산 기업소、또는 기관들의 관리 방법인 것이다。 유일 관리제는 한편으로는 국가로부터 그 기업소、혹은 기관의 관리 운영을 위임 받은 책임자에게 그 기업소、또는 기관의 전체 일군들이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매개 일군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생산 관리상의 질서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유일 관리제는 우선 국가로부터 임명된 지배인의 명령 지시에 기업소의 전체 일군들이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다。 만약 생산 행정이 기계화되여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현대적인 기업소들에서 엄격한 질서、강한 규률이 없이는 생산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다。 생산에서의 엄격한 질서와 강한 규률은 오직 전체 일군들의 의사를 한사람의 의사에 복종시키는 방법 — 지배인의 의사에 복종시키는 방법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업소의 전체 일군들이 아무리 지배인의 의사에 잘 복종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맹목적이며 자기 자업에 대한 연구가 없고 책임성이 없다면 생산은 파탄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생산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우선 책임자의 명령、지시에 전체 일군들이 무조건 복종할 뿐 아니라 각자가 자기 사업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유일 관리제를 그의 관리 운영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공장과 기업소

공장이란 원료를 가공하여서 생산품을 만들거나 반제품 또는 자재를 가공、조립하여서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체를 말한다。 그러나 기업소는 그것이 생산품을 만들어내던 않던 일정한 기업 활동을 하는 경제 기관이면 기업소라고 말할 수 있다。 기업소에는 공업 기업소도 있으며 상업 기업소도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말할 때 공장은 기업소의 범주에 속하지만 기업소는 반드시 공장인 것이 아니다。 광산、탄광、제조소、상업 기관、국가 농목장、농기계 임경소들도 기업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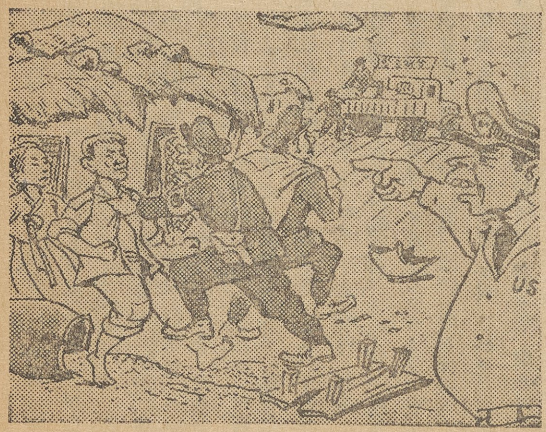
식민주의

식민주의란 제국주의 자들이 자기 나라의 잉여 상품을 마음대로 팔아먹고 눅은 값으로 원료를 략탈하여 갈 뿐만 아니라 직접 자본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최대한의 리윤을 얻어낼 목적 밑에 방어력이 약하거나、혹은 비교적 경제 발전이 락후한 나라를 침략하여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드는 주의를 말한다。 식민지란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완전한 독자성을 가지지 못하고 종주국인 제국주의 나라의 의사에 의하여 그들의 착취에 편리하게 통치되는 나라를 말한다。 미、영 제국주의 자들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투쟁이 광범히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률빈、마라이 등을 비롯한 많은 식민지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것을 계속 유지하

남조선 농촌은 농민들의 생지옥

소위 『추곡 매상』의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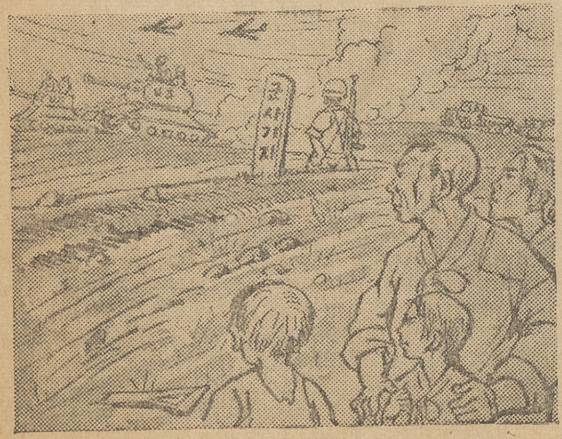
리승만 『정부』는 남조선 농민을 략탈할 목적으로 소위 『추곡 매상 가격』을 결정하였는바 그것은 최저한도로 산출하였던 종래의 생산비 보다도 二、六二三환을 인하한 략탈적인 가격인 것이다。 이로써 남조선 농민들은 리승만 『정부』의 강제 매상으로 정곡 一석당 최저한도 一천 六백여환을 완전히 본전에서 손해를 보게 되였으며 동시에 리승만 『정부』의 략탈 계획대로 一백 五五만석을 『매상』하게 된다면 남조선 농민들은 四〇억환 이상의 거대한 금액을 략취 당하게 되는 것이다。



곡창 지대에서 굶주림은 웬셈인가

지난 一〇월 二九일 『합동 통신』에 의하면 지난 전쟁 기간에 남조선 『국군』이 농민들로부터 강제 징발한 토지만 하여도 一천 五백 九二만 四천 二三평에 달하며 기타 건물、물자들을 합하면 그 가격이 一백 二五억 九천 七백여환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에 달하고 있다。

리승만 『정부』의 반인민적 농업 정책으로 인하여 농촌은 황폐되고 경지 면적은 축소되여 남조선에서 량곡 생산고는 해마다 줄어 들고 있는데 남조선 당국 『농림부』의 공식 통계에 의하더라도 금년 一一월부터 명년 一〇월까지의 一년 동안의 남조선의 식량 부족량은 최소한도 一백 八八만 여석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다。

베르마흐트

베르마흐트는 원래 히틀러 팟쑈 군대의 일종이다。 히틀러는 그가 정권을 잡기 전부터 자기의 직계인 팟쑈적 폐로 단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정권을 쟁탈한 후에도 계속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대로 만들어서 정규군과 분리시켜 베르마흐트(국가 보안대라고도 한다)라고 불렀다。 이것은 인민들을 야만적으로 탄압하는 팟쑈 폐로 정책을 직접 구현하는 히틀러의 충실한 도구이다。 一九三六―七년경에 히틀러는 이 베르마흐트를 골간으로 하여 자기의 팟쑈 군대를 통일시켜 재편성하였다。

비생산적 지출

비생산적 지출이란 직접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지출이란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개 생산 기업소를 단위로 말할 때와 전 인민 경제적、즉 국가적 범위에서 말할 때와는 그 말에 포함되는 범위가 달라진다。 한개 생산 기업소를 단위로 말할 때에는 행정 관리비 및 기타 경비는 비생산적 지출이며 자재비、로력비 등의 지출은 생산적 지출이다。 그러나 국가 예산의 견지에서 말할 때에는 문화、교육、보건 도시 건설 등등에 지출되는 비용만이 비 생산적 지출이며 생산을 위한 중공업、경공업、화학 건재 공업、농업 등에 지출되는 비용은 일체 생산적 지출에 포함된다。

템포

템포란 원래 이태리 말로서 음악의 속도、박자라는 뜻이다。 지금 이 템포란 말은 비단 음악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의 발전 또는 진행되는 현상의 속도를 표시하는 말로서 광범히 씌여진다。 례컨대 우리 나라에서도 인민 경제 건설의 템포가 빠르다 하면 인민 경제 건설의 속도가 빠르다는 말로 된다。

민족 부르죠아지

민족 부르죠아지란 민족 자본가 계급이란 뜻이다。

식민지、또는 반식민지 예속 국가들에는 서로 상반되는 두개의 자본가 부류가 있다。 하나는 민족 자본가이고、다른 하나는 예속 자본가이다。 민족 자본가란 외래 제국주의 자들의 침략으로 인하여 그 발전을 저해 당하거나 파산의 운명에 빠지게 되는 자본가들로써 그들은 외래 제국주의 자들과 리해 관계를 달리하며 이를 반대하여 나선다。 그러나 예속 자본가는 이와는 반대로 외래 제국주의 자들에게 아부하여서 그들의 앞잡이로 되여 그들과 함께 자국의 근로자들을 착취하며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나라의 재부를 제국주의 자들에게 팔아먹는 자본가들이다。

꼰쓰펙트

꼰쓰펙트란 말은 원래 라전어로부터 나온 말인데 이것은 저서 또는 강의 내용의 개요、서술、간단한 필기 등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쓰는 꼰쓰펙트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씌여지는데 대체로 간단한 필기라는 말로 많이 쓰인다。

꼰쓰펙트를 작성하는 것은 서적을 가지고 하는 학습을 옳게 조직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농민들이 살길 없는 남조선 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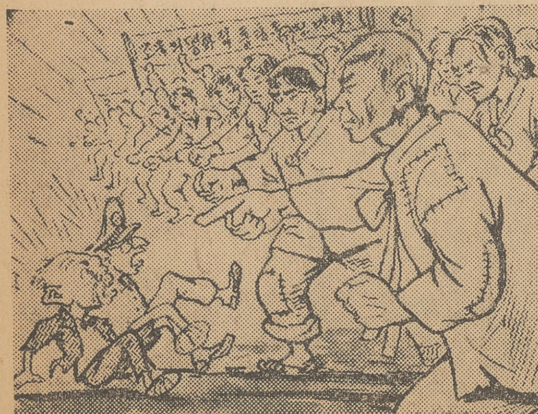
오늘 남조선 농민들은 만성적 기아와 무거운 채무와 가혹한 략탈에 견딜 수 없어 농토를 버리고 도시에로 몰려들어 걸식하면서 실업군에 편입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농민들의 령세 몰락화가 전례없는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 남조선 당국 『농림부』의 축소된 집계에 의한 현재 남조선 농민들의 토지 소유 정형을 보더라도 一정보 미만의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령세 농민은 전체 남조선 농민의 약 八〇%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一년간 식량을 생산할 수 없는 〇・五정보 미만의 극히 적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빈농민이 거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공업에는 어떤 부문들이 있는가?

공업은 중공업과 경공업으로 나눈다. 중공업이라면 생산수단 생산부문 례하면 강철공업, 기계제작 공업등이며 경공업이라면 소비자료 생산부문 즉 방직공업, 식료품공업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것을 더 세분할수 있는데 그중 중요한 부문은 아래와 같다 ――

- **공업**
  - **야금 공업**
    - 흑색야금공업 (즉 강철공업)
    - 유색야금공업 (동. 연. 알미늄. 아연. 주석등 금속을 생산하는공업)
  - **연료. 동력 공업**
    - 석유공업
    - 석탄공업
    - 가스공업 (천연가스 석유부산가스및 석탄과 혈암으로 제조하는 가스를 생산한다)
    - 전력공업 (수력발전과 화력발전이 포함된다)
  - **기계. 제작 공업**
    - 공작기대 제작공업
    - 동력기계 제작공업
    - 전기기계 제작공업
    - 중기계 제작공업
    - 운수기계 제작공업
    - 조선(造船)공업
    - 자동차및뜨락또르 제작공업
    - 항공기 제조공업
    - 검사 측정도구 제조공업
  - **화학 공업** ― 산. 알가리. 광물비료. 합성고무. 인조. 알콜. 염료. 콕스부산품등을 제조하는 공업이 포함된다
  - **목재 공업** ― 벌목. 펄프제조. 목재화학(목재증류와 같은 것이다)등 공업이 포함된다
  - **건축재료 공업** ― 쎄멘트. 벽돌. 유리등 공업이 포함된다
  - **소비품 제조 공업**
    - 방직공업 (제사업. 방적업. 직물업)
    - 식료품공업 (양조업(양주. 맥주. 장류(간장. 된장등))초. 정미 제분. 제탕. 통조림등
    - 기타 소비자료 생산공업 (담배. 피혁. 고무. 등등. 인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공업들이 있다)



남조선 농민들은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싸운다

남조선 농민들은 자기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남조선 인민들과 더불어 미제와 리승만 『정부』의 반인민적 농업 정책을 반대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들은 공화국 북반부 농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희망으로 바라 보면서 세금 납부 거절、강제 공출 반대、농토의 군사 기지화 반대、강제로 무동원 반대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용감히 투쟁하고 있다。 지난 七월 四일부 『동아 일보』에 의하면 경상남도 창원군 창원면내 二백여명의 농민들은 『국방군 예비 사단』이 五〇여 정보의 농토를 강제 징발하려는데 분개하여 면 사무소 앞에 모여 토지 강제 징발을 강경히 반대하는 일대 시위를 단행하였다。

연암 박지원 선생

—그의 서거 一五〇주년에 제하여—



연암 박지원 선생은 一八세기 조선이 낳은 진보적 사상가이며 애국적 학자이며 탁월한 작가이다. 선생은 一七三七년 三월 五일에 서울에서 탄생하여 一八〇五년 一二월 一〇일에 六九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연암 박 지원 선생의 전 생애와 활동은 조선 사회의 진보를 가로 막는 낡은 량반 통치 계급을 반대하며 조국의 부강 발전과 인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애국적 사업으로 일관되여 있다.

선생의 저작인 단편『예덕 선생전』,『량반전』으로부터 시작하여『허생전』『열하 일기』정론『한민명전의』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작품들의 기초에는 그의 진보적 사상과 애국주의 정신으로 충만되여 있다.

그러나 선생의 훌륭한 사상과 사업들은 당시의 낡은 량반 관료들에 의하여 혹심한 탄압과 박해를 받았다. 리조 봉건 정부와 그 통치자들은 선생이 쓴 글들을 널리 읽혀지지 못하게 하였으며 따라서 선생이 그렇게도 고심하여 지은 작품들이 당시에는 출판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회의 진보와 인민의 해방에 바쳐진 선생의 선진적 사상과 활동은 당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조선 인민의 고귀한 전통으로써 빛나고 있으며 그의 사상은 우리 나라 근로 인민의 심장 속에 살아 있다. 특히 선생의 저술들은 우리 나라 민족 문화 유산을 더욱 풍부히 하여 주며 그가 남긴 빛나는 업적과 고귀한 정신은 조선 인민과 청년들에게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고무하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탁월한 애국자이며 학자이며 진보적 사상가인 연암 박 지원 선생의 서거 一五〇주년을 맞이 하면서 편집부는 그의 단편『예덕 선생전』을 소개한다.『예덕 선생전』은 선생의 저작의 하나인『방경각 외전』(放璚閣 外傳)에 수록된 단편 소설이다.

예덕 선생전

『이 소설의 내용은 소위 량반들은 먹고 입는 것 때문에 온갖 게걸스러운 짓을 다 하면서도 자기 로동으로 벌어 먹고 사는 근로 인민들을 천하게만 보는 것을 풍자한 것으로써 거름을 모으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엄행수란 농민의 근로 정신을 모범으로 내세운 이야기 이다——편집부』

선귤자(蟬橘子 ※주一)에게 예덕 선생(穢德先生 ※주二)이란 벗이 있어서 종본탑(宗本塔)동쪽에 사는데 언제나 동리 안의 똥을 쳐내는 것으로써 직업을 삼고 있다. 동리 안에서 모두 엄행수(嚴行首)라고 부르니 행수는 상일하는 늙은이를 부르는 말이요 엄가가 그의 성이다.

자목(子牧)이 선귤자에게 묻기를

『전일 내가 어르신네께 벗 사귀는 묘리를 들을 때는 내외 아닌 안해요 동기간 아닌 아우라고 말씀하십디다. 벗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려. 세상의 이름 있는 량방님네 중에 어르신네 밑에서 놀기를 원하는 자가 많건만도 받아주지 않고 이제 엄행수로 말하면 동리 안의 천한 사람이요 상일군이라 하층의 무리로 사괴기 욕스러운데도 어르신네가 그의 덕을 칭찬해서 선생이라 이르면서 교분을 맺어서 벗 되기를 원하는듯 합니다. 나는 아주 부끄럽습니다. 문하를 떠나려고 합니다.』

선귤자가 웃으며 말하기를

『게 좀 있게, 내가 자네게 벗 사괴는 묘리를 이야기 함세. 속담에 이르기를 의원이 제 병을 못고치고 무당이 제굿을 못한다고 하겠다. 누구나 제가 남보다 낫거니 믿건만도 남이 못 알아 줄때는 제 허물이나 들으려는 것 같이 애달프게 구느니, 그런때 칭찬만 하면 아첨에 가까워 맛이 없고 단처만 끄집어 들면 헐뜯는데 가까워 본의가 아니라 그가 잘못하는 구석을 이 끄덩이 저 끄덩이 건드리여 어름더름 마치지를 못한단 말일세. 비록 크게 책망을 한대도 제가 성을 낼 턱은 없는 것이 제 내심에 꺼리는 바로 그 점과는 당치도 않단 말일세. 그러다가 슬며시 그가 남보담 낫다고 자부하는 그 구석에 말이 미치고 보면 마치 숨긴 물건을 알아 맞힌듯이 마음 속에 감격해서 마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듯 할 것일세,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데도 묘리가 있으니 등에 손을 댈 때는 겨드랑에 가까이 가지 말고 가슴을 만질 때는 목을 건드리지 말 것일세, 없는 일도 말을 만들어서 슬쩍 칭찬을 해주면 아주 반색을 해서 자기를 알아 준다고 할 것일세, 이렇게 벗을 사괴여야만 되겠나?』

자목이 귀를 가리고 내빼면서 말하기를

『이건 어르신네가 내게다가 장사치의 일이나 하인배의 노릇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선귤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자네도 부끄러워 하는 것이 여기 있지 저기 있는 것이 아닐세 그려. 대체 장사판에서는 릿속으로 사괴고 체면을 보는 데서는 아첨으로 사괴는 것일세.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절친한 사이라도 세번 달라고 해서 틀리지 않고 아무리 옹추라도 세번 주어서 친해지지 않는 사람이 없네. 그렇기 때문에 릿속은 계속되기가 어렵고 아침은

오래 가지를 못한단 말일세。대체 크게 사괴는데는 안면을 보지 않고 끔찍이 사괴는데는 친분을 따지지 않아서 오직 마음 속으로 사괴고 덕을 가져 벗을 삼으니까 몇 천년 전의 사람과 더불어 벗하였자 먼 것이 아니요 만리를 서로 떨어져 살았자 소원한 것이 아닐세。저 엄행수란이는 그가 언제 내게다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요 내가 그저 칭찬하고 싶어 못 참네。꿀떡 꾹떡 밥을 먹고 어청 어청 걸어다니고 쿨쿨 잠을 자고 허허 웃음을 웃고 그 사는 꼴이 아주 어리석은 것 같겠다。흙으로 쌓고 짚으로 덮고 구멍을 내여서 새우등으로 들어가고 개주둥이로 잠자고 아침이면 즐거이 일어나 바소구리를 지고 동리안으로 들어가서 뒷간을 치는 것이지。철이 九월에 들어서면 서리가 내리고 一〇월 잡아들면 살얼음이 잡히네 그려。뒷간의 말라붙은 남저지며 마구간、외양간 닭의 홰 아래의 닭、개、거위의 똥이며 그 외에도 가지 각색 짐승들의 똥을 보물처럼 가져가도 렴치가 없는 것 없고 혼자서 리를 본대도 의리에 틀릴 것 없고 그저 많이 가져 가려고 욕심을 부려도 양보성 없다고 책잡힐 턱 없네。

손바닥에 침을 탁 배앝아 넉가래를 쥐고는 허리를 굽혀서 구부렁 거리는 것이 마치 날짐승이 무엇을 쪼아 먹는 것 같이 보이네、화려한 외화도 그의 소원이 아니요。동당거리는 풍류 소리도 들은체 만체 일세。대체 부나 귀는 누구도 바라는 것이언만도、바란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부러워 하지 않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한대야 더 영광스러울 것도 없고 헐 뜯어야 더 욕될 것도 없는 것일세。왕십리(往十里)의 무、살꼬치(箭串)의 숫무、석교(石郊)의 가지、오이、호박、수박、연희궁(延禧宮)의 고초、마눌、부추、파、염교、청파(靑坡)의 미나리 리태인(梨泰仁)의 토란등 아무리 상상길의 밭이라도 엄씨의 똥을 가져 가야만 땅이 걸어서 여름이 잘 되여 一년에 륙백량 돈을 버네。아침에 밥 한 그릇이면 의기가 충족하고 해가 저녁 때 되여야 또 한그릇 먹네。남들이 고기를 먹으라고 권하면 고기나 나물이나 목구멍에 넘어가서 배부르기는 매 일반인데 맛나게 먹어서는 무얼 하느냐고 사양하고 남들이 의관을 갖추라고 권하면 넓은 소매(그 당시의 겉 옷은 최근의 두루마기와도 달라서 넓은 소매가 달리고 띠를 띠였다―역자 주)가 몸에 입지 않고 새 옷을 입어서는 짐지고 다니기에 거북하다고 사양하는 것일세。정월 초하룻날 아침에야 처음으로 갓 쓰고、띠 띠고、옷 입고、신 신고 동리안 이웃 간을 두루 돌아서 새해 인사를 드리네。집에 돌아가자 바로 헌 옷을 주어 꿰고 바소구리를 지고 나오네 그려。엄행수와 같은 분은 더러운 노릇을 하면서 세상을 숨어 사는 큰 은사(隱士)가 아닌가? 옛 글에 이르기를 부하고 귀한 터수에 있어서는 부하고 귀하게 지내고 가난하고 천한 터수에 있어서는 간난하고 천하게 지낸다고 했네。이 터수란 것은 미리 정해진 것이란 말일세。시전(詩傳)에 이르기를『아침 저녁 공사(公事)에 매달려도 명운(命運)인즉 제가끔 다르고나』라고 했네。명운은 분복일세。대체 하늘이 모든 사람을 내는데 각기 정한 분수가 있단 말일세、제 명운、제 터수에 누구를 원망할가? 새우젓을 먹고 보면 계란까지 먹고 싶고 베옷을 입고나니 모시 것이 부럽기 때문에 이로부터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져서 백성들이 우일어나고 밭고랑이 묵어 자빠지네 그려、진승(陳勝)오광(吳廣)、항적(項籍)(모두 기원전 二세기 경 진나라를 반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다―역자 주)의 무리들이 그래 김을 매고 흙은 두들기기에 만족했던 위인인가?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지고 또 타고도 적을 불러온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말일세。그렇기 때문에 의리에 틀린다면 설사 높은 벼슬도 깨끗치 못하게 되고 제힘으로 번 것이 아니라면 거부 졸부도 더러운 것일세。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숨이 진 뒤 구슬을 입에 넣는 것도 깨끗한 것을

보이는 것일세 (중국의 옛 례절이다。조선에서 그것을 배워 량반들이 최근까지 행해 왔다。―역자 주) 저 엄행수가 똥을 지며 거름을 메여서 먹고 사니까 지극히 더럽다고 하겠지만 먹고 사는 길은 대단히 향기로우며 몸을 굴리기는 지극히 천하지마는 의리를 지킴에 있어서는 아주 높단 말일세、그 뜻을 미루어서는 비록 높은 벼슬에 대해서도 그럴 것일세、이로 보아 깨끗하단 속에는 깨끗치 못한 것이 있고 더럽단 속에는 더럽지 않은 것이 있네。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는데나 입는데 아주 견디기 어려운 고비에는 나만도 못한 처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저 엄행수는 견디어 내지 못할 것이 없네 그려。만약 마음 속으로부터 도적놈을 없이 하려는데는 엄행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이렇게 넓히여 나간다면 성인(聖人)도 될 수 있을 것일세。대체 선비가 궁하다고 해서 궁기를 나타내서도 치욕이요、출세한 뒤 입과 몸만 치장을 해도 치욕이니 엄행수와 비교해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거의 드물 것일세。내가 엄행수를 선생으로 받들려고 하네。어떻게 감히 벗으로 사귄다고 하겠나? 그렇기 때문에 엄행수를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별호를 지어 일컫기를 예덕 선생이라고 하는 것일세。」

(주해―一、예덕=더려운 덕이란 말이니 똥 거름을 친다고 해서 더럽다는 것이요、행실이 고상하니까 덕으로 말한 것이다。二、선 귤자=박 연암 선생의 제자인 리 덕무(李德懋)의 수많은 별호 중의 하나이다。그렇다고 해서 자목이 박 연암 자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요、한 가상적 인물을 만들어 내 놓아서 선귤자와의 문답으로 글을 진행시킨 것이다。)

홍 기 문 역

(속) (담)

☆ **재미난 곳에 범난다.**

재미가 난다고 좋지 못한 일을 계속하면 봉변하기 쉽다는 말.

☆ **열달 만에 아이 날줄 몰랐던가?**

미리부터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을 지금에 와서 당황해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말.

☆ **두 손벽이 맞아야 소리난다.**

무슨 일이든지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해야만 잘 된다는 말.

☆ **흉 각각 정 각각.**

개인적 친분 관계로 결함에 대해서 융화한다는 말.

☆ **감 나무 밑에 누어서 홍감 떨어지기 바란다.**

자기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남이 스스로 은혜를 베풀어 주기만 바라는 주성 없는 의뢰주의자를 풍자하는 말.

심장의 피로써

여기에 게재하는 『심장의 피로써』는 희랍의 왕당 팟쇼 통치자들과 히틀러 강도배들을 반대하여 자기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영웅적으로 싸운 희랍의 애국 투사—희랍 공산당원들과 예쁜(희랍 통일 청년 동맹) 맹원들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인민들과 부모 형제들에 보낸 최후의 편지와 시편들이다。

이 글은 『심장의 피로써』—최후의 서한—들과 『지평선은 캄캄해도 좋다。 그러나 동틀 순간은 가까워라』—시편들—로 되여 있다。 그 중의 몇편을 다음에 게재한다。

—편집부로부터—

최후의 서한들

코스타스 짜코스(쫄리코스)

에브베야 섬에서 출생

현역 군관。一九四〇—一九四一년 희랍—이태리 전쟁에 참가하였다。 一九四二년에 코스타스 짜코스는 에암(인민 해방 전선) 대렬에 들어갔고 一九四三년 빨찌산으로 나갔으며 예브베야에서 엘라스(인민 해방군)의 한 부대의 지휘관으로 있었다。 독일—이태리 파시스트들로부터 나라를 해방할 때까지 강점자들을 반대하여 싸웠다。 그는 전투 공훈에 의하여 훈장을 받았다。

코스타스 짜코스는 전투에서 죽은 꼴히드『보안 대대』의 한 군조를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당하였다。 짜코스는 사형 언도를 받았다。 재판에는 변론을 위한 증인도 없었다。

一九四八년 五월 六일에 처형 당함

친애하는 동지들!

우리들이 함께 산 것은 두해에 지나지 않으나 나는 당신들에게 대단히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나의 감정을 충분히 잘 표현할 수 없다。

서러워 하지 말라、 동지들이여! 나의 죽엄에 대해서는 한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말라。 용사의 죽음에는 눈물이 아니라 노래를 보내야 한다。 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 투쟁의 전렬에 서서 죽는다。

나는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생명은 영예롭게 죽을 의무를 지우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죽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연히 나를 엄습한 것은 아니였다。 나는 명절놀이에 가는 듯한 그러한 감정으로써 죽음을 맞이 하여 나아간다。

나는 인민의 투사와 군관으로서의 임무를 조국과 인민 앞에서 끝까지 완수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 나는、승리는 가깝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대들을

떠나 간다。 승리는 우리에게서 한발자욱 거리에 있는 것이다。 아테네의 반역자들은 정복되고야 말 것이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태양은 피에 젖은 우리 땅을 비치일 것이다。

동무들、 우리 부대의 영광스러운 전투적 전통을 따르라!

견결하라、 우리의 최후의 전투에 영웅적 희생을 바치라。 놈들은 우리를 분쇄할 수 없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살아 남은 그대들 앞에는 아직도 커다란 시련이 가로 놓여 있다。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부르쥐라——그리고 앞으로! 원쑤들은 우리를 두려워 하고 있다。 이제 조차도、 그들이 우리를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이 순간에 조차도 그들은 몸을 떨고 있으나 우리는 웃고 있다。 털끝만치도 약점을 보이지 말라!

우리들 보다 먼저 죽어간 무수한 영웅들이 죽음을 멸시한 것과 꼭 같이 죽음을 멸시하라。 대렬을 더욱 굳게 다지라! 감옥에서의 압박과 고문에 성과적으로 항거하기 위하여 모든 력량을 집중하라。 죽은 동지들의 추억과 조국과 우리 인민을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저주가 있으라。

나는 우리의 원쑤들과의 최후의 투쟁으로——죽음으로 나아간다。 나는 승리자로 될 것이다。 그것은 이 전투에서는 다만 우리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것을、 나의 모든 힘을 우리의 부대에 바치였다。 투쟁으로의 부름에 대하여 나는 언제나 준비되여 있다。고 대답하였다!

코스타스 짜코스

얀니스 찌찔로니스

라미야

교원。 예쁜(희랍 통일 청년 동맹)의 지도 일꾼。 자기 도시에서 불요 불굴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후에 그는 엘라스의 대렬에 가입하여 무기를 손에 잡고 나치스트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웠다。

사형장으로 가면서 그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나의 아버지는 내가 나서 여섯달 만에 전사하였다。 살 길이 없었던 나의 어머니는 무척 애를 써 가면서 나를 길러냈다。 어머니는 나를 사람으로、 희랍인으로、 교원으로 만들었다。 나는 살아 남는 사람들에게 나의 어머니를 사랑해 줄 것을 부탁한다。 어머니는 많은 생활의 비애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一九四八년 五월 六일에 처형 당함。

나의 어머님께。

저는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어머니가 갑자기 들으셔서 눈물을 흘리시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방울의 눈물도 우리의 최후의 키스를 호리게 하지 마십시요。 눈물과 신음 소리가 영웅의 죽음을 뒤따라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방울의 눈물도 보여서는 안됩니다。 어머니、 저는 인민의 사업을 위하여 영웅답게 죽겠습니다。 자유의 날이 찾아올 때、 종(鐘)이 기쁨을、 승리를 알려 줄 때、 그때는 어머니、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이것은 나의 아들、 나의 얀니스가 종을 울리는 것이다…』라고。 밤은 지새여 갑니다。 곧 새벽이 될 것입니다。

자유의 바람은 일고 우뢰소리는 더욱 더 처절해 집니다。 그러나 어떠한 우뢰가 나를 엄습한다 하더라도 어머니、 저는 감당해 내겠습니다。 만일 제가 자유를 위하여 죽을 운명이라면—저는 죽겠습니다。 이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일 것입니다。

몇분이 지나면 해가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새날은 찬연한 빛을 던져 당신들 모두를、 자연과 생명을 비최일 것입니다。 불타는 그 빛은 차거운 대지와

우리의 새로운 무덤을 덮을 것입니다… 고원한 리상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 줄 안 사람은 죽을 줄도 알 것입니다.

어머니의 아들 얀니스

흐리스토스 콘토스

스파르타

로동자。 一九四二년부터 산 속에 숨어서 동맹군의 군사 작전에 관한 보도를 메씨니야의 주민들에게 전달하였다。 그 활동 때문에 히틀러 도당의 추구를 받은 그는 아테네에 피난처를 구하여 거기서 코로피(앗티크) 지방에서 예압 비서로 일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던 그는 一九四三년 아테네에서 대 시위를 조직하였다。

히틀러 도당은 두번이나 그를 체포하였으나 그는 도주하는데 성공하였고、특히 두번째는 이미 사형장으로 끌리여 가는 도중에서 도망하였다。

一九四八년 五월 六일에 처형 당함

사랑하는 나의 안해!

다른 동지들과 함께 나를 총살장으로 끌어 내려고 나를 데리러 왔소。 나의 사념은 당신들 모두와 함께—육친들、친구들과 함께 있소。 나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생각하오—과거에 대한、또 미래에 대한…。 나의 눈앞에 희열에 가득한 찬연한 미래가 나타나오…。

사랑하는 나의 안해、나는 당신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아오。 나는 당신이 서러워 하지 말아 주기를 바라오。 심장을 힘써 침묵시키시요。 당신은 서러워 해서는 안되오—그것은 이중의 불행으로 될 것이며 우리의 원쑤들에게는 이중의 기쁨을 주게 될 것이요。

정신을 단단히 다지시요。 압박과 고통과 피로를 두려워 마시요。 우리는 목표에 접근하고 있소。 몇달만 지나면 우리는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한 시간을 맞이 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 그때、살아서 하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죽어서도 인민에게 충실할 나는、당신이 나의 무덤에 와서 『사랑하는 사람이여、고히 잠들라… 그대는 헛되히 피를 흘리지 않았다…。 나는 그대의 의사를 실행하였다…。 우리는 승리하였다…』 하고 나에게 말해 줄 것을 안타까이 기다릴 것이요。 귀중한 나의 안해、그때는 나는 안심하고 영원히 잠들 것이요。

뜨거운 키스를 보내오。

당신의 남편 흐리스토스

사형의 전날 밤

희랍과 『항거』를 동정하는 외국 신문들에는 이 몇달 동안 다음과 같은 불안한 질문이 되풀이되고 있다—『통치자들은 과연 단행할 것인가? 감옥에서 신음하고 있는 투사들의 피를 그들은 과연 흘리게 하려는가?』

오늘 오후에 또다시 二二명이 불리여 나갔다—그들 중 一七명은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고 五명은 종신 징역을 언도 받은 사람이다。 전자 가운데는 모네다스、아브게리스、부르더스 등 세명의 『항거』 영웅과 우리 그루빠의 지도자 구네니오티스가 들어 있다。 그들은 다른 감옥으로 『옮아가기』 위하여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믿어지지 않는다…。무더운 이 여름밤、돌을 깐 감방 바닥은 문자 그대로 새빨갛게 달아 있건만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 불안한 사념이 집요하게 우리를 따른다。 감옥의 의사는 선고 받은 사람들을 안심시키려 서두른다—『아니요、아니요、파낫시스、고지 곳대루 말하리다。 이전 단순한 이감이요。』 파낫시스는 의사의 들뜬 양을 바라 보면서 웃는다。

그들이 끌려 간다。 그들을 술취한 『마브로쿠피데스』(『검은 모자』—군주—팟쇼적 감옥과 감금소에 구금되여 있는 정치수들을 살해하기 위하여 희랍 정부가 리용한 테로 단체。—편집부 주)의 무리가 포위하고 있다。 그 무리는 자동총으로 무장하고 있다。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둘씩 붙들어 매여 있다。 파낫시스가 무엇인가 말하려 한다。 그는 매를 맞는다。

에기나의 거리거리에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없다。 도시는 계엄령 하에 있는 것이다。 항구에는 구축함이 정박하고 있다。

침통한 저녁이 막을 내린다。 산보。 대기는 꽃과 풀 향기에 함빡 젖어 있다。 음울한 감방으로 끌리여 가는 그 순간 자연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어린애의 목소리…。 무엇인가가 눈을 찌른다、울음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른다…。 또다시 극도의 불안—『그놈들이 벌써 시작했는가?』 그러자 『할대로 하라지、마찬가지다、우리는 준비를 갖추었다!』 라는 생각이 점차로 떠올라서는 수정처럼 결정한다。 그렇지만 이전 아마 참말로 단순한 이감일지도 모를 일이지?

밤。 청각은 긴장되여 있다。 눈은 크게 띄여 있다。 멀리서 경적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 온다。 『이전 구축함이야』 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 말한다。 이 경적소리! 그것은 우리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나 아닐가?

어제만 해도 항구에는 생활과 로동이 들끓었고 기선에서 울리는 기적들이 서로 응답하였었다。 가장 단순한 사물들의 의미가 어떻게 이렇게도 달라지는가!… 살인자놈들!

아침이 온다。 낮、자연은 환희하고 있다。 조그만 한떨기의 풀포기도 그것은 우주의 일부분인 것이다。 콧구멍은 탐욕스럽게 공기를 들여 마신다… 생명… 생명… 생명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우리들의 긴장은 약간 풀렸다。 결국 그것은 아마 우리의 상상에 지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갑자기… 이것은 무엇인가? 거리에서 신문을 파는 아이가 목청껏 부르짖고 있다。—『최신 뉴스—모네다스、아브게리스、부르더스 사형…』

그렇고나! 즉—시작되였구나! 놈들은 一七명을 처치해 버렸다… 그것도 얼마나 간교하게 했던가! 비렬한 놈들! 살인자! 그렇다면 그래도 좋다—우리는 여기 제자리에 서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고독하지 않다…。 우리를 인류가 잊겠는가? 우리를 우리의 어머니—자유가 잊겠는가? 아니다! 잊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우리는 죽음의 시각에도 싸울 것이다!

에기나의 항구에서 경적이 부르짖을테면 부르짖으라。 생활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우리는 그것을 무한히 사랑한다! 그러나 이 사랑은 비겁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장엄한 도전으로 될 것이다。 그럴테면 놈들은 시작했는가?……。

그래도 좋다!

한 수감자의 일기에서

『지평선은 캄캄해도 좋다 그러나 동틀 순간은 가까워라』

—시 편 들—

카·얀노늘로스

一九四八년 五월 九일 총살 당함。

마 지 막 노 래

진 새벽은 벌써 우리들에게 「잘 잤느
냐」인사하고
타고난 팔자라 닭은 어둠 속 그 어데서
울어옌다…
마음 속에 날은 이미 밝고 밤은 총총히
물러 가나니、
지평선은 캄캄해도 좋다、동 틀 순간은
가까워라。
형제들이여、희멀건 아침 노을이 애오
라지 우리의 운명이어니、
뜨거운 대낮별 그 애무는 우리 차례에
닿지 못하리라……
보라! 그 어디 멀리서 라팔 소리 울
린다、

대지의 품 속에서 솟아난다… 이는
아침이 들을 일깨우는 것。
소란한 욕질이 우리를 부른다、산 제물
제단으로、싸움에로、
그러면 생명은 또다시 마음 속에서
놀라운 세계를 낳는다、
크낙한 시각이 다쳐 왔다。 심장이
리성이 눈을 떴다……
나는 불 같고 또 준엄하다、내게서는
불길이 타오른다。
나는 불 속으로 뛰여든다… 영 리별이
구나、포도추야
너 훌륭한 포도추야! 싸움이 있기 전

우리는 마지막으로 너를 마시게 되여
있다。
영 리별이구나、명랑한 영웅의 동무야。
우리는 웨치며 원쑤의 진영을 향하여
돌진한다、
우리는 죽음과 싸움을 겨눈다。 심장엔
날개가 돋히고
이 무서운 웨침은 억세여라… 우리의
대지 우에선
억압의 쇠사슬을 부시며 이처럼 태풍이
아우성 치누나!
형제들이여、내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앞으로、오직 앞으로!』—
우리 이 시각을 자유의 춤으로 맞이
하자!
전시에 비로소『잘롱고』의 딸들이 춤춘
것이 륜무가 아닌가? 적지 않은 세
월이 흘렀건만、
이 춤의 신성한 희랍 리듬
우리에겐 여태도 들려 온다、오 청춘
이여!

더 높이 날아 오르라!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라!
온 우주에서 더 광활한 곳이 있다더
냐。
불상한 노예처럼、우리의 기세 떨어질
소냐。
스산한 신음 소리엔들 우리 심장 떨리랴、
싸움에서 쓰러진 우리들 사이에 비겁자
는 없나니、
우리는 자랑에 차、운명의 제비를 뽑으
려 간다、
오 죽음아、네 잔인한 장벽을 부시려
간다。
우리를 불사른 재 하늘로 날리며 붉은
우리를 삼켰으나、
그 불 속에서 고통은 사라졌고、슬픔도
고통과 더불어 사라졌거늘…
자기의 이 죽음으로 하여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더라、

五 · 一 절

에프 아스테리스

에진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음。

오 청년의 명절、즐거운 五·一절이여、
뜨거운 피 어지러히 뿌려진 들에서、

대중 과학 지식

방안에서 웃바람이 왜 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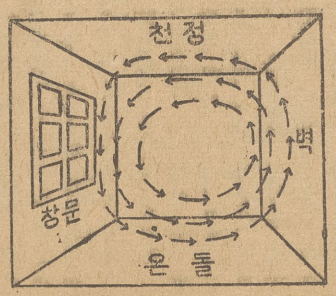
겨울에 어떤 집에서는 웃바람이 세서 춥다고 한다。 온돌은 매우 더워서 발을 대지 못할 정도인데도 방 안에는 찬 바람이 분다。 밖에서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벽틈을 매질하고 밀창에 풍지를 바르고 심한 경우에는 드나드는 문 한짝 만을 남겨 두고 모든 창문을 말끔히 봉해 버린다。 그래도 웃바람은 여전히 분다。 분명히 웃바람은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어째서 방안에서 찬 바람이 부는가? 남비에 물을 넣어 풍로에 덥혀 보라。 얼른 보아서는 물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이때 물속에 톱밥 부스레기를 집어 넣어 보면 톱밥이 물의 운동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남비의 물이 계속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남비 안의 물은 뜨거운 밑바닥으로부터 우로 떠올라 오고 그것이 남비 벽을 스쳐서 다시 밑바닥으로 내려 가면서 계속 아래 우로 빙빙 돌게된다。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액체나、기체、그리고 대부분의 고체는 가열하면 몸집(체적)이 불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체적은 온도가 높은 편이 가볍고 온도가 낮은 편은 무겁다。

가벼운 액체와 무거운 액체를 섞어 놓으면 가벼운 액체가 우로 떠 올라온다。 물 우에 기름이 뜨는 것은 기름이 물보다 가볍기 때문이다。 온도가 서로 다른 물을 섞어 놓아도 이와 같은 현상이 진행된다。

그러면 남비 속의 물의 문제로 넘어 가자。 남비의 밑바닥은 풍로、불로 가열되여 있으므로 밑바닥의 물은 온도가 제일 높고 무게는 가벼워 짐으로 우로 떠 오르게 된다。 떠 오른 물은 불에서 멀어짐에 따라 차차로 식는다。 식으면 그것이 다시 밑바닥으로 가라 앉게 된다。 이리하여 계속적인 순환이 일어 나는 것이다。 이러한 순환을 우리는 대류(對流)라고 부른다。

방안의 공기도 남비 속의 물과 꼭 같이 대류를 일으키는 것이다。 방안의 공기는 온돌 바닥에 의하여 가열된다。 가열된 공기는 가벼워지고 우로 천정을 향하여 떠 오르게 된다。 천정에 도달한 더운 공기는 찬 천정에 도달하면서 거기서 급격히 랭각된다。 그러면 공기는 식기 때문에 무거워 지며 공기는 벽과 창문을 스치면서 더욱 더 랭각되여 다시 온돌 바닥으로 내려온다。 온돌에 접촉하면 다시 가열되여서 전과 같은 운동을 반복하게 된다。 이것이 즉 방안에서 부는『웃바람』이다。(그림 참조) 온돌에서 떠 올라가는 바람은 뎁지만 찬 천정과 창문을 스쳐서 되돌아 오는 바람은



방안 공기의 대류

그대에게 인사한다! 잘 있거라, 영원히!

새로 맞는 五·一절을 나는 너는 거닐지 못하리니…

형제들이여, 그대들에게 인사한다… 심장을 서렵게 하지 말라,

그것을 하늘 높이 추켜 들라, 붉은 깃발처럼,

그대들의 청청한 목소리를 우리는 끝까지 간직하리라,

림종의 손아귀 힘으로, 경련하는 신음 소리로。

그대들은 명절날에 나갔으니 그것을 맞으리라,

질투쟁이—죽음이 그대들에게 독 있는 애무의 손길을 뻗쳐도 좋다,

불뎅이 같은 용감한 심장들을 보면, 즐거운 그대들의 춤을 보면,

그것은 질겁하고 물러 가리라。

그대들의 청춘의 륜무를 그것이 얼마나 두려워 하랴!

그대들의 씩씩한 노래에 그것은 겁을 먹나니…

우리는 안다。 시각이 가까움을…흉악한 살인귀의 무리

죽음 앞둔 우리에게 세상 없는 고통을 주리라。

그러나 화강석 바위 같이 우리의 가슴은 굳나니,

사나운 단검의 날도 부셔 놓으리라!

보라, 붉은 강처럼 넘쳐 흐르며,

희랍 하늘엔 하룻날의 선소리군 노을이 탄다。

오 사랑하는 조국이여, 그대 또한 잘 있거라!

그러나 우리를 생각하여 슬픈 눈물일랑 흘리지 말라,

그대의 청춘의 五·一절, 이 날로 하여

만가로 되게 하지 말고 기쁨의 호소로 되게 하라!

(민주 청년사에서는 앞으로 『심장의 피로써』를 단행본으로 출판할 예정이다。 편집부)

열을 빼앗기기 때문에 몹시 식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을 땐 온돌 방 안에서 찬 바람을 감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웃바람을 없이 하는 방법은 없는가? 다시 말하면 방안에서의 대류를 약화시킬 수는 없는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방안에서 웃바람이 불게 되는 원인은 방안 공기 온도의 심한 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웃바람을 멈추게 하려면 천정과 창문에서의 심한 공기의 랭각을 방지할 방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온돌방의 벽은 흙으로 두껍게 발라 놓았기 때문에 벽을 통해서 열이 방출되는 정도는 적으며 따라서 흙벽에 닿은 공기는 심히 랭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밀창이나 천정은 종이 한장 만한 두께 밖에 되지 않는다。 방안의 공기는 천정과 밀창에서 심히 랭각되고 이것이 웃바람을 불게 하고 방을 춥게 한다。 웃바람을 멎게 하려면 창문과 천정에서의 열의 방출을 적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온돌방의 밀창은 보통 창문 살대에 종이 한장을 바른 것인데 이것으로서는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창문 살대를 가운데 두고 안팎으로 종이를 바르면 두장의 문종이 사이에 살대 두께만한 공기 층이 형성되여 二중창과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창문을 통한 열의 방출은 훨씬 감소된다。

천정도 이와 같이 二중으로 종이를 바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천반지 우에 겨나 톱밥을 펴면 방안은 한결 아늑하게 된다。

김책 공대 물리 강좌 제공

一九五五년도 『청년 생활』의 중요 내용

편집위원 리홍종(주필) 김득준 박철복 허석선 신호근 양동섭 김하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청년 생활』一九五五년 제一二호
一九五五년 一二월 一五일 인쇄
一九五五년 一二월 二〇일 발행
발행소 민주 청년사
인쇄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一一三〇、二三七 二一、〇〇〇부 발행 값 四〇원

100—

민주 청년사 근간 서적

브•이•레닌의 유년 시대와 청년 시대

관형 국반절　　페지수 132페지　　정가 25원

이 책은 쏘련 국립 정치 도서 출판사에서 출판한 『뽀볼지에 시절의 레닌』의 일부인바 여기에는 브•이•레닌의 유년 시대와 청년 시대의 생활과 활동에 관한 이야기가 수록되여 있다。 책의 저자는 1905년부터 쏘련 공산당원인 브•므•볼린이다。

시　　험

관형 국반절　　페지수 113페지　　정가 19원

『시험』은 웽그리야의 저명한 작가의 한 사람인 뻬쩨르 웨레쉬의 단편 소설이다。

단편 소설 『시험』은 집단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웽그리야 농촌에 일어난 사회적 변동들이 어떻게 인간의 의식과 로동에 대한 그들의 관계를 개변시키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사형당한 불란서 공산당원들의 편지

관형 국반절　　페지수 172페지　　정가 28원

이 책은 히틀러 침략자와 그의 앞잡이인 매국적 뷔쉬 『정부』를 반대하여 투쟁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여 총살을 당한 불란서 공산당원들이 남긴 서한집이다。 이 책은 보통 잉크가 아니라 혁명 투사들의 심장의 피로써 씨여진 책이다。